



12

1991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12호

(루계 530)



◆◆◆◆◆◆◆◆◆◆

## 차 례

◆◆◆◆◆◆◆◆◆◆

빛나라 기발이여 .....	4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께 드립니다 .....	5
나는 안다 .....	5
12 월 27 일 .....	6
월계수보다 목란꽃이 낫다 하시며 .....	7
영원한 축복속에 .....	8
사향가 .....	9
첫 기적소리 .....	19
준엄한 불구름속에서 다져진 충성의 철리 .....	20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진실한 형상과 대안의 사업체계 .....	26
사업을 인계한뒤 .....	31
해안의 구내길 (외 1 편) .....	38
그 믿음속에 .....	39
주인들 .....	40
눈내리는 대안의 구내길에서 .....	50

사랑의 기제소리 (외 1 편) .....	52
문학소조의 밤 .....	52
그날에 서보라 (외 1 편) .....	53
심장이 설레이는 강이여 .....	53
구호관이 달린다 .....	54
두 녀인 .....	55
한생 조국의 품을 우러러 .....	63
안고오는 기발 .....	66
내삶의 궤도 .....	67
아버지 .....	68
통일거리 .....	73
진달래의 마음 (외 1 편) .....	74
개나리의 노래 .....	74
작가와 창작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75
첫 청년절날에 .....	79

# 빛나라 기발이여

리동수

하늘에 불타는 아침노을도  
저 붉은 빛발에 물들었는가  
땅우에 흐르는 바람결도  
저 설레임에 흘러가는가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온 누리를 붉게붉게 물들이며  
당중앙청사우에 빛나는 당기  
조선로동당의 기발이여

안개 짙은 세계의 하늘아래서  
오로지 우리의 저 기발만이 철리의 목소리로  
시대와 인류의 방향을 가리키며  
끝없이 끝없이 나뉘기여라

저 설레임소리 들으면  
원썩들의 총칼앞에서도 굴함없이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며 놈들을 조소하던  
항일투사의 그 목소리 들려오는듯

바라보면  
청춘도 생명도 귀중하지만  
그보다 조국을 위해  
서슴없이 생을 바쳐 돌격로를 열어간  
영웅전사의 그 신념이 어려있는듯

아, 불굴의 의지가 스배여  
그 불타는 마음이 어리여

저 빛발 그리도 승엄한것인가  
저 설레임 그리도 거세찬것인가  
저 빛발 어리면  
어둡던 강산에도 꽃이 피고  
거칠은 땅우에도 인민의 락원이 솟아나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쳐흐르고

저 설레임소리 울리면  
온나라 심장들도 일제히 화답하고  
사납게 흐르던 대양도 길을 바꾸고  
천만산악 넘어 황금나락 펼쳐거니

나는 보노라 저 모습에서  
더 아름다워질 조국의 거리와 마을들을  
인류리상의 상상봉우에 높이 올라  
찬란히 빛을 뿌리는 조선의 모습을

아,  
엄혹한 오늘의 정세속에서도  
우리 인민을 주체의 한길로 억세계 이끄는  
우리 당의 위대한 의지로 나뉘기는 당기

빛나라 설레이라  
그 빛발아래 우리 대오 강철로 다져지고  
그 설레임속에 우리 대오 드팀없이 나가거니  
그 어떤 광풍도 우뢰도  
우리의 신념 우리의 전진  
꺼지 못하리라 , 막지 못하리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립니다

마마두 파두 바흐

오,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당신께선 이 나라에 룡성번영 안아오시고  
억센 불길로 나라를 철벽으로 다지신분  
인민의 행복위해 시련의 고비 헤쳐오신분  
평범한 현실에서도 정의와 진리 가려보시는  
그 예지로 인민에게 희망과 신심 안겨주신분

당신께서 주시는 믿음  
산도 떠옮기는 힘을 날고  
당신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 행복의 원천이거니  
당신께서는 온 지구위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별이십니다.

오,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동방에서 떠오른 붉은 별이시여!  
당신의 그 열정은 지구를 밝게 비치는  
광휘로운 빛발과도 같은것  
그 불빛 래일을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니  
주체사상은 그들을 구원할것입니다.

오, 인류의 어버이시며 희망이시여!  
당신의 위업은 영원불멸할것입니다

(필자는 기네 고등경찰관임)

## 나는 안다

마리오 에루 베지나

나는 안다  
바로 당신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풍부한 사상리론과  
시대의 운명을 안으신  
친애하는 지도자이심을

나는 안다  
바로 당신이  
빛나는 사상과  
강의한 열정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이심을

나는 안다  
바로 당신이  
조선인민을 이끌어가시는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이심을

나는 안다  
바로 당신이  
뛰어난 재능과  
혁명정신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이심을

나는 안다  
바로 당신이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고매한 덕성과  
비길데 없는 수완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이심을

나는 안다  
바로 당신이  
비범한 예지와  
정치가로서의 천품을 타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이심을

나는 안다  
바로 당신이  
전세계를 대표하는  
친애하는 지도자이심을

축하를 드리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축원하여라  
당신의 만수무강을

(필자는 말파사람임)

# 한해

최장수

축복의 꽃보라인양  
송이송이 하얀 눈이 내리던 그날  
북부탄전 취재길에서  
내 회답서한 받아안던 그날은  
못잊을 한해전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마디마디 그 글발은  
가슴가슴에 신념의 기둥으로 솟아  
온 나라가  
하나의 숨결로 맥박치게 하였더라

그 믿음  
등대처럼 우리 앞길 밝혀  
빛나는 위훈 안고 달려온 한해

그 사랑  
심장의 더운 피 더욱 끓여  
열정을 불러준 한해여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온대도  
우리 마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붉은기 더 힘차게 날리며

오직 우리 당의 위업을 받들어  
우리 식대로 걸어온 자랑스런 한해여

그 사랑 충성을 낳아  
쇠돌산을 허물어내리고  
그 믿음 효성을 낳아  
벌가득 풍년나락을 펼쳐

아, 빛나는 위훈의 일터마다에서  
그리도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르며  
행복에 목메이던 한해여

아 한해에  
우리 더욱 깊이 느꼈노라  
그 사랑 그 믿음이  
천만심장에 박동을 주어  
하나의 숨결 하나의 걸음새로  
온 나라에 위훈의 열풍을 불러온다는것을

아, 1991년  
못잊을 한해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변치않을 우리의 신념을 펼친  
승리의 한해여

## 12월 27일

권강일

나라가 휴식일로 선포한  
헌법절이라고  
아이들과 함께 창가에  
공화국기발을 내걸던 그날

설명절이 다가온다고  
벌써부터  
흥성이는 기분에 휩싸이던  
그날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귀한 친필서한  
당보에서 안아보며  
너무도 놀랍고 감격이 커  
뜨겁게 가슴 울렁이던 그날

어이 알랴 오늘은  
미처 모르는 이 순간에는  
또 어떤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는지  
은혜로운 빛발을 뿌려주시는지

새날이 와도  
하루일을 시작할 때에도  
스스로 심장에 엮어보는  
그날

아, 정녕 우리에게  
보통날, 평범한 날이 있으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사는  
빛나는 시대, 이세대  
전사의 의리를 일깨워주는 그날  
12월 27일

## 월계수보다 목란꽃이 낫다 하시며

1971년이 저물어가던 어느날이었다

일군들을 부르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 선물준비정형을 알아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언제나 모시고 다닐수 있게 해달라는 인민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절절한 소원을 풀어줄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형상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초상휘장견본들을 보아주시면서 그 형상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어느해 여름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사업을 의논하시면서 다양한 형식의 초상휘장을 형상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고 초상휘장 형태는 적어도 20가지는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그이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초상휘장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제작하는 초상휘장 배경에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고향집을 숭엄하고 무게있게 부각하도록 하시였다.

만경대고향집! 이것은 어느 도안가도 형상원도 전혀 생각지 못하던 문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의 눈을 새롭게 띄워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더욱 훌륭하고 정중하게 형상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느날 만수대창작사에 친히 찾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십가지의 초상휘장견본을 보아주시였다. 견본을 하나하나 주위길게 보시던 그이께서는 월계수장식이 있는 초상휘장을 보시고 왜 월계수를 받쳤는가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일군들의 대답을 기다리신듯 잠시 말씀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시였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는 지금 찍하면 월계수를 그리는데 그것도 하나의 도식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월계수보다 목란꽃이 낫다고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그이의 물으심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다.

월계수란 원래 서양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식이다. 그들은 오랜 옛날부터 체육경기나 어떤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을 축하하여 월계수잎으로 환을 지어 머리에 씌워주곤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창작가들은 그것이 하나의 국제관례라고 하여 절대적인것으로 여기면서 초상휘장에까지 그려넣었던 것이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도식주의에 사로잡히면 창조적사색이 마비되어 옹고그른것도 가려볼수 없게 된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월계수보다 우리 나라의 목란꽃이 얼마나 좋은가.

슬기롭고 존엄있는 우리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안고 해와 별 우러러 주체의 조국강산에 만발한 목란꽃! 참으로 목란꽃은 그 뜻이 숭고하고 그 향기 그윽하여 우리 인민들 모두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름다운 조선의 꽃이다.

그후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휘장에 월계수 대신 목란꽃을 정중히 새겨넣었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초상휘장에 받쳐넣는 한송이한송이 꽃에도 숭고한 뜻을 담아 형상하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높이신 뜻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30돐을 기념하여 제작한 초상휘장에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당창건3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1975년 9월 어느날이었다.

해당부문 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신 그이께서는 당창건 30돐을 기념하여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휘장을 잘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손수 원주필을 드시고 새로 형상하게 될 초

상휘장의 규격을 그려주신 다음 초상휘장형식은 휘날리는 당기발로 하되 뒤편에는 《조선로동당창건 30돛기념》이라는 글을 새겨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완성된 작상을 안겨주시었다.

하지만 창작자들은 처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에 맞게 초상휘장을 형상하지 못하였다.

어느날 그들이 올린 초상휘장견본을 보아주시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작고 선명하지 못할뿐 아니라 당기발이 힘있게 나뭇가지 못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그러시고 당창건 30돛기념 초상휘장을 다른 때보다 특별히 더 잘 형상할데 대하여 간곡히 타이르시면서 일군들을 고무하여 주시었다.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긴 창작자들은 그후 도안을 고치고 제작전투를 벌려 당창건 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은 10월초순 어느날 고쳐형상한 초상휘장을 또다시 그이께 올리게 되었다.

이날 어느 극장에서 예술공연을 지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초상휘장견본을 가지고 왔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때는 새벽 4시였다.

한 일군이 조금있으면 날이 밝겠는데 후에 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자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그동무들이 최대의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가지고 온 초상휘장을 보아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어서 가져오라고 이르시었다.

이윽고 초상휘장견본품을 한상한상 보아주시는 그이께서는 여러가지 형태가운데서 당기발형초상휘장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그것을 친히 비준해주시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우에 정중히 모시고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초상휘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충성심에 의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 영원한 축복속에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전계승

삼송나무 푸르고  
화단꽃 만발한 패궁정마루  
높이 솟은 탑앞에서  
결혼기념사진을 찍는구나  
행복한 청춘들아

나란히 선  
그들의 어깨너머  
안겨오누나  
하늘을 덮을듯 휘날리는 붉은 기폭  
진군하는 청동의 대오

눈보라 헤치는 장정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따라  
격전의 언덕우에  
백발백중의 위훈 떨친 녀전사도 저기 있어...

장렬한 최후 그 아침  
맑은 눈동자에  
찬란한 조국의 미래를 비껴담고  
혁명만세를 웨치던 전사도 저기 있어...

백년가약의 꽃송이를 단  
그대들이 반갑고 그대들이 미더워  
그날에 벌써  
그대들의 행복을 다 안고 걸은 대오가  
잠시 행군을 멈추고  
보내주는 축복이여

오 여기  
영광의 이 언덕우에  
그대들을 세워준 투사들  
피어린 위훈의 나날에 바친  
그 불타는 청춘과 숭고한 사랑  
뜨겁게 받아안은 새 세대들아

위대하신 수령님을 진두에 모신  
불멸의 그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축복속에 맺고있구나  
오늘의 뜻깊은 이 순간을  
세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갈  
우리시대 청춘의 백년가약을!



# 사향가

림병순

신년음악회는 연일 성함을 이루며 진행되고 있었다.

조성규는 음악회가 시작되어 사흘째 되는 날 인민예술가 한기표의 초대를 받고 서둘러 극장으로 갔다.

막이 오르자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지휘봉을 든 한기표가 무대에 나타났다. 박력있고 정열적인 지휘로 언제나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던 한기표였다.

그는 관중들을 향해 답례를 보낸다. 머리에서는 백발이 희끗거리고 안경밑의 눈가에 주름살이 무수히 잡혀있다.

이윽고 쥐죽은듯한 극장안에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가 이번에 힘을 넣어 새로 준비한 관현악과 합창이었다.

고향의 맑은 시내물처럼 선율은 처음부터 조용히 속삭이며 그리움에 목메이듯 은은히 울리었다. 처음악기들이 그 소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동경과 사색의 세계를 펼친다.

한기표는 지휘봉을 주의깊이 움직이며 그 선율 속에 점차 노래의 깊은 의미를 부여해나간다.

관현악에 실려 합창이 시작되었다. 처음 조심히 오르내리던 지휘봉은 이제는 마치 그속에서 모든 악기들의 음색이 하나로 조화되어 승엄한 음악이 흘러나오듯 자유롭고 박력있게 움직이였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휘자의 모습에 눈길을 보냈다.

조성규는 류다른 감회와 뜨거움에 젖어 정열적으로 지휘봉을 흔드는 한기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잊을수 없는 노래였다.

조국은 해방되었다.

사람들은 장안에서 풀려나온 들새들마냥 날마다 거리와 동구밖에 펼쳐나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징병을 피해 몸을 숨기었던 청년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한기표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역마차에 몸을 싣고 이국의 술집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팔던 그의 방랑생활은 끝났다. 호박꽃이 정겹게 피어난 북방의 고향마을이 그를 반겨 맞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기타를 매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기표 이사람, 정말 기쁘네. 이젠 우리들에게 실컷 노래를 불러주게나.》

한기표는 억제할수 없는 환희에 잠겨 밤마다 마을사람들앞에서 기타를 타고 노래를 불렀다.

타향살이 몇해던가

손꼽아 헤여보니

...

기타를 앞가슴에 비스듬히 올리고 짚을판을 재빨리 오르내리는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황홀하게 움직일 때마다 울림통에서는 구슬픈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소리없이 스며들어 덧없이 향수의 짙은 정서를 자아냈다.

《자넨 언제 그런 훌륭한 재간을 배웠나? 자네의 손가락은 꼭 귀신갈네그러.》

젊은이들은 곱방대를 뽑아들고 혀를 털었다.

《타향살이를 한번 더 타게. 우린 징용에 끌려가서 고향생각이 나면 그 노래를 불렀지.》

《기숙의 오빠, 한번만 더...》

앞사람의 잔등에 얼굴을 가리우고 노래를 듣던 처녀도 귀밀을 붉히며 꺼져드는 목소리로 요청했다.

그럴 때마다 한기표는 한번도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가 말없이 다시 기타줄을 튕기면 어떤 젊은이들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밤마다 동구앞 버드나무밑에서는 구슬픈 기타소리가 울리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도소재지에 나왔던 한기표가 신문기자로 일하고있는 조성규를 찾아갔었다. 한책상에 나란히 앉아 소학교를 졸업한 그들은 만나자 억센 팔뚝으로 서로 얼싸안고 방안을 빙빙 돌았다.

《방랑가인이 돌아왔단 말이지.》

조성규는 한기표의 목에서 팔목을 풀며 기쁨을 이길수 없어 다시 두손을 잡아흔들었다.

《정말 반갑네, 내가 자넨 얼마나 보고싶어했는지 아나?》

한기표는 눈시울에 고여오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세차게 눈을 습뻥이었다. 역시 정에 물고 다감한 한기표였다. 소학교졸업식때에 계집애들처럼 눈물을 흘려 동무들의 놀림에 들었던 일이 있었다.

《이젠 <집시생활>도 끝났으니 앞으로 무얼 하겠나?》

《아직 작정을 못했네. 지금까지 그저 고향에 돌아온 기분에 들떠서 그런 생각은 못하고있네.》

한기표는 의자를 당겨 조성규와 마주앉으며 입가에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별로 특징적인데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좀 류다르다면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도수경필의 미간에 깊은 주름살이 그어진것이다. 불우한 음악가의 고심의 흔적이런지? ...

《성규, 자넨 아주 훌륭한 직업을 구했네구려. 기자로 되었으니 공부한 보람이 있네.》

그는 두툼한 입술을 놀리며 진심으로 조성규의 직업을 동경했다.

《다른 재간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나?》

《아닐세, 자네야 늘 작문과목에서는 우등의 성적을 받았지. 난 이렇게 풍각쟁이로 되고말았네. 노래를 팔고 돈을 구걸하는 풍각쟁이로 말이네.》

한기표는 별로 궁지도 원망도 아닌 표정으로 말하였으나 안경필의 눈가에는 서글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구박하지 말게. 이제야 해방도 되었으니 사람마다 제 갈길이 있고 제할 일이 있는게 아니겠나?》

조성규는 이렇게 위안하면서 혹시 악단을 하나 조직해보지 않겠는가고 넌지시 그의 의사를 물어 보았다. 그것은 조성규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거나 타산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었다. 다만 해방된 내 나라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한기표의 모습을 보고싶은 한가닥 마음의 기원에서인지도 몰랐다.

《꿈같은 소리... 악단을 뭐 맨주먹으로 못는다인가? 가수와 연주가가 있고 악기가 있어야지. 또 그들을 먹여살릴 돈은 어디서 생기고...》

그는 허황한 말은 하지도 말라는듯 손을 내저었다. 그전에 자신이 속해있던 악단이 경영난에 걸렸을 때 밥값에 너배우들을려관에 인질로 매여놓고 전당포를 찾아다니는것을 직접 목격한 한기표였다.

조성규는 더는 권유하지 않았다.

해질무렵까지 사무실에 앉아 묵은 회포를 나누던 한기표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성규를 밖으로 이끌었다.

《어데로 가자고 그러나?》

《날 따라오게.》

한기표는 명령조로 말하고 묵묵히 앞서 걸었다. 진한 회색종절모를 눌러쓰고 변화가를 지나 얼마간 뒤거리로 걸어가던 한기표는 새로 개업한 다방으로 들어섰다. 두칸을 터쳐서 꾸린 방안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다.

그때 검은 다반에 커피를 받쳐들고 주방에서 나오던 젊은 녀자가 한기표를 띄여보자 놀라 한 자리에 굳어졌다.

《그동안 잘 있었소?》

한기표는 그 녀자에게로 다가섰다.

《인제야 오셨군요. 전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녀자는 애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물기어린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한기표는 그에게 조성규를 소개했다.

《잠간만 기다려주세요.》

그 녀자는 다반을 들고 손님들이 앉아있는 탁상쪽으로 걸어갔다.

《누군가?》

조성규가 묻자 한기표는 잠시 주저하는 기색으로 마주보더니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전에 악단에 같이 있었네. 백세정이라고... 3년동안 소식을 모르다 글썽 얼마전에 거리에서 만나지 않았겠나? 우연이라고 하겠는지... 좌우간 기구한 해후였지.》

조성규는 한기표의 표정에서 그들이 보통사이가 아님을 인차 알아차리었다.

《련인인가?》

《글썽... 무어라고 말해야 옳을지? 그전에 악단이 망할 때 헤어졌는데 불쌍한 녀성일세. 인기도 있었고...》

《그럼 지금부터 난 자네들의 결혼기념품을 장만해야겠네.》

그러자 한기표는 소리없이 따라 웃었다.

백세정이 그들의 탁상에 커피를 가져왔다.

《무슨 노래를 들으시겠어요?》

《아무 노래나...》

한기표가 대답하자 백세정은 인차 전축이 있는 데로 가서 전축을 틀어놓고 다시 그들한테로 왔다.

《이거 인기있는 너가수가 노래를 불러야지 커피나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조성규는 커피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백세정을 의미있게 바라보았다. 룡조가 섞였으나 그것은 조성규의 마음의 진정이었다.

《이미 전 노래를 부르는걸 단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종일 이렇게 음악을 감상하며 일하지요.》

백세정의 가름한 얼굴에 서글픈 미소가 어리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허무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지워버릴수 없는 동경과 미련이 소리없는 미소속에 숨겨져있었다.

한기표가 다시 조성규를 찾아온것은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였다. 그는 만나자 주머니에서 종이쪽지 한장을 책상우에 꺼내놓았다. 그동안 악단을 조직하였는데 신문에 광고를 내달라는것이였다.

조성규는 기뻐다. 술주정뱅이들의 수모를 받아가며 노래를 팔던 방랑가인이 이제는 화려한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았는가!

《참 잘했네. 그런데 용케 악단을 꾸었네그려.》

《뜻있는 음악친구들을 만났네. 하지만 아직 옥망뿐이지...》

《이제야 해방이 되었는데 무슨 걱정인가? 조국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해보게, 악단에 대한 선전이야 내가 하지 않으리, 영...》

그날 조성규는 급히 광고원고를 만들어 당일호 신문에 밀어넣고 거리에 나갔다가 갑자기 트롬본의 길고 멋드러진 소리를 듣고 한자리에 서버렸다. 행인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살피었다. 사람들이 봄비는 해안통세거리에 난데없는 악대가 나타났던것이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걸어오는 대여섯명 대오의 맨선두에는 길고 뾰족한 광대고깔모자를 쓴 한 소년이 커다란 간판을 들고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발이 찍여있었다.

망향악단공연

눈물의 너가수 백세정양 출연

조성규는 간판의 큼직한 글발을 더듬다가 아이들이 담벽처럼 둘러선 한가운데서 트롬본을 불고 있는 한기표를 띠여보자 눈길이 굳어졌다. 그는 열심히 나팔의 긴 관을 늘였다가는 또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관을 머리에 추켜올리며 돌연히 옥타브를 높여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거리의 시선들에 일시에 한기표한테 쏠리었다.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나 만난듯 앞을 다투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한기표는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태연히 세거리의 한복판에서 몸을 돌려가며 거리의 모든 시선을 모으고있었다.

조성규는 처량한 그의 모습을 보는것이 민망스러워 얼른 얼굴을 돌리었다.

그는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방랑가인의 옛모습으로 거리에 서있었다.

그해 가을과 겨울이 바뀌는 어느날이었다. 조국에 돌아오신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기 위하여 북방의 항구도시에 오시였던것이다.

그 소식을 실은 신문이 배포되자 시민들의 감격은 일시에 폭발처럼 터져올랐다. 신문은 순식간에다 팔리고 김정숙동지를 두고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퍼져갔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신문사로 찾아갔다.

한기표는 누를길없는 걱정예 휩싸이여 신문을 읽고 그 길로 백세정과 함께 어머니께서 계시는 숙소로 찾아갔다. 한달음에 숙소앞에 이르러 방석이 열려진 대문앞으로 마당안을 들여다보니 하나같이 풀색군복에 혁띠를 띠고 윤기나는 짧은 가죽장화를 신은 녀대원들이 퇴마루에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때마침 녀대원들속에서 한분이 대문쪽으로 눈

길을 보내왔다.

한기표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그분도 마주 나오시였다.

한기표는 인사를 나눈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시에 오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녀장군께서 오신것은 우리 도시의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분은 당황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며 다정히 한기표의 손을 잡으시였다.

《지금 시안에서는 녀장군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떠돌고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것처럼 훌륭한 녀장군을 한번 만나뵈울걸 바라고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유별나게 빛을 뿌리는 부드러운 눈가에 미소를 담으시고 한기표를 지켜보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어딘가 겸허의 기색이 비끼였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기표는 의혹의 눈길로 그분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었다.

(혹시 이분이 항일의 녀장군이 아니신지... ?)

그러나 어디를 보나 녀장군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었다. 눈부시도록 하얀 목달개가 군복 깃안에서 단정히 목을 감쌌고 진홍색 혁띠밑으로 부채살같은 치마주름이 줄줄이 퍼져내렸다. 가뜩히 줄라맨 혁띠며 군복자락에서는 아직 화약내가 풍겨오는듯싶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조국에 돌아오시여 우리 도시를 처음으로 찾으셨으니 이건 우리모두의 기쁨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조국광복의 성전에 기울으신 어머니의 로고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경모의 마음뿐이지요.》

그분은 딱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소리없이 웃으시였다.

《그런 말씀을... 고생이야 조국인민들이 더 했지요. 지금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과 손잡고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새 조국 건설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이 해방은 되었지만 이제부터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시고는 뜻있는 눈길로 한기표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자신을 소개하시는것이였다.

순간 한기표의 온몸에서는 일시에 세찬 격동이 샘솟듯 솟구쳐올랐다.

(아, 이분이 바로 유격대녀장군으로 소문난 김정숙동지이시다!)

한기표는 입밖으로 터져나오려는 탄성을 가가스로 밀막으며 절로 허리를 굽히었다. 백세정의

눈시울에도 감격의 이슬이 맺히었다.

그이께서는 다정히 백세정의 하얀 손을 부여잡으시고 너대원들한테로 몸을 돌리시었다.

《모두 인사들을 해요. <망향악단>의 단장선생과 녀가수동무입니다.》

녀대원들이 다가와 한기표와 인사를 나누고 백세정의 손을 잡으며 반기었다.

《우리 방에 들어가서 악단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어머님께서 친히 그들을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조국성전의 싸움길을 이어 휴식도 없이 군복을 입으신채 또다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이 도시를 찾으신 어머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은 한없는 걱정과 휩싸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백세정의 옆에 앉으시며 먼저 그들의 지나온 이야기부터 듣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한기표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를 고쳐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방랑가인들의 지난날은 눈물과 수난의 력사였다.

차분히 내리칸 녀가수의 살눈섭에 이슬같은것이 반짝이였다.

이야기를 주의깊이 듣고계시던 그이의 눈길은 어느덧 슬픔에 흐려지고 밝은 얼굴에는 분노의 기색이 어리였다.

한기표는 그러시는 어머님을 보는 순간 가슴에 찢어놓는것이 치밀어올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버리었다. 녀장군의 모습이 그토록 소박하고 다감할줄은 미처 몰랐다. 실로 녀장군의 모습을 찾아보기엔 너무나도 평범하시였다. 상상밖에 부드럽고 인정에 넘친 인자한 어머님을 대하자 한기표는 놀라운 눈길로 그이의 모습을 다시금 우려렸다.

잠시후 어머님께서 밝은 안색을 지으시며 한기표를 뜻있게 바라보시었다.

《이제는 조국이 해방되었으니 마음껏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악단을 무은것은 참 잘하였습니다. 우리가 인민정권을 세우고 일제놈들이 파괴한 공장을 복구하해도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시더니 책상우에서 신문철을 가져다 《망향악단》 광고란이 있는 대목을 펼치시었다. 조성규가 쓴 광고였다.

그이께서는 생각에 잠기신 눈길로 광고란을 잠시 보시더니 고개를 드시었다.

《광고를 아주 흥미가 끌리게 썼군요. 여기에 소개된 눈물의 녀가수는 인기가 있는가보지요?》

그러자 한기표는 면구스러운 눈길을 옆에 있는 백세정한테로 돌리었다.

순간 백세정이 송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귀밀

을 붉히었다.

《그럼 백세정동무가 바로...》

어머님께서 말끝을 얼버무리며 백세정을 바라보았다.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합니다. 관객들을 끝자니 그렇게 광고를 낸겁니다.》

백세정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송구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었다.

《그럼 백세정동무의 노래를 들으려고 구경을 가야겠군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허물없이 백세정의 무릎에 한손을 얹으시며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숙소에서 돌아온 한기표는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그길로 조성규를 찾아갔다. 그는 방안에 들어서자 다짜고짜 두팔을 벌려 친구의 목을 감싸안았다.

《성규, 오늘 우리한테 어떤 경사가 있었는지 아나? 특호기사감이 생겼네.》

한기표는 얼떠름해있는 친구에게 낮에 항일의 녀장군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하였다.

《아니, 자네들한테 그런 행운이 차례졌단 말인가? 정말 기쁘네.》

조성규도 환성을 지르며 한기표의 두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럼, 녀장군을 공연에 초대하였겠지?》

《그럴수 없었네, 지금 공연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김정숙동지를 초대하겠나. 앞으로 준비를 잘해가지고 모셔야지, 우린 그저 그분을 만나 뵈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누를길이 없어 찾아갔던 거네. 김정숙동지를 만나뵈고 귀중한 말씀까지 들었으니 우리의 소원은 성취된 셈이지.》

한기표는 자그마한 미련도 없이 흔연히 말하였다.

《분명 그이께서 백세정동무의 노래를 들으러 오시겠다고 하던가?》

《그랬네.》

《그럼 됐네, 그야말로 특호기사감일세, 영?》

《하지만 그이께서 얼마나 바쁘시겠나?》

조성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았다.

어머님께서 오시여 사흘동안만 봐도 몹시 바쁘게 일하시였다. 낮에는 공장에 나가시여 로동자들을 만나시고 밤에는 녀성들을 찾아가 강연에도 출연하시고 회의도 지도하시였다. 거기다 광범한 사회계의 인사들이 찾아가 좌담회와 간담회에 초대하고 환영모임도 준비하였다. 조성규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세. 공연을 세련시킨 다음 다시 찾아가 어머님을 공연에 초대하도록 하세.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자네의 성의를 받아주실거네.》

한기표의 안경밑에서 커다란 눈망울이 그 어떤 기대를 담고 생기있게 움직이었다.

《그게 좋겠네.》

《그럼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네.》

그들은 준비가 되면 둘이 같이 김정숙동지의 숙소에서 찾아갈것을 약속하였다. 한기표는 활기있게 손을 저으며 사무실문을 나섰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한기표는 찾아오지 않았다. 극장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는 사람이 없었다.

조성규는 한기표를 만나보려고 극장으로 떠났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옷자락을 날리었다. 회색구름이 드리운 하늘에서는 금시 눈송이들이 쏟아져내릴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날씨에는 개의치 않고 여전히 거리에 나와 붐비었다. 문방구에서는 전축소리가 흘러나왔고 촌촌이 늘어선 가게마다에서는 물건을 흥정하는 고객들로 흥성거리었다.

조성규는 악단이 자리잡고있는 극장쪽을 향해 곧바로 걸어갔다. 웬일인지 극장앞에는 한산하였다. 눈여겨 살펴보니 매표구 옆의 출입문에는 주먹만한 자물쇠가 달려있었다.

조성규는 그앞에 망연히 서있었다. 그동안 악단형편이 나아졌는지? 그리고 관객들은 어떠한지 몹시 궁금하였다.

그를 만나 악단형편을 알아보야겠다는 생각에 선뜻 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극장앞에 오래동안 서있던 조성규는 맞은편 포목상점앞에서 낮익은 모습을 발견하자 주저없이 그를 향해 마주 걸어갔다. 허술한 홈스뽕양복에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쓴 사람이 걸어오고있었다. 분명 한기표였다. 그는 땅에 시선을 박고 걸어오는데 이따금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채 비척거리곤하였다.

조성규는 대뜸 미간을 찌프리었다.

《기표, 이사람!》

조성규는 몇걸음 급히 달려가며 그를 찾았다.

한기표는 고개를 들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조성규를 마주보았다.

《성규, 날 용서하게, 술을 좀 마셨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냄새가 풍겨나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대낮에 이렇게 술까지 마시고?...》

《속이 상해서 술을 마셨네. 오직 이 한기표를 위안해주는건 쓴 술뿐이네 그러.》

그는 얼어질듯 비칠거리며 걸음을 옮기었다. 조성규는 얼른 한기표를 부축하였다. 지금쯤 너장군을 초대할 준비를 다그치고 있을줄 알았는데 그가 이모양이니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한기표가 약속한 말은 일시적인 흥분에서였던가? 아니면 방탕생활의 오랜 습성에서?...

조성규는 그가 원망스러웠다.

어렸을 때부터 다감하고 예민하였으나 속이 깊은 한기표였다. 일단 약속하면 여기는 일이 없었고 행동하면 거기에는 가식이 없었다. 그러던 한기표가 이런 모양으로 감히 그런 약속을 하였단 말인가?...

조성규는 그를 부축하고 극장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동안 난 자넨 기다렸네.》

《약속을 어기여 미안하네. 날 용서하게.》

《나와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악단형편이 어떤가?》

《말말게.》

한기표는 모자를 벗어 책상우에 던지더니 그동안의 악단형편을 이야기하였다. 이제는 관객들이 오지 않아 극장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는것이였다.

《오늘은 악사와 가수 세명이 떠나갔네. 음악을 같이 해보자던 그들이 인제는 밥벌이를 하려고 떠나갔지.》

조성규는 그 말에 놀라 한기표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요즘은 관객들보다 오히려 빚달리들이 많은걸...》

《백세정동무는 있겠지?》

《우리 눈물의 너가수는 지금 울고있네, 악단을 바로잡아보겠다고 아는 기업가를 찾아갔다가 모욕까지 당했네.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면 뭐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에이, 더러운놈, 그전에는 풍각쟁이라고 일본놈들이 팔세하더니 이제는 그런놈이 업신여긴다니까. 그래서 다 걸어치울 작정이네.》

조성규는 그의 고충이 이해되었다. 관객들이 많아도 수십명의 악사들과 가수들을 먹여살리고 악단을 운영하기가 결코 수월치는 않을것이다. 그런데 관객들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달아올라 조성규는 묵묵히 창가에 눈길을 던지였다.

한기표는 바닥에 고개를 떨구고 꺼지듯 한숨을 지었다.

그때 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커다란 짐을 인 백세정이 들어왔다. 그 녀자는 가볍게 눈 인사를 하고나서 조용히 짐을 내리었다.

《그건 무슨 짐입니까?》

조성규가 묻자 백세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오무리었다.

한기표는 피로케 술을 들이그으며 잠시 조성규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책상배람에서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놓았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였다. 빚때문에 단련을 받고있는 아들에게 그동안 손수 짜서 모아두었던 명주 세필을 보내니 팔아서 악단일에 보태쓰라는 사연이였다.

《어머님이 보낸 명주천입니다. 한뼉 피땀을 들여 짜신건데 이걸 어떻게 팔겠어요? 차마...그래서 도로 가지고왔습니다. 래일 제가 삼촌한테 가보겠어요. 그러니 이젠...》

백세정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어 눈굽을 훔치었다.

한기표는 손을 뻗쳐 말없이 명주짐을 매만지었다. 허구한 세월 베틀에서 내리지 못하고 아들의 레장감을 마련하느라고 오리오리 피땀을 흘리며 짠 명주천을 농작밭에서 꺼내들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였으랴.

《해방이 되었다고 풍각쟁이신세가 달리되었나? 우리 처지에 어떻게 너장군을 초대할수가 있겠나? 육망뿐이지, 차라리 나도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겠네. 그러는게 나한테는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네.》

그는 한결 취기에서 벗어나 진정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모든것을 체념해버린듯한 표정이었다. 음악을 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기타를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끼고다니던 한기표가 이제와서 음악을 포기할 결심을 하였으니 그의 가슴은 찢기는듯 괴로웠다.

《그렇게 쉽사리 결심하는게 아니네. 음악을 버리고 마음편히 농사를 지을것 같은가? 김정숙동지께서도 자네들이 마음껏 노래부르기를 바라지 않나.》

《괴롭겠지, 하지만 대신 고향이 마음을 위안해주겠지.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와 동생의 애무가...그리고 동구앞의 버드나무가...》

한기표는 이렇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가로 다가서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였다. 그가 언제나 즐겨부르던 《타향살이》였다.

조성규는 이국에서 향수에 눈물짓던 그의 가련한 모습이 창가에 어린것을 보는듯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그를 도와줄 힘도 없었다. 신문에 다시 그럴듯하게 광고를 내면 관객들이 찾아올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그와 헤어지면서 조성규는 이렇게 당부하였다.

《뜻을 쉽사리 꺾지는 말게. 우리 함께 힘써보자구, 내 다시 크게 광고를 널테네... 알겠나?》

《공연한 수고를 하지 말게. 다시 광고를 낸다고 이제 기울어진 악단이 바로 설줄 아나?》

《아닐세, 기다리게.》

한기표는 쓸쓸히 웃어보이며 문밖에까지 떠나와 조성규를 바라주었다.

이튿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제철소에 나가시여 습진 로앞에서 용해공들과 허물없이 마주하시고 로를 복구할 대책을 의논하시였다.

그 사실을 취재하기 위하여 제철소를 거쳐 저녁녘에 숙소로 찾아갔던 조성규는 뜻밖에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만 온몸이 화석처럼 굳어져버리었다.

다. 그이께서 너대원들과 함께 망향악단의 공연을 구경하러 가시였다는것이였다.

《제철소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극장에 들려 구경표를 사오시지 않았겠어요. 그이께서는 며칠전부터 우리에게 <망향악단>에 가보자고 약속하셨답니다.》

《언제 떠나셨습니까?》

《방금전에... 아직 극장에 도착하지 못했을겁니다.》

시계를 보니 공연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성규는 인차 걸음을 돌리었다. 극장으로 초조히 걸어가는 그의 마음은 걸잡을수 없는 위구심에 잠기었다.

그는 극장에 들어서자 관람석부터 살피었다. 앞에 드문드문 빈자리가 있었고 뒤의 몇줄은 채우지 못한채 있었다.

조성규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악단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것을 느끼자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참으로 공교로운 때에 너장군을 모시였으니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잠시 관객들을 눈여겨보던 조성규는 관람석뒤의 한곳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거기에 하나와 같이 풀색군복을 입은 너대원들이 앉아있었던것이다. 그들속에서 너장군의 모습을 띠여보고 조성규는 조심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를 보시자 너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너장군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옆의 빈자리를 권하시였다.

공연시간이 림박하여 관중석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우리 음악가들이 공연하는걸 보고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표가 다 팔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걸 보니...》

너장군께서는 서운한 눈길로 잠시 빈자리를 더듬으시였다.

《이제야 우리 말로 빠져이 조선노래를 부르겠으니 가수들도 성수가 나서 부를것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여서 배우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요? 원래 배우들이야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머님께서는 정겹게 마주보시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조성규는 최종한 생각에 절로 고개를 숙이고 마른침을 삼키었다. 앞으로 악단이 해산될지도 모른다. 한기표자신이 고향으로 떠나가버리면 배우들은 길잡이를 잃어버린 기러기떼마냥 향방을 잃고 사방 뿔뿔이 흩어져갈것이며 그러면 악단의 운명은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만나보니 눈물의 너가수라는 동무는 불쌍한 동무였습시다.》

《네, 그전에는 밥값을 못물어 려관에 인질로 붙잡혀있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영

영 떠나버린걸... 이번에...》

조성규는 허아래소리로 대답을 올리고 막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지금 관람석에 김정숙동지께서 앉아계신줄을 알면 한기표가 얼마나 놀랄것인가? 한편 그이께 자기들의 노래를 불러드리고싶다던 그들의 소원이 성취될것을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였다. 한기표에게 너장군께서 오신것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때 무대안에서 양푼소리가 은은히 울리었다. 관람석의 조명이 꺼졌다. 관중들이 일시에 숨을 죽이였다.

그러나 막은 열리지 않고 면막앞으로 한기표가 주춤거리며 걸어나왔다. 그는 관람석을 향해 몇 번 허리를 굽히였다.

《에... 우리 악단을 지극히 사랑하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판에 박은 소리였으나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구슬프게 울리었다.

《에... 저는 공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저녁 사정으로 여러분과 약속한 종목을 다 공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악단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널리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르며 떠들떠들 말하던 한기표는 죄송한듯 두손을 마주잡고 다시 관객들을 향해 허리를 굽히였다.

순간 관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볼부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새나왔다. 별안간 귀청을 찌는듯한 휘파람소리가 귀찮스럽게 장내에 울리었다.

그러자 한기표는 소음이 커지는 방향으로 연방 허리를 굽적이며 사과의 뜻을 표하느라 안절부절 못하였다.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어머님께서는 조성규한테로 약간 고개를 돌리시며 물으시였다.

《아마 배우 몇명이 극장을 떠나가버린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봉급을 주지 못하니 다른 직업을 구해간것 같습니다.》

순간 어머님의 영채도는 눈빛은 흐려지시였다. 그이께서는 깊은 상념에 잠기시여 조용히 눈길을 떨구시였다.

《단장인 저 사람도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여도 악단을 운영하기가 곤란한것 같습니다.》

조성규는 한기표의 웅색한 처지를 좀 변명해주려는 심산에서 이렇게 말씀올리었다.

《단장까지 떠나면 악단은 해산되겠군요.》

《네, 심중팔구는...》

조성규는 입안의 소리로 나직이 말씀올리다 그의 표정이 너무나 심란한것을 보고 그만 어물어물 끝을 마무리였다.

한기표가 사라지자 막이 서서히 열리였다. 무대에서 십여명의 악사들이 공연서막을 장식하는듯 음악을 연주하였다. 소관현악이라고도 볼수 없는 초라한 악기편성이였다. 목관악기들이 제가끔 자기 음색을 자랑하듯 선율을 끌고 낮고 서서히 그리고 구슬프게 울리었다. 애조를 띤 류행가곡이였다.

술렁대던 장내는 점차 수습되고 가슴에 파고드는 애조의 선율에 모든것이 휘말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순서가 바뀌었으나 극장안의 분위기는 호전되지 않았다.

조성규는 어서 빨리 백세정이 출연하여 그 분위기를 가시여주길 바랐으나 웬일인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중들도 조성규와 같은 심정인지 순서가 바뀔 때마다 잔뜩 턱을 들고 무대를 지켜보았다.

《백세정동무가 극장을 떠나갔습니까?》

무대를 조용히 지켜보시던 어머님께서 조성규에게 다시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그 동무는 악단을 떠나지 않습니다.》

조성규는 확신한듯 말했다. 백세정의 성품과 그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조성규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백세정이 출연하지 못할가?... 혹시 자금을 구하려 어디로 갔는가? ...)

백세정이 무대에 나타나 극장안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향일의 너장군께 다소나마 기쁨을 드려주기를 바라던 조성규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말았다. 그는 기다리다 못해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한기표한테로 달려갔다.

조성규가 한기표를 데리고 관중석에 다시 들어섰을 때 마지막 종목이 연주되고있었다.

공연은 특별히 인기있는 종목이 없이 흘러갔다. 관객들이 권태증을 이기다 못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만을 토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새나왔다. 한쪽에서 휘파람소리가 무대로 날아갔다. 관중들의 신뢰감은 그것으로 상실되고말았다.

실패, 조성규는 이렇게 뇌이며 안타까운 눈길로 관중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이 좌석에 향일의 너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앉아계신다는것을 모르는것이 정말 야속스러웠다.

한기표는 차마 어머님께서 앉아계시는곳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채 한자리에 못박혀서있었다. 그러는 한기표를 보는것이 몹시 민망스러웠다.

관중들은 막이 닫기기도전에 벌써 거의 극장안에서 빠져나갔다. 텅빈 관람석에 김정숙동지께서 아직 자리에 앉아계시었다. 너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돌아갑시다.》

나이 어린 너대원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어머님께 조용히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였으나 여전히 한자리에 서계시었다.

무거워진 어머님의 안색을 보는 한기표의 가슴은 그 어떤 상실감으로 하여 괴로웠다. 그이께 걱정만 끼쳐드렸다는 위구심이 가슴을 허비여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너장군가까이로 걸어갔다.

《바쁘신 시간을 내시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정겹게 한기표를 바라보시었다.

《배우들이 떠나갔다는게 사실입니까?》

《…네 봉급을 주지 못하니 살림이 곤란했습니다.》

《백세정 동무도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금을 구해보겠다고 어디 좀…》

한기표는 다정히 물으시는 어머님께 숨김없이 다말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잠시 생각을 좇으시었다.

《그런데 만났을 때 그런 사정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관객들이 많아지면 수습되리라고 믿었는데…》

《어데로 갔습니까?》

《두사람은 고향으로 갔고 한사람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며 또다시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단장선생도 고향으로 가신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한기표는 뜻밖의 물음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히 입술을 감쌀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타이르시듯 말씀하시었다.

《그래선 안됩니다. 조국을 건설하자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농사는 누구나 지을수 있지만 노래야 누구나 부를수 없지 않습니까?》

순간 한기표는 마음의 충격으로 하여 안경밑의 눈시울이 가볍게 떨리었다.

《우리가 미처 악단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을 알아보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악단을 해산해서는 안됩니다.》

한기표는 눈굽이 달아올라 깊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님께서서는 의자가름대에 한손을 대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한층 갈린 음성으로 말

씀을 계속하시었다.

《여러분들은 밥벌이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저녁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단장선생이 오히려 인민들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한기표의 두툼한 입술이 경련이 인듯 떨리더니 그는 참아오던 걱정을 누를길 없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었다.

한갓 노래를 팔며 온갖 멸시와 수모를 숙명처럼 감수해오던 자신을 것처럼 존엄있는 인간으로 대해주시니 그지없이 고맙고 감사의 정이 북받쳐 그는 부끄러움도 잊고 연송 젖어오르는 눈굽을 훔치었다.

그러는 한기표를 보시자 어머님께서서는 일부러 밝은 안색을 지으시고 백세정의 생활을 알아보시었다.

《백세정 동무의 노래를 들으려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무의 소원도…》

한기표는 목이 메어 말끝을 얼버무리었다. 끌어오르는 기쁨으로 하여 어느덧 안경밑의 커다란 눈가에 밝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룩될 그 시각이 다가오고있었다.

지금 조선회관에서는 김정숙동지를 환영하는 모임끝에 《망향악단》 예술인들의 간단한 축하공연이 진행되고있었다.

자기차례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백세정은 뜻밖에 이런 좌석이 마련된것이 꿈만 같아서 달뜬 표정으로 향일의 너장군을 우러렸다. 환영모임을 조직한 일군들과 함께 한기표는 엄숙한 얼굴로 김정숙동지와 나란히 앉아있었다. 그옆에서 취재를 하는듯 조성규가 탁상우에 목책을 놓고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었다.

드디어 백세정이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갔다. 호리호리한 키에 어깨까지 길게 드리운 머리카락이며 어딘가 그들이 진땀한 눈가가 몹시 가냘픈 인상을 던져주었다. 그의 뒤로 기타를 든 한기표가 걸어나갔다.

백세정이 인사를 하자 어머님께서 선참으로 박수를 쳤다. 잠시 박수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백세정은 한번 깊이 호흡을 하고나서 조심히 입을 열었다.

《전 오늘저녁 김정숙동지를 환영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된 기쁨을 누를길이 없습니다. 전 노래에 앞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백두밀림에서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싸워오신 김정숙동지를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다시 박수소리가 장대를 흔들었다.

이윽고 한기표가 기타의 줄을 튕기었다. 그의 하얀 손가락이 재빨리 기타의 짙은판울 오르내리



며 줄을 짚으면 한손이 소리를 튕기었다. 그가 즐겨 타는 《타향살이》였다. 너가수는 전주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

...

고향앞에 버드나무 울림도 피련마는  
호드기를 꺾어볼던 그때도 옛날

너가수의 목소리는 애조가 짙은 중음이였다. 노래는 눈물에 젖어 흘러나왔다. 그 애수와 비애의 정서로 하여 장내는 순식간에 무거운 분위기에 잠기었다. 사람들은 노래가 던진 중압감에서 인지 숨을 죽이고 모두 어두운 표정을 짓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심중한 표정으로 노래를 듣고계시었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안하려는 마음에서 성의껏 부르는 노래였으나 그 노래는 산에서 싸울때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노래와는 너무도 달랐다.

백세정의 노래에 이어 새 종목이 계속되었으나 부르는것은 민요 한두곡 외에 모두 유행가뿐이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서운한 표정으로 노래를 들으시다 어느새 옆이 와 앉아있는 한기표에게 몸을 돌리시었다.

《유행가를 들으면 절로 마음이 슬퍼집니다.》

한기표는 새로운 충격에 몸을 움츠리었다. 백세정의 노래가 그만하면 그이께 만족을 드렸다고 생각했던 그의 얼굴이 절로 붉어졌다.

《하루빨리 우리의 노래를 지어주어야 하겠습니까. 백세정동무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소리로 우리의 노래를 부른다면 관객들이 좋아할것입니다. 관중들이 인제는 슬픈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긴 우리 인민들이 그런 유행가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인제야 그런 노래에 신물이 났을겁니다. 우리 인민들의 감정이 달라졌지요.》

어머님께서서는 심중의 말씀을 이렇게 내치시며 절절한 눈길로 한기표를 바라보시는것이였다.

한기표는 그이께서 평범하게 하시는 말씀에서 깊은 뜻을 되새기었다.

그이께서는 이윽히 한기표를 눈여겨보시다가 책상우에 놓여있는 기타의 금선을 조용히 쓰다듬으시었다.

《그러니 관중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수들은 슬픈 노래만을 부르고있습니다. 우리인민들은 지금 약동하는 감정으로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새 조국 건설을 고무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공연이 끝나자 모임참가자들속에서 김정숙동지께 노래를 불러주실것을 요청하였다.

《지금 향간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가창에도 명수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산에서 싸우실 때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한곡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가수들과 악사들이 기다린듯 저마끔 어머님께 간청하였다. 녀대원들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그이를 바라보았다.

《이러지들 말아요. 노래야 가수들이 불러야지요.》 어머님께서서는 사양하시며 손을 가볍게 저으시었다.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만 불러주십시오.》

한기표가 어머님께 몸을 돌리며 진중하게 다시 요청하자 녀대원들이 그이께 부르실것을 권하였다.

어머님께서는 한결같은 요청을 더는 막을수 없으시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럼...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요청하니 백두밀림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 고향이 그림고 조국에 계시는 여러 동포들이 그리울적마다 부르곤하던 노래 한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이윽고 박수소리가 그치자 어머님께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그이께서는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매우 절절한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시었다.

녀대원들은 노래소리에 이끌리어 어느덧 깊은 회억에 잠기었다.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던 만강의 봄, 파사로운 해별을 담아시고 조잘대며 흐르던 개울가에서 만경대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장군님께서 조국이 그리워 《사향가》를 부르시면 그날의 못잇을 추억에선가 어머님께서는 저으기 상기된 얼굴로 노래를 부르시었다.

기나긴 세월 빼앗긴 조국, 떠나온 고향을 찾으려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녀장군이시었다. 그 사무쳐 그리던 조국에 돌아오시였고 고향이 바로 지척이건만 친척들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신 그이의 고결한 심정이 바로 《사향가》의 선률속에 담겨져 이리도 가슴허비는것이 아닌가.

그 노래형상에 깃든 심오한 내용과 아름답고 우아한 선률에 깊이 빠져들어 한기표는 온 넋을

기울이었다.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방금전까지 애수와 비탄의 분위기에 잠겨있던 장내는 어머님의 노래소리에 이끌려 승업한 세계에 휩싸이였다. 백세정이 부른 《타향살이》는 가슴을 허비는 비애의 눈물이라면 그이께서 부르시는 노래는 밝고 지향적이고 가슴에 울리는 절절한 호소였다. 정든 고향산천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단순하고 애상적인 감정이 아니였다. 그것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심과 연결되면서 반드시 조국을 광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랑만적인 감정의 진실한 토로였다.

한기표는 노래에 깃들어있는 뜨거운 감정에 깊이 공감되어 마음속으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 되새겨보았다. 노래는 한숨도 눈물도 아니며 향락이나 돈벌이의 수단도 아니였다. 그것은 생활을 략관하고 투쟁을 고무하는 참된 무기였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철리가 빗맞은 화살과도 같았다는 인식이 새로와지면서 몸이 틀에 옥죄이듯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기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가볍게 몸부림을 치며 성급히 책상우에 오선지를 펴놓고 채보하기 시작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한기표가 흘러내린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올리며 어머님에게 한국만 더 불러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어머님께서서는 사양하지 않으시고 너대원들을 옆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너대원들과 나란히 서시여 선창 노래를 떼시였다.

모여라 동무들아 붉은기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들어라

장내에는 씩씩한 선율이 울리면서 전투적인 기백이 차넘치였다.

그이께서는 너대원들과 함께 박자에 어울리게 한손을 약간 흔드시며 노래를 부르시였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다.

한기표는 또다시 오선지에 머리를 숙이고 열심히 채보하고있었다. 코등으로 흘러내린 안경을 연방 한손으로 밀어올리며 오선지에 손을 놀리고 있는 그는 온 심혼을 거기에 쏟아붓듯 소리표와 쉽표를 그어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의 악보가 아니라 자신이 지녀야 할 참된 인생철리였다. 그는 쉽없이 악보를 그려나갔다.

머칠이 지나서였다.

거리에는 망향악단의 새로운 공연광고가 나붙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극장앞에는 런던 수많은 관객들로 붐비였다. 떠나갔던 가수들과 악사들이 돌아왔고 사방에서 악기를 들고 악사들이 찾아왔다.

공연종목도 일신되였다. 《타향살이》를 부르던 백세정은 관현악반주에 맞춰 《사향가》를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고 혁명가요나 《양산도》와 같은 민요들이 편곡되어 관현악으로 연주되였다.

한기표는 런던 초만원에 이르는 관중들앞에 관현악의 지휘자로 무대에 나섰다. 지휘자로서의 첫걸음인 동시에 참된 인생의 첫걸음이였다....

×

음악회는 계속되였다.

매우 조용히 류창하게 울리던 선율은 절정에 이르자 랑만적인 감정으로 심화되면서 항일투사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격조높이 승화시켜나갔다.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피아노에서는 힘있고 희망적인 다른 선율이 마치 그것을 긍정하고 화답하듯 울리면서 원선율을 부각시켜나갔다.

한기표는 그 모든 선율을 길들이듯 지휘봉을 활기있게 움직이였다.

드디어 《사향가》는 끝났다. 극장안에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한기표는 지휘대에서 내리였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수없이 맺히였다. 그의 가슴에 향기로운 꽃뭉음이 안겨졌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방울을 훔치고 관중들을 향해 꽃뭉음을 높이 들어 흔든다.

그의 보람있는 삶의 길에 바쳐진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은정으로 처음으로 참된 인생의 연단에 올랐던 한기표는 지금 인생의 가장 높은 연단에 올라서있었다.

## 첫 기적소리

주광남

해방된 그해 겨울이었네  
숨죽은 북변의 제철소  
흰눈덮인 구내를  
군복차림의 김정숙동지  
생각깊이 걸으시였네  
숫눈길우에 폭폭 뜻깊은 자욱 새기시며

파피의 흔적만 남은 한산한 모습  
인적없는 구내엔 정적이 깊어  
아프신 눈길  
말씀도 없으시던 그이  
걸음 다그쳐 다가가시였네

구내 철길우에 서있는  
한대의 기관차  
딱딱딱 때아닌 마치소리  
운전실로 차밀으로 분주히 오르내리는  
한 청년앞에 멈춰서시였네

먼지 오른 검은 작업복  
빼뜰써 눌러쓴 둥그런 모자  
기름 묻은 손엔 마치고 스카나  
얼굴엔 방울방울 굵은 땀방울  
이는 분명 기관차를 살리려는  
참된 로동의 흔적

문득 다가서신  
군복 입으신 그이앞에  
처음엔 놀라고  
전설의 너장군을 만나뵙는 감격에  
청년은 몸둘바를 모르는데

정겨우신 눈길,  
이름이며 생활경력이며 사는 형편이며  
다정한 이야기 나누시고  
동무같은 사람이 애국가라고  
치하도 하신 그이  
물으시였네  
기적소리를 울릴수 있는가고

-예, 기적소리는 낼수 있습니다  
자신있는 대답  
그러고도 청년은 어리둥절

왜놈들 마사버려  
움직일수도 없는 기관차에  
기적은 울려 무엇할가?

청년이야 어찌 알수 있으랴  
어머님께서 듣고싶어하시는  
그 기적소리  
가다가 길막혀 울리는 그런 신호 아님을  
정시 도착을 알리는 장한 울림이라면  
이토록 바라지도 않으시리란것을

의아히 쳐다보는  
청년의 마음 헤아리신듯  
동무가 울리는 기적소리는  
숨죽은 이 제철소에  
북구의 첫 신호로 될것이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여라  
-어서 기적소리를 울려보세요

들먹이는 가슴  
나는듯 운전실에 달아오른 청년  
힘주어 기적변을 당기자  
장쾌히 울렸네 기적소리

—장해요!  
한번 더!  
한번 더!  
어머님의 힘있는 구령따라  
정적 깃든 철의 구내를 흔들며  
울려퍼졌네 기적소리 기적소리

아, 장군님 건국의 뜻으로  
용해공들 심장을 흔들어 깨우시는  
어머님의 벅찬 가슴속  
끓어오르는 숨결인가  
절절한 구령인가

흰눈 쓰고 서있는 용광로에  
재생의 맥박인양 때아리치며  
답답하던 제철공들 가슴에  
북구의 신심 뜨거이 새겨주며  
아, 울려퍼졌네 첫 기적소리  
제철소 북구의 첫 숨결소리

## 준엄한 불구름속에서 다져진 충성의 철리

-장편소설 《불구름》에 대하여-

김성혜

장편소설 《불구름》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참된 인민의 지도자로 성장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린 시절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는 우수한 성과작이다.

3년간의 전쟁은 누구에게나 그러하였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있어서도 결코 험하게는 이겨내실 수 없는 하나의 시련의 언덕이었었다. 이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하신 손길로 오누이를 살뜰히 보살펴주시던 김정숙어머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도 가슴에 사무쳐있는데 뜻하지 않았던 전쟁이 닥쳐왔고 하여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아버님과도 멀리 떨어져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시는 뜻밖의 정황앞에 서게 되시었다.

장편소설 《불구름》은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생활과정에서 극적인 체험세계가 가장 심각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생활을 소재로 하여 그이의 어린 시절을 처음으로 거대한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형상한 문학사적의의가 큰 장편소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린 시절을 장편소설의 화폭에 담은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성과는 그이의 어린 가슴에 이미 싹터자랐던 충성과 효성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수령관이 준엄한 전쟁의 시련속에서 신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완성되어가시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해낸것이다.

수령의 후계자의 사상정신적품모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그것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려는 투철한 충성심만이 력사의 다난한 흐름속에서도 수령의 위업을 추호의 동요없이 꺾듯이 이어나가도록 할수 있다는것은 이미 력사가 인류에게 남김없이 실증한 진리이다.

수령의 후계자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에서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리가 바로 혁명적수령관의 형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으로 하여 본질적으로는 수령형상문학과 동질하면서도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문학은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장편소설 《불구름》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려웠던 나날이었지만 오직 아버지장

군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만을 간직하시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충성의 한길을 걸어가시며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성장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그 누구도 따를길 없는 친애하는 그이의 고결한 세계가 하루이틀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벌써 어린 시절부터 생활을 통하여 신념화되고 체질화된 참으로 뿌리깊은것임을, 나아가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생의 총적 목표, 생의 전부임을 격조높이 구가한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이 거둔 무엇보다도 귀중한 성과가 있다.

아, 참으로 어리신 가슴에 싹트고 자란 충성과 효성의 세계는 얼마나 눈물겹도록 순결하고 숭고한것이었던가.

해를 두번이나 넘기도록 기나긴 나날을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생활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며 최고사령부에서 생활하게 되시었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전선지휘에 긴장한 나날을 보내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우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버님과 언제 한번 조용히 이야기조차 나눌수 없는 안타까움에 앞서 이처럼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격렬한 긴장속에서 사업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건강을 먼저 념려하시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제일 믿음이 가시는 최대연에게 토로하신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것은 것처럼 충직스러운 최대연으로서도 결코 대신해드릴수 없고 멀어드릴수도 없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산더미같은 일감이었다. 미체의 야수적인 대폭격으로 재가루만 날리는 평양시내를 아버님과 함께 돌아보시면서 가슴을 치는 수많은 광경을 목격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실이 병원에서 자신께 남겨드리고 간 것처럼 간절한 최후의 부탁을 다시금 상기하신다.

《아버지는 앞으로도 계속 바쁘실거다. 한생을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싸워오시는분이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는 쉴 사이가 없는거란다...

사람들이 행복해질수록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아버지는 더 휴식을 모르고 바빠 일하실거다. 그러니 어서 크거라. 어서 자라서 아버지의 바쁜 일손을 도와드려라. 그래야 아버지가 쉴수 있게

될거다.》

한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사랑에 바치고계시는 아버님의 일손을 도와드리자면 어서빨리 커서 조국을 위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너무나 일찌기 깨닫게 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리도 애타게 그리워하시던 아버님의 곁을 떠나 만경대혁명학원에 가실것을 결연히 결심하신다.

이제 겨우 11살나이에 때이르게 닥쳐온 천진스러운 소년시절과의 작별! 이것은 남다른 생활이 그이께 가져다드린 필연적결과이기전에 남달리 아버님께 효성이 지극하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신께서 스스로 택하신 생활로정이였다.

하기에 혁명학원으로 떠나시기에 앞서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심장의 체험이 담긴 뜻깊은 노래를 지으신다.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친 무지갯가요**

...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조국의 품은 곧 장군님의 품!

이것은 가사이고 노래이기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장속에 굳건히 간직된 끝없는 충성의 웨침이며 그로부터 분출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성의 노래이다. 이 한편의 가사속에는 수령님께서 계시어 오늘의 조국과 찬란한 래일이 있고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심오한 진리, 다시말하여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각한 철학이 깔려있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린 시절에 지니신 충성과 효성의 세계는 단순히 혈연적관계에서 짝튼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라는 거대한것에 기초하고있으며 누구보다 조국과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열렬한 애국심이 이런 숭고하고도 순결한 충성을 낳게 하였음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돌려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나이가 겨우 11살이였다는것이다.

작가는 처음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모를 동심을 진하게 깔면서 성격의 논리, 생활의 논리를 타고 점차적발전과정으로 형상해나감으로써 남다른 비약적인 성장을 그리면서도 그 생활적타당성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생활과정에 부닥치시게 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종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어가면서 그것이 지도자동지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심리적충격들을 섬세

하게 그려내고있으며 그 생활적계기들이 성격의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형상조직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줄거리가 없이 3편으로 구성된 소설에서 매 편들은 하나의 내적인 고리-즉 혁명적수령관의 형성이라는 매듭에 의하여 련결되어있으면서도 성격발전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자기의 독자적인 몫들을 뚜렷하게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생활로정은 그의 정신적성장과정과 일치하면서 논리적인 단계를 따라 발전해나가고있다.

1편 《자나무 설레인다》에서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엄혹한 나날에 조국의 절반땅을 몸소 걸으시면서 일찌기 아지 못하셨던 새로운 세계를 가슴에 받아안게 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체험세계를 위주로 보여주면서 이 나날에 심장에 새기시는 신념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혀내는데도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키고있다.

남편을 원쑤놈들에게 잃은 강분녀, 폭격에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기계를 부탁하던 로동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고 소중한 모든것이 불타버리는 처절한 환경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인민의 불패의 의지를 뜨겁게 감수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끝끝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시련을 이겨내고 반공격의 통쾌한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언제나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이 옳다는것을, 아무리 어려워도 장군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철리를 심장으로 깨달으신다.

아버님 말씀이 옳다. 아버지말씀만 명심하자.

이것은 어리신 가슴에 새겨안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성에 대한 확신이며 그의 령도를 따라 나갈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팀 없는 믿음이었다.

2편에서 아버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고사령부가 가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아버님과 함께 계시겠다고, 아버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에나 함께 가시겠다고 단호히 제기하시는 대목은 그의 성장과정에서 많은것을 시사해주는 인상적인 대목이다.

최고사령부는 적과의 대결이 가장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 그곳에 물론 아버님께서 계시긴 하지만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있을 만한곳은 못된다는것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잘 알고계시였다. 그러나 언제나 위험이 서려돌고 긴장한 최고사령부에서 아버님곁에 계시겠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속에는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아버님과 함께 당해보시며 생사를 같이하시려는 지극한 효성의 마음이 깔려있는것이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아드님의 청을 뜻밖이리만치 너그럽게 받아주시면서 자기 조국과 인민의 모습을 가장 가렬한곳에서 제눈으로

보는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전쟁에서는 이들이 더 빨리 자라는 법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최고사령부에 남아있겠다고 뜻밖의 제의를 올리시는 동심적인 계기를 심각한 체험과정을 거쳐 만경대혁명학원으로 가시겠다고 스스로 제기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과 대조시키면서 그이의 성장과정을 생활적으로 설득력있게 그려보이고있다. 최고사령부에 남아있으시겠다는 말씀속에는 아버님의 곁을 떠나 너무도 오래동안 떨어져있으면서 외로움과 그리움에 가슴이 타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리적인 고충의 세계,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소원이 다 풀리실것만 같으신 동심적인 마음도 어느 정도 비껴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것처럼 뵈고 싶던 아버님곁에서 단 하루, 아니 한시각도 가정적인 즐거움을 누리보시지 못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떻게 서슴없이 최고사령부를 떠나실 결심을 하시게 되었던가.

최고사령부에서 한초의 여유도 없이 긴장하게 분투하시는 아버님을 직접 보시면서 전쟁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오직 아버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것을 통감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참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아버님이시지만 이 준엄한 환경속에서 결코 개인적인 행복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자각하신다.

이런 체험우에 영실이의 희생이라는 또하나의 슬픔이 덧씌워지고 그가 최후의 순간에 남긴 부탁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지울수 없는 세찬 충격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아버님을 위해서 자신께서 하실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루빨리 성장하여 그이의 일손을 도와드리는것뿐임을 뼈아프게 자각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린 동생마저 혼자 두어야 하는 피로하신 심정도 강잉히 참으시고 학원으로 결연히 떠나가신다. 참으로 최고사령부에서의 생활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충성과 효성이 다시 한번 승화되고 그것에 실천을 통하여 구현되기 시작한 력사적인 계기점으로 되었던것이다.

하여 만경대혁명학원에서의 생활은 벌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있어서 단순한 체험의 세계를 넘어서 장군님의 의도대로 인민들을 이끌어가시는 충신, 효자의 생활로 전환되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자신을 단련하시는 한편 아버님의 사상과 령도대로 학원원아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시키시며 원썬들의 책동으로 어수선한 마을의 분위기를 가지고 원썬격멸의 투쟁에 하나의 의지로 일떠서도록 이끌어주신다.

참으로 조국의 산과 들이 포화에 불타고 뒤번져지는 처절한 싸움의 3년동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놀라우리만치 멀고도 빠른 성장의 길을

걸어오셨으니 드디어 이 땅에 전승이 찾아온 환희의 시각에 그이의 심장에서 뜨겁게 맥박친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나도 아버지처럼 인민을 위하는 사람이 되리라.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가가 되리라!

한생을 아버지처럼 혁명에 몸바치리라!》

이것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한 가정의 아버지만이 아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신 민족의 태양으로 자각하시고 아버님에 대한 효성을 인민에 대한 충성으로 환원시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정신적정지가 확연히 비친 맹세,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어나가시려는 후계자의 충성의 맹세가 아니었던가.

참으로 장편소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적인 시절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품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어나가시는 과정을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진지하게 그림으로써 그이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수령형상문학이 도달해야 할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고있다.

장편소설 《불구름》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혁명적수령관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보여주면서도 인민의 령도자가 갖추어야 할 다방면적인 품격들을 체현해나가는 과정을 동시에 편결시켜 끌고나가고있으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구성방식을 탐구한것이다.

소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사상과 품격을 어떻게 그대로 이어받으시며 성장하시였는가를 폭넓게 보여주는것을 주되는 형상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인물들과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구성조직에서 새로운 숨씨를 보여주었다.

소설의 인물관계는 우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적수령관 형성과정을 예술적으로 안받침하도록 물려있으면서도 그이께서 인민의 수령으로서 체현해야 할 품모를 갖추어나가시는 과정을 다면적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맺어져있다.

작가가 여기서 특별히 힘을 기울여 묘사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녀오신 무한한 인정과 사랑의 세계, 오늘 우리 인민 전체를 한품에 송두리채 안아주는 따뜻한 믿음과 은정의 고귀한 세계이다.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고 의지가할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행한 처지를 진심으로 동정하시며 다시는 나쁜놈들이 못살게 굴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따듯이 위로해주시며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을 지켜 도와주시고 의지가 되여주시는 녀교원 옥주와의 관계, 미국놈들에게 온 가족을 다 잃고 적후에 들어갔던 맏아들마저 행방불명이 되였다는 소식에 가슴을 쥐어뜯던 강분녀에게 힘

을 주시고 마침내 영웅된 아들의 소식까지 알도록 하여주시는 관계, 원썬들의 악착스런 만행에 마음이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졌던 꼬마대원 장세준과의 관계, 유치원시절부터 친한 동무인 남명아와의 관계 등 작품의 주요인물관계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린 가슴에 사무쳐흐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빛을 주시고 억세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무한하고 고귀한 인민적인 사랑의 세계를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부모님들과 동생, 김형권동지의 딸인 영실이와 같은 일가분들과의 관계로부터 점차 주위인물들에게로 폭을 넓혀나가는 이 사랑의 관계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서자라신 혁명일가가 대대로 지녀온 조국과 인간에 대한 헌신적사랑이 어리신 지도자동지의 고결한 품성으로 굳어졌으며 그것이 오늘 사랑과 믿음을 사회구성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인간애의 철학을 낳게 하였음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어린애같이 그이께 끌려들고 그이께 매냥 마음을 의지하게 되는 《38선의 호랑이》인 최대연이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자기의 사업소고충을 터놓고 도움을 받는 학원원장 등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시절부터 싸워온 투사들로서 어리신 나이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친화력, 비범한 통찰력과 예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는 인간관계들이다.

또한 장세준을 둘러싸고 그이와 맺어지는 학원학생들과의 관계나 한태섭을 비롯한 학원주변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이께서 지니신 비상한 조직력, 비범한 통솔력이 해명되고있으며 기룡이나 상수와 같은 포대동무들과의 관계에서 우정에 충실하지만 부정의와 타협을 모르시는 그이의 정의감, 비타협적인 원칙성 등도 충분히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인간관계로 하여 소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체현해나간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품모들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할수 있는 형상적인 가능성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일정한 줄거리가 없이 생활로정에 따라 련결되는 다양한 사건들의 조직배치도 이러한 형상적의도를 살리기 위한데로 집중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로정에 있는 이야기, 학교를 꾸리시는 이야기, 영실이의 입원과 최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 최고사령부에서의 생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원아들을 이끄시는 생활과 마을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씨쿨공연준비...

이 다양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자기들나름의 줄기를 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인정세계, 무한

한 포용력과 비상한 조직력 등을 생활적으로 잘 형상해내고있다.

그러면서도 이 전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슴속이 순결하게 굽이치는 충성심이라는 하나의 고리에 의하여 묶이워지고 그 충성과 효성이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즉 그이의 모든 사상과 행동 하나를 나는 총적으로 장군님의 뜻대로 살아나가 시려고 애쓰시며 그이의 의도대로 인민을 이끌어 나가시려는 오직 하나의 지향에서 출발된것이였다.

결국 소설에 묘사된 개개의 사건들은 이런 2중적인 의미를 띠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불타는 충성심을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으며 인민의 수령이 갖추어야 할 모든 사상정신적 특질들을 어린 시절부터 체험해오신 그이의 품모를 립체식으로 형상해내고있다. 이런 효과적인 구성형식으로 하여 소설은 단 3년간의 생활을 가지고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린 시절과 성장과정 전체에 대한 완벽한 예술적일반화를 달성할수 있었던것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광찬란한 어린시절을 처음으로 장편소설에 옮겨 형상한 작가는 고심어린 탐구로써 효과적인 구성형식을 리용하여 작품의 내용을 훌륭히 살리고있으며 창작가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시사해주고있다.

장편소설 《불구름》의 사상예술적 성과를 론함에 있어서 섬세한 감정조직이 낳는 예술적효과를 결코 무시할수 없다.

이미 중편소설 《조순이》를 비롯한 자기의 작품들에서 깊은 감성적색채로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준바가 있는 작가는 감정조직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의 세계에 젖어들게 하며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쏟게 한다.

문학작품에서 감정조직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기성의 사실이다.

소설, 나아가서 문학도 구정에 가서는 인식,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자는데 그 목적의 하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논리적인식과 다른점은 가슴을 치는 감정정서적체험을 거쳐 이루어진 인식이라는데 있으며 따라서 문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식은 매우 공고하고 생활에 직접적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하여 문학을 류달리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라고 부르는것이 아닐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작품의 정면에 모시고 그 생활을 취급하는 문학작품일수록 감정조직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그것은 이런 작품들을 창작하는 목적자체가 세상에 다시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우리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풍모를 인간학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내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인간성에 공감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진실로 흠모하고 신뢰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감정조직을 떠나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장편소설에서는 일부 작품들에서처럼 개별적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정선을 기본으로 감정조직을 한것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동생사이에 흐르는 혈연적인 사랑의 감정선을 주도적감정선으로 대담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끌고나가면서 감정조직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작품은 어머님을 1년전에 여윈 어리신 지도자동지 오누이가 또다시 아버님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극적인 정황하에서 어쩔 수 없이 솟구쳐오르는 그리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작별의 감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육친적감정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주위인물들과의 교감속에서 마지막까지 끌고나가고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나신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어린 동생의 그리움은 참으로 눈물겨운것이였다. 이 세상에 돌도 없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였기에, 가장 따뜻하고 다심하고 큰 사랑이었기에 누구도 어머니를 대신해드릴 수 없었고 그로 하여 더욱 그리워만지는 어머님,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우시고싶어도 강잉하게 참으셔야만 하는 지도자동지시였으니 싸우시는 아버님과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하여 돌봐드려야 할 어린 동생이 곁에 있는것이다.

여기에 어머니마저 잃은 어린 자제분들을 슬하에서 멀리 떠나보내시면서 느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피로고 아프신 심정과 어머니의 품을 대신해줄 단 하나뿐인 아버님의 곁을 멀리 떠나셔야만 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감정세계와 교차시킴으로써 인민을 위해 개인적인 모든것을 묵묵히 깎그리 바쳐오셨지만 누구보다 섬세한 인간적감정을 지니신 혁명적일가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내면세계를 눈물겹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감정세계는 결코 작별과 그리움에서 오는 애상적인 눈물의 세계가 아니다.

여기에는 고결한 혁명가의 구감이셨던 어머니의 생전의 뜻을 결코 잊지 않으시려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지극한 효성이 깃들어있는것이다. 하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머니의 봉분을 찾으신 가슴아프신 순간에도 치밀어오르는 슬픔을 누르시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결심을 다지시며 아버님과 헤어지신후 사무치는 그리움을

억제하기 어려운 때에도 아버님의 말씀을 지켜갈 굳은 맹세를 다지시는것이다.

소설은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혈연적인 감정선을 위주로 하면서도 그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충성과 효성을 더욱 자라울수 있는 생활적바탕으로, 필연적계기로 되도록 감정세계를 승화시킴으로써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감정정서적으로 안반침하고있으며 위대한 인간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 격동의 감정을 자아내고있다.

소설에서 영실이에 대한 오누이의 감정선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어리신 지도자동지 오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대신해주는 품이기도 하였던 영실이에 대한 오누이의 정은 각별한것이였다. 그랬던 그가 경희에게 주려고 애써 만들어놓았던 고운 인형도 그대로 둔채 그만 적기의 눈먼 총탄에 맞아 최후를 마친다.그처럼 오누이에게 자기의 모든 정을 송두리채 쏟아붓던 영실이, 자기의 평생소원이 풀려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었던만 어머니의 서거에 대한 비보를 접하자 스스로 달려와 불행을 당한 오누이를 따듯이 돌봐주던 영실이의 희생은 다시한번 건디기 어려운 타격을 지도자동지의 마음속에 안겨주었다.

이때에도 그가 생전에 남긴 부탁을 통하여 단순히 눈물을 위한 계기로가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신을 다시금 가다듬으실수 있게 하는 성장의 계단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정선의 품격을 높이고 작품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부각시키도록 하고있다.

감정조직을 통하여 위인중의 위인, 인간중의 인간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비롯한 일가분들의 티없이 순결하고 그지없이 숭고한 정신세계를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안반침한것은 이 소설을 성공으로 이끈 하나의 근본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에서의 감정조직은 인정심리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낼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세부의 탐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구체적인만큼 그 표현도 세부적이고 생활적인것이다.

작가는 종전의 작품들에서 보여주었던 섬세한 세부탐구의 솜씨를 훌륭히 발휘하여 인정심리적인 생활세부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으로써 감정조직을 위한 형상적바탕을 마련하고있다.

어느 대목이 제일 눈물겨운가? 라는 물음에 선택 대답하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가슴을 치는 세부적인 생활이 소설의 많은 부분에 걸쳐 묘사되고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떠나시겠다고 말씀드린후 주어지는 작별장면이



있다.

다시금 닥쳐온 작별, 이제는 셋밖에 남지 않은 이 단란한 식솔이 또다시 갈라져야만 하는데 수령님께선들 어찌 가슴이 아프시지 않으시며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선들 눈물이 나오지 않으시겠는가?

그때 피로우신 심정을 누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는 가슴이 아파도 이겨내면서 갈라져야한다고, 우리는 달리는 살수 없는 오직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자신께서 조선의 현실을 배우시려 8도구에서 만경대까지 걸어나오실 때는 12살, 아드님은 이제 11살에 벌써 그길로 떠나보내셔야만 하는 그 시각 수령님께서는 조금 건들거리는 아드님의 저고리단추에 눈길을 멈추신다. 지도자동지께서 자신께서 다시겠다고 만류하시건만 수령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신다.

《벗으라는데두, 언제 이런 때가 또 있겠니. 혹시 이것이 내가 마감으로 너한테 해주는 일일은 지도 모르지 않느냐. 다시 만날 때는 네가 지금과 같은 어린애가 아닐테니까.》

이처럼 지극하게 우리 수령님께서도 자제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사랑을 다른 부모들처럼 다 쏟아부으실수 없고 고스란히 받으실수 없었다.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신 단 한분의 수령이시고 단 한분의 지도자동지시였기때문이다.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는 바로 이런 길을 걸어오신, 개인적인 모든것을 송두리채 인민을 위해 헌신해오신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시다.

한 대목만 더 찾아보자.

영실이를 병원으로 떠나보내신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린 동생이 쓸쓸해할세라 그를 이끌고 산에 올라 함께 나물을 캐시며 즐겁게 해주신다. 그러나 경희가 옥주와 함께 놀러나간뒤 어린 그이 마음도 울적해오는데 마침 찾아온 동무들과 함께 축구를 하게 되신다.

어느덧 축구는 끝나고 해는 저물고...

저녁을 먹자고 부르는 어머니며 누나를 따라 동무들은 하나 둘 집으로 흩어져갔건만 그이께서

는... 그이께서는 찾아나오는 정다운 어머니도 누나도 없이 홀로 운동장에 남으셨다.

못잊을 추억과 함께 아프고 쓰러오는 어리신 지도자동지의 다감하신 심정, 자신께도 아버님, 어머니와 함께 단란한 저녁을 즐기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으나 인제는 다시는 되돌아올수 없는 옛일로만 되어버리고 외로우신 가슴속에 눈물이 차오른다.

이때 오빠를 부르며 동생이 달려온다. 역시 그이에게도 찾아나오는 정다운 손길, 어린 경희가 있었다. 이때 솟구쳐오르는 반가움과 기쁨의 감정!

소설은 이처럼 그렇게도 강인하고 굳세시면서도 남달리 다정다감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동심적인 마음을 섬세하게 화폭처럼 그려보이면서 작품전반에 짙은 감성적색채를 부여하고있다.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긴다고 우리는 이러한 두개의 레만으로도 족하다. 더 더듬어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예술적인 세부들이 있음으로 하여 독자들은 위대한 인간들의 누구보다 다감한 인정심리세계를 뜨겁게 더듬으며 눈물짓게 되고 정서적공감속에서 작가의 강렬한 주장과 호소를 다시한번 음미하게 되는것이다.

참으로 장편소설 《불구름》은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참된 인민의 령도자로 성장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린 시절을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큰 형식의 문학작품에 옮기는데서 또하나의 빛나는 공적을 이룩하였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주체문학의 귀중한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배우기 위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무기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것이다.

#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진실한 형상과 대안의 사업체계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 창조 30돐을 맞으며-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 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공고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그 어떤 세상풍파에도 끄떡없이 밝은 전망을 안고 힘있게 전진하고있는 주체혁명 위업은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굳건히 담보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수정주의, 개량주의를 막아내고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며 그 우월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우리 당 사상사업의 전조선에서 언제나 당과 수령께 충실히 복무하여온 우리 문학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구가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최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여온 우리 작가들이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며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의 가장 값높은 영예를 지니고 당의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되고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현시기 대안의 사업체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깊이 있게 형상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창작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여기에 창작적 탐구와 사색,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늘 대안의 사업체계를 옹호고수하고 관철해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방침에 대한 신념화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있는가 없는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길로 일관하게 나가려는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길로 뒤걸음치려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국제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로부터 대안의 사업체계를 일관하게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현시기 우리 작가들이 로동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가 못하

는가 하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가 대안의 사업체계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하는가 못하는가하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문학예술작품이 대중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수단으로 될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튼튼히 의거하여 창작하며 거기에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정책이 구현된 우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위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창작에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작에 구현함에 있어서 창작적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할 문제는 어떤것들이겠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학형상을 통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확증하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완전히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창작과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문학은 생활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을 수행한다. 강연제강과 같은 딱딱한 논리나 설명으로 자기의 주장을 설교한다면 그것은 벌써 문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이 그 내용에서 아직도 인류경제사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진리를 포함하고있고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 문제는 작가의 높은 사상미학적준비가 요구되게 된다.

여기에는 각이한 력사발전단계에서 각이한 제도의 경제관리체계에 대한 해당한 전문지식과 함께 작가의 높은 창작실무적준비가 철저히 안반침

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대안의 사업체계를 정면으로 취급한 작품들이 많지 못했으며 더우기는 큰 형식의 작품이 매우 적게 창작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장편소설 《분수령》(림재성작)이 나온것은 매우 좋은것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비교적 생활에 대한 폭넓은 반영과 다양한 인간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반영한 작품을 다양한 형식으로 더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그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는것이 우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창작과제로 제기되는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되기때문이다.

문학작품에 대안의 사업체계가말로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창작실천적요구는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형상함에 있어서 탐구와 사색을 깊이 하여야 하며 현재의 생활뿐만아니라 경제발전력사를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거기로부터 확증되는 생활의 진리를 안고 작품을 써야 한다. 다만 현재의 생활만 근시안적으로 들여다보아서는 대안사업체계의 위대한 진리성과 그 생활력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다.

인류의 장구한 경제건설사를 더듬어보면 사회제도가 다름에 따라 경제관리체계도 달라지고 한 사회제도안에서도 그 발전단계에 따라 경제관리형태가 변화되고있다. 이 모든 력사의 폐지마다에 존재했던 경제관리체계에서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당당히 자랑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작품들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온 각이한 경제관리형태에서 특히는 인류가 반드시 그길로 가야 하고 또 가게 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로 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계적판도에서뿐만아니라 인류경제발전사의 전과정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고찰과 대비속에서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작가들이 력점을 찍어 강조하여 형상해야 할 문제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는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확증하는것이다.

어떤 관리체계든지 다 자기의 고유한 사상리론적기초를 가지고있다. 그리고 이 사상리론적기초로 하여 그 관리체계가 사회의 어느 계급의 요구와 이익을 대표하며 어느 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 체계가 기초하고있는 사상리론의 특성으로 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관리체계로 된다. 여기에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관리체계로 되는 근본요인이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다는것은 곧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제관리체계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인민대중중심,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형상하려면 응당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근로인민, 생산자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고 그들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근본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인민대중의 형상을 옳게 창조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형상함에 있어서도 응당 생산자 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를 잘 형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 편향을 보면 대안의 사업체계를 반영한 작품에서는 마치도 생산지도일군들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하는것처럼 간주하는 현상이있다. 물론 작품의 소재와 생활분야,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설정에 따라서 생산지도일군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할수도 있으며 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형상방도로 될 때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 일률적으로 생산지휘성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이러한 일면적인 형상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 다시말하여 생산자대중이 주인이 되고 그들의 창발성이 고도로 발양되어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똑바로 보여줄수 없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로부터 생산조직과 기술지도, 웃기관과 아래기관과의 관계, 생산자들 호상간의 관계에서 철저히 생산자들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그들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발양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것을 재현하여야 하는 문학작품에서는 인간관계의 설정에서 이 근본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물론 작은 형식의 작품들에서는 그 형상적특성으로 하여 어느 한 부분과 하나의 문제점을 잡아 인간관계를 설정할수도 있지만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장편소설과 같은 큰 형식에서는 대안사업체계의 근본요구들이 다양하게 설정되는 인간관계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의 설정에서 대안사업체계의 근본요구들이 구현되지 못할 때 지도일군 일면만을 보여

주는 것과 같은 편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당정책적 요구를 옳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작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확실히 함에 있어서 철저히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작품의 대를 세우고 형상요소들을 복종시키는데 특별한 창작적 관심과 탐구를 기울여야 한다.

문학작품을 통하여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완전히 맞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그려냄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당의 정도적 역할을 옳게 보여주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기본책으로 하는 경제관리체계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경제관리의 전반내용을 규제하고 통제한다. 이 기본책에 의하여 관리운영의 방향과 방도들이 규정되며 경제관리의 다른 요소들의 역할도 좌우된다.

그러므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문제로 제기하는 작품에서는 이 관리체계의 기본책인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중심에 놓아야 하며 이를 책으로 하여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집중되고 활용될 수 있게 작품이 구상되고 창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궁극에 가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옳게 보여주는 것으로 당의 정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활발히 창작할 때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이다.

더우기 오늘 수정주의, 개량주의자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당의 정도를 거세해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당의 정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에 특별히 주목을 돌리고 이것을 형상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말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하여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집체적으로 토의결정되며 모든 다른 경제관리분야들도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참모부이며 정치적 정도자이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만이 생산자대중을 묶어세워 의식화, 조직화하며 일심단결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천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시대의 첨예성으로부터 지상의 요구로 나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하는 것을 혁명적 본질로 하고 있는 경제관리체계라는 것을 생활적으로 잘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관리체계는 그에 구현되어 있는 기본정신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 혁명적 본질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대안사업체계가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우리는 문학작품에서 군중로선이 구현되고 있는 대안사업체계의 혁명적 본질, 그 독창성을 잘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하고 있는 대안사업체계의 독창성을 현실 그대로의 진실성을 가지고 생활적으로 보여주자면 불가피하게 각계각층 군중들의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서사시적 화폭을 가지고 형상을 창조하는 모든 작품들에서 거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의 구현은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생산지도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어 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활동하는 그들의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의 구현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데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시기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경제관리의 주인이 되어 생활하며 일하는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아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잘할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아직 우리의 문학작품들에서는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잘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옳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창작에서 일련의 편향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우선 지식인들의 생활을 극절 많고 고달픈 것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서 표현되고 있다. 물론 지식인들은 자기의 전문지식과 기술로서 혁명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그의 정신세계에서 사색의 깊이, 과학기술탐구의 고심어린 생활 등이 특수하게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그들의 내면생활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시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러한 현상이 지식인 현상에서 보편화되다 싶이 류형적으로 도식화되어 있는데 있다. 지금 지식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는 그들을 어렵게 그리고 있으며 과학기술지식 탐구 하나밖에 모르는 매우 단조로운 사람들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과학연구사업에서 그 어떤 사연으로 하여 극절을 겪으며 고민에 찬 사람들로 그리고 있다.

이것은 형상에서 심한 일면성을 가져온다.

해당 작품에서 생활반영의 특수성과 형상구조

의 특성으로 하여 지식인들의 과학탐구에서 고심 어린 측면을 강조하여 보여줄수는 있지만 그들의 형상을 어둡고 생활에서 지니 없는것으로 그리는 것은 극심한 류형과 도식이며 생활의 진실과도 맞지 않는다.

지식인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지 못하고있는 현상은 지난날의 지식인이나 새 세대 지식인들을 한본새로 그리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지금 일부 지식인들의 형상을 보여준 작품들에서는 지식인들을 우유부단한 인물로, 동요하는 인간, 소심한 인간으로 그리는 폐단이 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살아온 지식인들을 그리는 경우에는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의 제한성, 사회계급적처지 등에 의하여 전진하는 혁명의 거류에 제때에 융합되지 못하고 고민에 잠겨있거나 과학기술적문제를 대담하게 꿰고들어가 경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데서 동요하거나 소심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수도 있다. 다시 말하여 지식인의 이중성을 강조하여 그럴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오늘은 주체시대의 교육을 받은 새 세대 지식인들이 중진을 이루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지식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그리는것은 하나의 편향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를 형상적으로 보여줌에 있어서 지식인문제를 현실발전과 생활관리에 맞게 잘 풀어내야한다.

지식인형상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것은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지식인들의 미더운 모습을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당정책을 신념으로 삼고 당을 받들어 모든것을 다바쳐 일하는 미더운 협력군, 당의 로선관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력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활동가로서의 우리 시대 지식인들을 더 많이 등장시키고 잘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임무로 나서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 중대한 역사적과제를 형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분야가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생활로 재현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가말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가

다.

우리 작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은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관리체계를 계속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욱 활발하고 수준이 높게 창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정책을 신념화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신념화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신념화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제관리의 유일한 관리체계로 삼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없이 오직 이 사업체계의 요구대로만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는 확고한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것이다.

작가들 자신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신념화하여야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건, 남이야 어떻게 하든 변함없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주인공들을 옹계 형상할수 있다.

더우기 우리 작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옹호고수하고 관철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라는 관점을 튼튼히 가지고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 탐구와 사색, 열정을 다 기울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찬란히 빛나고있다. 그러므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형상으로 잘 보여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경제관리분야에서 쌓아올리신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 직접 이바지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신념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체계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것으로 만드는것은 이 사업체계를 신념화하고 그를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과 내용, 그에 담긴 원칙과 방도들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지난 력사적기간에 대안사업체계를 구현해나가는 경제건설투쟁에서 확증된 실천적경험들을 생활적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그렇게함으로써만이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장 우월한 경제체제이라는 확신과 신념이 작품에 뜨겁게 맥박치게 할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힘있게 발휘되고 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작에 옹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창작을 량심으로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의 강령적말씀들에서 작가들이 창작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량심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지적하시였다.

창작을 량심으로 한다는것은 우리 모든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당과 수령이 바라고 의도하는 작품을 심장으로 쓴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은 량심이고 량심은 곧 심장이다.

우리 작가들이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뜨겁게 고통치는 하나의 심장으로 작품을 창작할 때 그것은 곧 우리 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뜨겁게 구가한 작품으로 될것이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될것이다. 의무감에서 쓴 작품은 창작품이 아니며 실무화된 하나의 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이 바라고 의도하는 문제를 형상에 구현한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형상에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진실성은 문학예술의 생명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주는데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모든 생산자대중이 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적리념에 맞는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의 경제관리생활에서 누리고있는 삶의 행복과 보람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뚜렷한 표현이다.

우리 문학은 우리 인민의 이 보람찬 사회주의 생활을 생동하게 그림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

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생활력있는 독창적인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인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식 경제관리체계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관철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구가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절대로 로쇠하지 말고 청춘의 기백과 열정, 왕성한 창작적의욕을 가지고 창작하며 혁명적 생활기풍과 창작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모든 작가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하던 나날에 발휘했던 그 열정과 패기, 왕성한 창작적의욕을 가지고 작품창작에 전념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필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한달남짓한 기간에 영화로 옮기고 짧은 기간에 5대혁명가극을 창조해내던 그런 투쟁정신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일으키던 때의 그런 정신, 그런 기백이 요구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부분에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창작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작가들은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발휘하여 창작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현시기 당이 절실하게 바라고있는 문제에 힘을 기울여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며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의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의 5대명언, 5대방침을 관철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뜨거운 긍정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사회주의기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뜻깊은 4월의 명절과 2월의 명절을 문학작품창작의 풍성한 결실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 사업을 인계한뒤

리현덕

## 1

새로 내온 후방기지에 하루빨리 전기를 보내주기 위해 벌려놓은 철탑공사장은 공장구역에서 퍼그나 떨어져있었다. 아근에 마을도 인가도 없는 원당산너머의 눈덮인 골짜기였다.

그리로 걸음을 다그치는 김준기는 가끔 장갑 낀손을 울려 코를 싸쥐여야 했다. 땀뻘 날씨였다.

오후의 짧은 해는 벌써 기울어져 재빛구름속에서 린색하게 별을 내려주고있다.

(일이 밀리다니? 무엇때문에?...)

일터가 가까와옴에 따라 그는 이 한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은근한 우려이고 근심이었다. 남들이 알면 공연한 노릇이라고 할지도 모르는 그것도 그럴것이 김준기는 오래동안 선로작업반장을 해오다가 얼마전부터 나이가 많아 직무를 인계하고 공로보장혜택을 받으며 쉬는 사람이 된것이였다. 그런 가위에 중뿔나게 아직도 작업반걱정은 무슨 걱정이냐고 하면 그 말도 그른데가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지니고있는 구체적인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다. 준기의 머리속에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가깝지도 않은 그 일터로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된 사연이 다시금 되살아나는것이였다.

...며칠전 그는 사업을 인계했다. 후임으로는 박용삼이라고 하는, 로보수반 부반장을 하던 새파란 젊은이가 왔다.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 후임자의 펄펄 끓는듯한 눈을 미덥게 바라보며 하나하나 사업을 인계했다. 오랜 나날 손때를 묻혀온 각종 서류철들이며 여러가지 기계설비와 도구들, 자재들...

그렇게 인계를 마치고 남들이 말하듯이 인제는 그야말로 이곳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어 떠나오는 준기의 마음은 전도유망한 젊은이에게 사업을 넘겨주었다는 안도감으로 몹시 미쁘면서도 한편으로 어딘가 서운한데도 없지 않았다. 오래인 나날 땀과 뉘를 쏟아온 직무에서 떠나게 될 때 누구나 체험하는 감정인 동시에 함께 손잡고 일해온 사람들과 헤어지는 석별의 정이 또한 더욱 크지 않았던지?

그래서인지 바래주는 새 반장과 반원들을 뒤에 두고 헤어져올 때 준기는 몇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는지 모른다. 평소에는 별치 않았던, 오래동안 함께 덩굴며 고락을 나누어온 나지막한 휴계실 문손잡이마저 준기를 붙잡고 《가지 마우, 가지

마우!》하는것 같아 점도록 그것을 놓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게 될 《류다른 생활》을 그려보면서부터야 그의 마음은 얼마간 진정되였다, 무엇때문인지?

반장을 인계하기전에 동년배들도 그런 권유를 했지만 자신도 유별난 《희망》을 가지고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고기잡이를 맘껏 해보는것이였다.

원래 준기는 유명한 낚시꾼이였다. 오죽했으면 이 대안땅아근은 물론 산너머 보산리와 강서읍에까지 고기 잘 잡기로 소문이 났댔겠으며 대동강 고기는 다 준기 고기라는 말까지 돌았겠으랴!

그러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네 공장을 현지도하시며 새로운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신 그날부터 그런 일과 짝 결별하디싶어했다. 일이, 사업이 그런데다 정신을 돌릴 여유를 주지 않았던것이다. 가끔 쉬는날에 남들이 고기잡이를 하는것을 보거나 모임장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못견디게 낚시대를 들고 나가고싶어지는 적도 없지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동안의 유혹일뿐 다시 일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와 거기에 묻혀버리곤했다.

그러니 이제 사업은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당과 국가에서는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 편한 여행을 보내라고 공로보장혜택까지 주었으니 마음껏 지난날에 못보았던 재미를 본들 누가 뭐라고 치랴. 그래 준기는 한편으로는 서운한데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취된 《소원》으로 하여 새를 잡은 아이와도 같이 가슴이 드놀았던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또 다르게 되였다. 인간이란 이런 때를 두고 자기자신도 자기를 다 모른다고 하는지?

좀전이였다. 트랙에서 낚시대를 만지고있던 준기는 대문밖에서 들려오는 인적기에 머리를 들었다. 새 반장이였다. 요새 와서 언제나 일근심에 싸여있는, 일을 내놓고 다른것을 모른다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용삼은 뿌연게 흐린 얼굴을 짓수 곳하고 집앞에 난 길로 걸어가고있었다. 기업소 지휘부쪽에서 오는것이며 옆구리에 사업노트를 낀것으로 보아 긴급회의라도 있었는지?

준기는 급해보이는 그의 걸음을 지체시키는데 이 미안하여 찾기를 단념하였다가 그래도 만나보면 하나라도 도와줄것이 없을가, 내가 뒤집힌 거북처럼 아주 쓸모가 없지는 않을테지 하는 생각으로 그를 불렀다.

《무슨 회의라도 있는 모양인가?》

《있다면이겠습니까. 단단히 얻어맞고 옵니다.》

삼십대의 그의 얼굴은 언제 수업을 밀었는지 꺼덜고 이마엔 깊은 고랑이 패였다.

《얼어맞다니?》

용삼은 벌려놓은 철팔공사를 마무리하여 이달 안으로 고삐를 엮어야했는데 아직 해야 할 양이 산갈고 게다가 일을 제끼는 속도도 다른 단위들보다 뜸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노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용삼은 어딘가 불만스러운 눈길로 준기를 치며보았는데 준기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불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것이 전혀 자기가 반장을 할 때 무언가 잘못하여 생긴 후과가 돼서 그러지 않나 하는 예감이 피똥 들었다. 아니 꼭 틀림이 없을것 같았다. 만물엔 다 인과관계가 있고 병든 나무엔 뿌리부터 탈나기가 쉬운법이다. 아무리 반장을 인계하고 얼마간 지난 지금에 와서 일어나는 일이기로서니 어찌 단순히 새 반장의 잘못이라고만 할수 있겠는가, 적어도 반나마는 나에게…)

멀어져가는 젊은 반장의 뒤모습을 지켜보고선 그의 가슴엔 미안한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만지던 낚시대를 다시 허청간에 들어뜨렸다...

## 2

흰눈을 배경으로 오색기와 구호관들이 꽃힌 공사현장으로 다가가던 준기는 문득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끌려드는 눈길로 공사장을 일별했다.

자기가 반장을 할 때 작성했던, 그리하여 새 반장에게 넘겨주었던 공정도와는 어딘가 다른감이 느껴져서였다. 그때는 둥글메끼이라고 부르는 저언덕의 중심을 직선으로 가로질러 철팔기초를 파려고 한것이 아니라 얼마간 중심에서 우측으로 치우치게 되어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화강암줄기가 중심부를 꿰고들어왔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화강암지대를 곧바로 가로질러 파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힘은 들겠지만 자재를 적지 않게 절약하고 얼마나 좋겠는가! 준기로서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냈던 점이였다.

준기는 새 반장에 대한 경탄에 가까운 미더운 감정이 새삼스레 가슴에 차올랐다. 마음이 든든해오고 작업반의 일을 두고 공연한 근심을 했다는 생각이 미쁘게 안겨들었다. 방금까지도 차고물강스럽게 보이던 하늘이며 눈, 주위의 모든것이 한결 따뜻하게 바라보이고 별로 더 환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이 느낌은 오래 가지 못했다. 다음순간 사람들의 작업모습에 눈길을 돌리던 준기는 어딘가 모르게 그전과 같지 않은 그 무엇을 느끼었다. 그것이 무엇일까? 서둘러 무어라고 딱히 찍어떨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준기가 방금전에 느꼈던것- 주위가 별로 따뜻하게 안겨오고 환하게 보이던 그것과는 반대되는것이였으며 거기에 그들을 지어주는것이였다. 오래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고 호흡을 같이 해온 사람만이 느끼고 감촉할수 있는 아주 미세한것이였다.

작업장의 저 분위기라고 할가, 툄동이라고 할가 그런것이 이전의것이 아니였다. 저기압?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다. 몇명씩 조를 무어 철팔기초를 파는 일터에서는 곡괭이와 삽날이 힘있게 하늘로 오르내리고 이따금 웃음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암만해도 그전같지 않다. 피똥 집앞에서본 반장의 밝지 못한 얼굴때문에 오는 느낌이 아닐가도 싶었으나 그런것도 아니였다. 확실히 여기에도 반장에게서 본것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다.

얼마후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가까이 다가간 준기는 고수머리 봉찬의 낫색이 밝지 못한것을 알아보았다. 준기에게 하는 인사말에도 어딘가 윤택이 없다.

《봉찬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만?》

준기는 그들이 만류하는 말을 들은채만채 삽 하나를 들고 흙을 퍼올리며 물었다.

《일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바인 팬히 나오시여...》

아무렇지 않은듯 오히려 준기를 위로하려드는 총각! 악기의 현줄 하나가 가만히 울리듯 준기의 마음의 금선이 찌르르 울렸다.

《이녀석! 나한테두 숨기거나?》

다가들어 총각의 엉덩이를 철썩 갈기며 씹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냥 정색한 낫으로 아닌보살한다.

할수 없는 일이었다. 단념하고 한동안 삼질만했다. 봉찬은 그런체없는 표정으로 자기의 옛 반장인 준기에게 근심을 주지 않을 말만 조심스레 골라했다.

언제부터 이에에게 이런데가 있었던 말인가? 봉찬은 남들이 《통짜배기》라고 부르는 그대로 한것 단순하고 솔직한 청년이 있다. 부었으면 부었소 나왔으면 나왔소 했지 말과 행동에서 그 어떤 에두름법을 몰랐었다. 뿐만아니라 작업반의 웃음 보따리라 할만큼 몹시 쾌활했다. 어떤 땐 욕을 하러들었다가도 녀석의 비위좋은 대답이며 익살 섞인 행동거지에 자연 웃음이 나가군했다. 일도 질하고 노래도 즐기는 그는 늘 손풍금을 가지고 나와 일터를 흥겹게 만들었다. 그런데...? 주위엔 손풍금도 보이지 않거니와 오늘은 이렇게 무언가를 숨기며 속과는 다른 말을 하고있다.

그러한 봉찬을 보는 준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것이 아니라 알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더욱 심각한 예감이 가슴에 파고드는것을 느끼었다.



《왜 손뽕금이 보이지 않나?》

《...》

《이제 필요없나?》

《원 아바이두 별근심을 다... 집에서 조카아가 가지구 놀다 땅에 떨어진 통에 조금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안가지구 나왔는데 필요없다니요?》

준기는 어쩐지 그 말도 믿어지지 않았다.

철참이 되었다. 준기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있느라니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들며 《오십시오》하고 저마다 권하는 것이었다. 웬일인가 싶어 가보았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늪으로 만든 초롱만한 물통과 함께 불을 때기 위한 돌가마까지 걸려있지 않는가. 그런데 또 통안의것은 맹물이 아니라 보기만해도 구미가 동하는 노란 콩국이었다.

누가 내왔는가고 묻자 그들은 저마다 작업반의 유일한 처녀인 봉찬의 누이동생 봉숙을 바라보며 그의 성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그가 사람들을 위해 공사장에 휴게실을 짓자는 제기를 반장에게 했다가 퇴박은 사실도 이야기했다.

《퇴를 맞다니?》

준기는 예감으로만 맴돌던 그것이 확정적으로 가슴에 파고드는것을 느끼며 괴롭게 물었다.

《반장에게 봉숙이가 그런 제기를 하자 반장은 <그걸 짓는 시간과 로력이면 철탑 세개는 더 세우겠소. 좀 참소> 이랬지요.》

탁! 탁 불을 지핀 돌가마아궁이에서 나무가 튀는 소리.

모두 둘러서서 말이 없다. 불은 불건만 추위는 조금도 물려갈줄 모른다.

《반장동지 말이 옳아요. 제가 작업반 사정두 모르구 제기했었어요.》

불을 때며 앉았던 봉숙이가 발그레한 뺨을 들고 자책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처녀는 불기운이 조금이라도 더 남자들쪽에 가게 하려고 돌가마에서 멀찍이 떨어져 그것도 모로 웅충그리고 불을 댔다. 그 가혹한 마음이 쟁그리 준기의 가슴에 젖어든다.

얼마후 콩국은 파깝게 데워졌다. 봉숙은 깨끗한 그릇에 흰김이 술술 피어오르는 노란 콩국을 떠들었다. 그러더니 맨먼저 준기앞으로 공손히 그것을 내밀었다.

그러나 준기는 그것을 덩석 받을만큼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일이 끝날무렵 준기는 발길을 돌려 작업반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 3

결방(교양실)에서 갑자기 난데없는 손뽕금소리가 들려왔다. 얼마후 그것은 모래우에 물젖듯 소리가 낮아지더니 밖에서 들리는 눈보라소리에 놀리운다. 얼마전까지 땀짜기만 하던 날씨는 해질 무렵부터 눈보라까지 터쳐놓았다.

공사장에서 들어 올 용삼반장을 기다리며 혼 혼한 휴게실안에 앉아있던 준기는 반사적으로 몸을 흠칠했다.

저건 봉찬이 녀석이 라는 손뽕금소리가 아닌가?! 보지 않아도 맞을것이다. 지금은 자기 혼자 인줄 알고 울적하게 라는 멋도 그렇거니와 일을 끝내고는 여기서 늘 저렇게 손뽕금을 타고야 들어가던 봉찬이인것이다.

일어나 슬며시 문틈으로 엿보니 아닐세라 머리를 수그리고 건반을 누르는것은 봉찬이었다.

앉았던 자리로 다시 와 앉았다. 손뽕금이 고장났다고 하던 아까의 봉찬이가 떠오르며 심각해졌다. 그의 머리속에 아까 천장에서 있었던 일, 그 중에서도 콩국을 마시며 다른 청년들이 한두마디씩 웃으며 하던 말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어느날 공사장이 너무 추워 철참에 멀리 떨어진 민가로 달려가 몸도 녹이고 새로 나온 노래도 배웠다. 그것을 알게 된 반장은 휴식을 지내 오래 했다느니,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고 그놈의 손뽕금이 말썽이라느니 하며 가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말하던 끝에 나오는줄 모르게 준기앞에 이런 내용도 터놓았다.

오전경에 일이 있어 직장에 들렀던 반장이 일터에 나왔다. 방금 쉬기를 끝내고 일을 다시 시작한때였다. 반장은 돌아보다말고 봉찬이가 보이지 않자 어디 갔는가고 물었다. 모두 두리번거릴 때 봉찬이가 뛰어오는것이 보였다. 철참에 불을 피울 생각으로 나무를 하러 갔던 모양이었다. 그는 일이 시작된것을 알자 그동안에 꺾은 삭정이를 묶어메고 급히 달려왔으나 반장은 가만있지 않았다.

《조상엔 정신이 없구 팔죽에만 있다더니...》

말은 스스럼없이 하는듯했으나 아니꼬운 표정만은 감추지 못했다.

《뭐요? 그럼 내가...》

봉찬은 낮이 화독처럼 빨갛게 달아 반장앞에 마주섰다. 너무하다고 생각되었다. 곁에 다가와 팔을 잡을 잡아끄는 봉숙을 보자 더욱 자기 감각이 아니었다.

《내가 그럼 일하기 싫어 그랬다는거요?》

이때였다. 봉찬을 만류하던 봉숙이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경항없이 물러났다. 그리고는 저쪽가더니 오금을 꺾고앉아 가늘게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얼핏 그쪽을 돌아본 봉찬은 돌연 낮이 검붉어지다못해 컴컴해졌다.

《에익! 이런데서 내가...》

주먹으로 제 동가슴을 두드리며 분함을 참지 못했다.

맥없이 잦아들던 손뽕금소리는 다시 울렸다. 처음은 류달리 신경질적인 불협화음, 다음은 점

차 가라앉는 조용하고 고르로운 음향, 그것은 눈보라 치는 밖으로 울려나와 몸부림치며 높이 나래쳐오르는가 하면 그 무언가를 하소하는듯 떨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시금 안정을 잃고 처음과 같은 멍으로 돌아간다.

준기의 눈앞에 봉찬의 실신한 얼굴이 보인다. 건반을 아무렇게나 눌러대는, 마음의 안정을 잃은 봉찬이... 한 처녀의 눈물어린 눈도 보인다. 사랑하는 오빠가 요지음 성격이 거칠어진것때문에 속태우는 봉숙의 별빛같은 눈...

그들 오누이는 쌍둥이었다. 원래는 강서읍에 살았는데 3년전 중학교를 마친 그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영광의 사적이 깃든 이 대안땅으로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솔선 탄원해왔다. 그리하여 둘다 준기네 작업반원이 되었는데 봉찬이도 그랬지만 봉숙이 역시 더할나위없이 마음이 싹싹했고 언제나 제몫 아낄줄 몰랐다. 처녀는 피곤을 모르고 작업반을 위해 뛰었고 반원들에게 친절하기가 이틀데 없었다. 마치 달고 갇진한 물엿이 또글또글한 콩알들을 한덩어리로 만들어주듯이 얼마간 거칠고 우락부락한 사나이들도 없지 않은 작업반을 더한층 화목한 집단으로 되게 하는데서 소중한 한몫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 일꾼들이 한 작업반에 오누이가 있을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며 다른곳으로 옮기려는것을 준기가 나서서 강하게 막아치웠다. 그들 오누이는 혁신자로 기업소신문에도 여러번 났고 선로작업반의 자랑으로 되어왔다.

(지나해 큰물로부터 3호변전대를 구원해낸것도 그들 오누이었지...)

금시 준기의 가슴이 멎었던 육체의 동통처럼 또 쓰러왔다. 쿡쿡통이 눈앞에 떠올랐다. 집에 들어가 쿡쿡을 만들며 저 오누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반장에게서 들은 물리해한 말을 두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심분 그랬을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참았을것이다. 아니 그런 감정에 앞서 추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것이다. 자기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그 뜨거운 마음, 봉찬이 역시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하려갔던것이 아닌가.

다시금 아까 본 광경이 그러했다. 추운 한지에서 그나마 돌가마에 데운 쿡쿡과 모닥불이 있어 그런대로 언 몸을 녹이며 단란한 정을 나누던 반원들... 그들이 공사장에 휴계실을 지으려 했던것도 단순히 쉬는 장소나 마련하자는 목적에서였을까?

아닐것이다. 작업장의 휴계실은 바로 날과 날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이 얹히는 집이고 우정과 의리가 꽃피나는 《요람》이다. 길지 않은 나날 일하게 되는 공사장에서나마 그것을 마련해놓고 살려고 한 반원들의 마음!

그것을 새 반장은 들어볼줄 모른다. 무엇이 중

요하다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상 중요한것이 중요한것이 없는건데... 기계와의 사업에 앞서 먼저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기계를 움직이기전에 사람들의 심장부터 움직일때 대한 위대한 대안책의 요구!

그 요구대로 일하지 않고있는 작업반장...

준기는 심중해졌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사업을 넘겨주면서 나는 문건과 재산이나 인제했지 작업반에 기동처럼 세워놓았던 그 소중한 사업기풍은 넘겨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새 반장이 와서 일을 시작한 지금 그전같은 툄동과 호흡이 작업반에 흐르지 않고 일속도가 굼떠진것은 당연할수밖에-

아, 이젠 얼마나 엄중한 나의 과오인가! 반장이 그런 기풍으로 일하지 않을 때 일이 안되는것은 물론 초급일군에 대한 반원들의 불신임이 조성되고 그것은 더 나아가...

여기까지 생각하던 준기는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여 눈을 짙 감았다. 으흐흠... 어딘가에서 신임소리같은것이 새어나왔다.

(그러니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드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얼마나 엄중한가!) 깊은 자책과 심각한 생각으로 주위를 잊고 앉았던 준기는 손뿔금소리가 들리지 않는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일어나 사이문을 열어보았다. 했으나 이미 거기엔 봉찬이가 없었다.

## 4

시간이 퍼그나 흘렀으나 기다리는 반장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무언가 골똘히 궁리하고있는데 밖에서 인척기가 났다. 내다보니 방한모를 벗어 옷의 눈을 터는 반장이 보였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방에 들어선 용삼은 준기를 보자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더 큰 관심은 다른데 있는듯 《에-떡살이 풀려서...》 하고 중얼거린다. 안고 들어선 찬바람이 준기에게까지 끼쳐진다.

《여적 공사장에 있다 들어오는 길인가?》

《예...》

용삼은 맥없이 대꾸하고는 앓은뱅이책상우에 놓인 일보철을 뒤져서 일보를 뱉뱉 쓰기 시작한다.

고개를 수긏하고 글을 쓰는 그의 얼굴은 반장사업을 인제반던 처음과 달리 형편없이 축갔다. 게다가 종일 밖에서 일하고 뛰어다니다니니 퍼렇게 얼고 거칠어졌다. 입술은 터서 한곳에 팔알만한 반창고를 오려붙였다.

준기는 갑자기 가슴이 몽클해오며 그에 대한 측은한 정이 솟구쳐올랐다.

공사장에 나가 알게 된 일들로 하여 그가 몹시 불만스러운것은 사실이나 일에 쏟는 불같은 열정을 대하니 그 불만은 훨씬 덜어졌다. 그 열정이

한시바빠 제 은을 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속에서 강렬하게 고평쳤다.

《몸이나 좀 녹이구 쓰게나. 그렇게 하다간 며칠 잘못견딘다니.》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을 늦잡아서 후방기지에 전기가 빨리 못들어가고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도무지...》

(!!...)

얼마후 일보를 다 쓴 용삼은 전화로 보고하고 나서 다시 일어선다. 그러는것을 준기가 막았다.

《이사람, 조금만 있다가 나가면 안되겠나?》

《왜 그러십니까?》

용삼은 의혹어린 눈으로 준기를 보다가 곁에 다시 눌러앉는다.

《자네한테 내 좀 하고싶은 말이 있네...》

잠간 침묵한 동안에도 밖에서는 아츠러운 눈보라소리가 멎지 않고 들려 온다.

《내 아까 공사장에 좀 나가봤네.》

《공사장예요?...》

용삼의 어긋어긋한 눈에 더욱 짙은 의혹이 비친다. 사업을 인계한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자네 젊은 반장답더군요.》

《예?》

《폐기가 있단 말일세. 내가 할수 없이 화장장 구역을 피해서 세우려 했던 철탑을 자넨 곧바로 했더라니. 일본새란 그래야 하는건데 난...》

준기는 곁에 앉은 용삼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올려놓았다.

《난 맘이 무척 든든하네. 작업반을 자네한테 넘겨준게 말이지,》

《!...》

용삼은 처음엔 뜻밖인듯 놀라는 표정이더니 다음엔 고마움이 어린 눈으로 준기를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 반장은 인정이 없다느니, 일하나밖에 모른다느니 하고 뒤에서 시비만 했지 지금처럼 자기를 알아주고 높이 사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 아버지는... 하는듯싶었다.

한동안 그렇게 준기를 바라보던 용삼은 속마음을 터놓아보고싶은 욕망이 생겼는지

《아바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고맙수다. 한테 이거 안타까와 견디겠수.》 하고 말꼭지를 뗐다.

한무릎 더 바투 다가앉으며 권연 찹저먹는다는 독초를 말아 준기에게 내밀고 두번째로 자기것을 말했다.

또다시 들리는 눈보라소리 성급히 담배를 빨아대는 용삼은 그걸 한가하게 피울 짬도 없었던 모양이다. 준기는 그러한 용삼이가 더한층 측해졌다.

《무언지 어서 말해보라구. 종이장두 맞들면 가법다구 일은 놓은 내지만 힘을 합쳐 풀어보세나.》

《다른게 아니지요. 좀전에두 말했지만 난 당의

신임으로 반장사업을 맡아 이 철탑공사를 제 기일에 질적으로 완성할걸 당적 분공으로 받았는데 도무지 계획대로 진척이 안된단 말입니다. 아바이 아까 말한 그 폐기를 반원들은 알아조차 주지 않지. 이 새 반장에게 결두 안주구 콩새무리에 섞인 까치처럼 바라만 보지. 사람들이 참 리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준기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솔직히 터놓고 도움을 청하는 그의 진정을 대하니 이처럼 성실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었던가. 다시한번 가책되면서 후회감이 막심했다. 입이 썩었다. 그래도 나살이나 먹고 그만큼 반장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 후임자에게 사업인계하나 똑바로 못해서 이런 고초를 겪게 하다니...

《자네 말을 듣구보니 그렇게 된건 다 내탓일세.

날 옥해달라구.》

그리고나서 반장이 고쳐야 할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나갔다. 처음은 제편에서 안타까움을 터놓던 용삼은 이때부터 다시 먼눈으로 준기를 보는 것이 알렸다. 준기는 그것이 피로왔으나 지그시 늘렸다.

준기의 말은 심중하면서도 몹시 따뜻했다. 그러다가 어느한 대목에 가서는 조리있는 설복조로 울리기도 했다.

《자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아끼고 돕는것을 미풍으로 여기는 사람들일뿐아니라 반장에게서 감정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그걸 묵새기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그 잘못을 찾고 반장을 리해해주는 훌륭한 사람들일세. 이런 사람들일수록 반장은 더 사랑해주고 그들과의 사업을 신중히 잘해야 하지않겠나? 그래야 그들도 자네를 까치가 아니구 콩새로 대해줄거구 일두 잘될거네.》

용삼은 준기의 이런 말을 새겨듣는지 어찌는지 고개를 수긏하고 말이 없다. 그 표정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는듯싶었다.

《힘을 합치자던게 바로 그런제란 말이우?》

얼마간 아랑깃든 낮으로 용삼을 바라보고있던 준기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공사장에 휴계실을 그렇게 많은 품을 안들이구 지을수 있겠더군.》

《...?》

《소뿔은 단김에 빼렸다구 이밤으루 조직사업을 세밀히 해냈다가 래일루 제격 해제끼게나. 방도는 말일세. 이왕지사 올려다 조립하게 될 철탑을 먼저 올려다가 그것으로 립시휴계실을 지으면 된다니. 담벽과 지붕에 올릴 1미리철판만 얼마간 더올려가면 되거든. 허허...》

《...》

《근데 즉 지켜줘야 할 약속이 하나 있네. 휴계실을 그런 방법으로 짓자구 한건 절대 내가 어쨌다구는 말하지 말라구. 알겠나? 그럼...》

준기는 낮이 달라지는 용삼을 잠깐 서서 보다가 말고 빙글썩 웃음을 지어보이고 문을 나섰다.

## 5

이튿날에도 추위는 여전했다. 허나 걱정할것이 없었다. 인가 하나 없던 동글메긴철탑공사장에는 선로반원들의 언뎀을 녹여주고 마음을 따뜻이 해주는 세상 처음보는 특이한 집이 하루새에 지어진 것이다. 사면팔방으로 긴뿔이 삐죽삐죽 나온, 허나 안에 들어서면 영낙없이 여느 방안과 다름이 없는 아담한 휴계실이였다.

기업소구내에 있는 휴계실과 다른것이 있다면 온수난방이 되지 못하는것과 전화를 할수 없는것이였다. 허나 그런것쯤은 기쁘게 참을수 있는 그들이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아침에 벌써 낡은 도람통으로 화독을 만들어 지고나온 이가 있는가하면 저저마다 철침에 삭정이와 나무등걸을 해다놓은것이 난가리를 가릴 정도였다.

그러니 온수난방과 전화가 실현되지 못하는것은 문제가 아닌것이다. 중요한것은 자기들의 언뎀을 녹여주고 풀어줄수 있는 보금자리가 몸가까이 마련됐다는 그 사실이였다. 그것도 하루사이 에 이런 산속에! 얼마나 멋진 일인가.

반원들은 그 기발한 방도를 생각하여 자기들의 소원을 수월히 성취시켜준 옛반장에 대한 찬탄과 존경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어했다. 어제밤 휴계실을 짓자는 소리를 듣고 모두 떨쳐나와 법석 떠들며 토론했고 아침에는 너도나도 출근시간 꼭 전에들 나와 철탑자재를 올려가는 장쾌한 전투를 벌렸다. 그런속에서도 곁에 나와 거들어주는 준기를 그들은 임금 모시듯했다.

그렇수록 더욱 불안하고 마음 무거워진것은 준기였다. 저녁에 용삼에게 그렇게 단단히 이르고 들어갔었던만 아침에 나와보니 그 약속은 다 허사로 되였었다. 용삼은 휴계실을 손쉽게 짓는 방도는 바로 준기가 준 조언이라고 말해버린것이였다.

지금은 실참, 화독에 불을 피워 후끈해진 휴계실안에 활기띤 얼굴들이 둘러앉아 또 준기의 《공로》를 놓고 한마디씩 한다. 그들에게 둘러싸인 준기는 다른 때라면 아무나 꼬당겨 영치를 때려주고 귀박죽을 잡아당기며 걸쭉한 룡말도 마다하지 않으련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못되였다.

그의 눈앞에는 철침이 되자 이 휴계실로 들어오지 않고 일이 있다면서 어딘가로 가버린 용삼이가 다시 떠올랐다. 그러자 더욱 가슴이 무척해온다.

그는 한손을 들어 청년들의 말을 막으며 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사람들. 내 한마디 하세. 다르게 아니라 자네들은 지금껏 내 말만 하네만 난 새반장에게 비기면 아무것도 아닐세. 새 반장이야말로 말그

대로 우리 선로작업반에 이제까지 없던 새 바람을 안고온 사람이네.》

반원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듯 눈들이 둥그래서 바라본다. 봉찬은 아예 그런 이야기엔 끼여들지도 않겠다는듯 저쪽 구석에 비스듬히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있다. 아까는 제 몸 위험한것도 모르고 철탑자재를 자동차추레라에서 부리우느라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그였다.

그래도 봉숙이만은 유난스레 반짝이는 눈으로 준기를 지켜보고있다. 분명 새 반장에 대해 좋은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것이리라. 허. 마음이 비단결같은 처너지!

준기는 친근한 미소를 띄우고 사람들을 정겹게 둘러보고나서 이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자네들에게 내 뒤늦게나마 자기비판을 좀 해야겠네. 다 아는것처럼 난 여기서 삼십년이나 반장을 했지. 그래서 내뎀엔 우리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일을 해오느라 했지만, 해서 남달리 큰 자부심과 영예감을 안구 살아왔지만 이제와서 새 반장과 비해보니 많이 부족했던 말이야. 단적인 실례로 이 철탑공사를 하는 잡도리만 보라구. 본래 내가 그에게 넘겨준 공정도는 이렇지 못했거든. 그런데...》

이 내용을 말하고난 준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런 자기만족병을 난 사업을 인계한뒤에야 깨달았는데 깨닫구보니 때는 이미 지나가버렸어. 그래서 내 자네들에게 신신당부하고픈것이 뭔가. 새 반장이 안고온 그 새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붙들라는거야. 허허허... 그럼 아마 우리작업반은 그전부터 자랑으로 되어오는 서로 돕고 아끼는 미풍도 있겠다, 날개돋친 호랑이가 될걸세. 되구말구!》

청년들은 준기의 말에서 자기들도 미처 몰랐던것을 깨달았는지 돌연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되지 않았나 의심되리만큼 깊은 생각에 잠겼다. 준기의 말이 옳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데도 몇이 있었다.

얼마후 준기는 봉찬이더러 (그는 언제부터인가 준기곁에 와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왜 손뽕금을 안가지고 나왔는가. 래일부턴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반장도 좋아할거라고 말했다.

봉찬은 《아바인 지금 무슨 말을 하시우?》 하는 표정으로 준기를 바라보았다. 엉큼한 녀석!

《너석, 왜 그렇게 쳐다만 봐? 내 말을 못믿겠거든 이안에 앉아있지두 말아!》

손을 들어 엉땡이를 갈기려고까지 해서야

《정, 정말입니까?!》 하더니 나는듯 밖으로 내뺐다. 어쩔려고 그러는가? 문밖으로 내다보니 언제 와 있었는지 녀없는 자세로 서있던 용삼반장과 얼굴에 마주치고 굳어져버린다. 어쭙은 낮을

짓는 용삼반장. 그 얼굴에서 무언가 읽은듯 히죽 웃고 뻔얇게 달려가는 봉찬이...

용삼반장은 봉숙의 손에 끌려 휴게실안으로 들어와 준기곁에 앉았다. 화근 단 화독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낮은 유별나게 벌거우리했다.

봉찬이가 다시 들어선것은 15분도 되나마나했다. 그는 지금 집까지 갔다오는것이였다. 못걸려도 40분은 실히 걸려야 할 시간을 그렇게 줄이었으니 줄곧 달리다싶이한 모양이다.

그의 어깨에는 손퐁금이 메여있었다. 그는 용삼반장앞에 와서 차렷자세로 서더니 《반장동지! 손퐁금을 탈만 합니까?》하고 반죽중게 물었다.

와하하... 폭소가 터졌다. 용삼은 더욱 붉어져 오는 낮을 주재하기 힘들어하더니 겨우 대답한다.

《타게, 언제 뭐... 타지 말라구 하던가?》

《알았습니다.》

어느사이 총각의 두어깨가 기울거리며 멋들어진 화음이 울려나왔다. 사람들의 얼굴에 전에 없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얼마동안 화기에 넘치는속에서 사람들은 봉찬의 지휘밑에 새로 나온 노래를 불렀다. 전야에 생명수 흘러가는것 같은 즐겁고 맑은 음률이 봉찬이가 누르는 건반우에서 흘러나와 사람들의 가슴에 정다움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환희와 랑만에 넘쳐 열성껏 따라부르는 청년들, 종일 그 노래를 들어도 싫지 않겠다면 목소리를 합치는 중년들, 아까부터 연신 미소가 떠나지 않는 봉숙의 얼굴...

얼마후 사람들은 기세가 돌쳐 일손을 잡았다. 일터는 전에없이 흥성거리고 들쭉해졌다.

누가 꼬집어 말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이속에서 언제나 그것없이 살수 없는 한가정파도 같은 따뜻한 정이 다시금 자기들의 몸을 포근히 감싸는것을 느꼈으며 고마운 내 나라는 자기들의 즐거운 삶에 대한 짜릿한 애착을 감수하는것이 있다. 이런 생활, 이런 일터, 오늘도 좋지만 더욱 좋아질 래일을 위해 동무들이여 혹한이 두려우랴, 고난이 겁나랴!

사람들은 눈시울에 더운 이슬을 맺혀 힘든줄 모르고 와와-일손을 다그쳤다. 그들과 섭슬려 일하는 용삼은 전혀 판세계에 온것만 같았다. ...

이날 저녁 일이 끝난뒤였다. 준기와 용삼은 어깨 나란히 산을 내렸다. 한낮때에 터져서 광란하던 눈보라도 머리를 숙이고 잠잠해졌다. 용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바이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어떻게 된거라니?》

준기는 짐짓 모르는체했다. 장난기 비슷한 미소를 짓고 용삼을 바라보았다.

용삼은 놀랍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한 오늘의 이작업성과를(래일까지도 빠듯할것 같던 기초과기를 오늘로 끝낸것이다)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하듯 기쁨어린 두눈을 준기한테서 떼지 못한다. 그러다가 낮빛이 서서히 변하더니 칙통한 어조로 실토했다.

《아바이! 날 용서해주시우다. 나때문에 아바인 추운데 나와 수고를 하구... 생각하면 난 대안의 사업체계란 말만 했지 실제 어떻게 일해야 한다는걸 다 몰랐었지요. 회의에가 비판을 받구두 난 나때문에 일이 안되는건 생각지 않구 아바이가 반장을 하면서 반원들에게 곰살궂게만 굴어서 그 후파로 일이 안된다구만 생각했었지요...》

잠자코 바라보던 준기는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자네가 옳게 봤다니! 건 사실이야. 난 자네와 같은 패기와 일욕심을 못가지구 일해왔었네.》

용삼은 서둘러 항의했다.

《그런 말 마시우다. 아바이가 반장하실 때 일욕심은 나보다 더했다는걸 내가 모르는줄 아시우?》

《아닐세, 그건 거짓말이네.》

《아니우다, 곡식은 남의 곡식이 잘돼보인다고 건 아바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거우다. 그리구 까놓구 말해 사람과의 사업을 할줄 모르는 반장의 패기와 일욕심이 무슨 필요가 있수. 이제와 서야 난-. 아바이앞에 들 낮이...》

《허허, 또 그런 소리인가? 내앞에서야 아무런들 뻘라나. 그보다두 이보라구 반장.》

준기의 얼굴엔 이제까지 볼수 없던 심각한 빛이 비끼였다. 그는 어느때없이 생각깊은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대동강을 끼고 우람하게 자리잡은 중기계련합기업소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10년전과도 다르고 5년전보다도 또 새로이 변모된 영광의 땅! 이곳은 바로 승승장구의 한걸을 걷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축소판이 아닐가?

다시금 어제 본 세계지도가 떠오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한걸음 한걸음, 순간순간의 사고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겠는가 새삼스럽게 절감되였다.

(그렇다. 위대한 내 조국땅에 머지않아 솟아오르게 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기념탑은 결코 그때 가서 하루아침에 쌓아지는것이 아닐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되고 큰 방축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한돌기 두돌기 책임적으로 쌓아가야 할것이다...)

이윽도록 생각에 잠겨 서있던 준기는 용삼을 돌아보며 마침내 근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과의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그걸 잊구 일할때 어떤 후가 빛어진다 는걸 명심하자구 그건 정말 큰 문제야.》

《아바이 말씀의 뜻을 잘 알겠수다! 명심하겠수 다! 절 믿어주시우다.》

용삼은 아귀센 손으로 준기의 팔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며 갈린 어조로 부르짖었다. 눈에는 한 없는 자책과 새로운 그의 결심을 말해주는 뜨거운 물기가 번쩍거렸다.

《암 믿구말구!》

준기는 자기 후임자의 얼굴을 오래오래 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뻐다. 날것처럼 마음이 가 벼웠다. 형식적으로 넘겨주었던 사업이 인제야 바로 되었다는 안도감이 그의 기분을 한없이 좋 게 했다.

... 이튿날 준기는 허청간에서 낚시대를 다시 꺼내놓고 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에는 자기가 비록 그 작업반의 성원으로부터는 물러났지만 그 《기둥》은 든든히 서있다는 생각 이, 직무는 비록 인제했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대한 사업체계의 수호자된 의무와 책임만은 자기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인제를 모르리라는 마음이 굳건히 자리잡았다. 그리하여 생활을 늘 앞으로만 떠밀어주었다.

## 해안의 구내길 외1편

정영호

눈이 내리네  
잊지 못할 서른해전 그날처럼  
대안의 구내길우에  
추억의 눈송이 뜨겁게 내리네

우리 수령님  
숫눈길을 헤치며 찾아주신  
그날의 자욱자욱  
못잊어 걸음마다 안겨와  
그 언제나 마음 뜨거워지는 길이어

정녕 이 길이 아니던가  
우리 의견 허물없이 들어주시며  
함께 걸으시던 사랑의 그 길이  
이른아침, 늦은 저녁 때없이 새겨가신  
잊지 못할 그 자욱자욱이

내리는 눈송이도 속삭이는가  
몹소 당분조회의에도 참석하시여  
친근히 무릎을 마주해주실 때  
우리 어려움도 잊고  
가슴속의 진정을 터치던 그 아침을

진정 눈송이도 못잊어 내리는가  
수수한 구역의 한 일군이 되신듯  
일터에 들리시여  
결린 문제도 풀어주시고

소박한 가정의 한식술이 되신듯  
살림살이 형편도 의논해주시던 그 저녁을...

평범한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을  
공업강국의 주인으로  
주체공업의 기둥으로 내세워주시려고  
자욱마다 위대한 사랑을 새겨오신  
길이어, 대안의 구내길이어

돌이켜볼수록 감회도 새로워  
날마다 걸어도  
새 희망으로 부푸는 길  
언제나 걸어도  
새 결심으로 불타는 길

세계가 경제파동에 휘말려  
아우성치고있건만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자세로  
한걸음도 헛디딤 없이 나아가고있어라  
그날에 밝혀주신 새로운 경제관리의 길  
휘황한 우리 식의 이 길을 따라

아,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래일에도 영원히 가고가는 길이어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우리 변함없이 걸어가는 주체의 길이어!

## 그 믿음속에

한바퀴 또 한바퀴  
오늘도 변함없이 수십년 세월  
내 바치는 위훈의 년륜을 감으며  
돌고 도는  
열여섯메터 나의 타닝반아

너 얼마나 아릅찬 기쁨과 사랑을  
수없이 다듬어 떠나보냈던가  
온나라 들끓는 건설장마다  
우리의 마음  
대안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수령님  
동해기슭 새 철의 기지에 가시여서도  
걱정말라고  
여기에 앉힐 대상설비들은  
대안의 로동계급들이 다 해낼거라고

우리 수령님  
북변의 광산을 찾으시여도  
넘려말라고  
대형파쇄기는  
대안의 로동계급들이 보내줄거라고

일떠서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가시여서도  
문제 없다고  
대형발전기도 , 타빈도, 회전자도  
대안의 로동계급이 깎아내고 있다고

가까이 제실 때도  
먼곳에 가시여서도  
그 언제나 변함없는 은정으로  
대안, 대안의 우리를 불러주시더라  
가장 크나큰 믿음의 첫자리에

그러한 때면  
끓어오르는 걱정 of 가슴들을  
우리 말없이 두드리며  
행복의 더운 눈물로 적시며  
그 얼마나 목에 메군했던가

받드는 그길에  
백천번을 쓰러진대도  
한이 없을 그 마음속에  
하루에 열흘을  
열흘에 백날 천날을 살며  
그 믿음 지켜온 위훈의 낮과 밤이여  
우리 수령님 불러주신 그 이름속에  
온 나라 창조의 숨결이  
위훈의 열정을 불러오는 나의 일터  
어제도 오늘도 그 믿음속에  
온 나라가 다 아는 나는 대안의 로동계급

아 그 믿음을 지켜  
위훈을 새겨온 나의 기대여  
영원히 영원히  
그 이름 빛내며  
세월우에 충성의 년륜을 새겨가리

## 주인들

윤대중

## 1

지배인이 조직한 로동행정일군협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기능양성지도원 최원섭은 커다란 량수책상을 마주하고 한동안 까딱없이 앉아있었다.

말복을 넘긴 저녁해가 사무실창문을 엿비스듬이 비치고있었다.

하지만 의사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책상우 어딘가 눈길을 박고있는 원섭의 머리속에는 지배인이 협의회를 결속하면서 곱씹어 강조하던 0.8급이라는 수자만 뱅글뱅글 맴돌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창조 32돛을 맞으면서 공장의 평균 기술기능수준을 4.2급으로 올려야겠소.》

다른 누가 대신해줄수 없는 공장의 이 확고한 결심을 되새길수록 원섭은 점점 숨이 가빠오름을 느꼈다.

물론 이런 경우를 타산하여 그는 년초부터 직장부서별로 《화요기술학습》운영과 《기능공학교》기능공들에 대한 《개별전습체계》 등 면밀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일을 내밀어왔다.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공장실정에서도 늘 배심이 든든해서 양성사업을 해온 자신이였다. 허나 오늘 지배인이 강조한 0.8급은 높이뛰기선수의 그 무슨 《신기록》처럼 느껴지는게 이상했다.

공장의 초창기부터 막역한 친구로 지내오는 시험소 부소장이 이 근래에 이르러 술상에 마주했을때면 주량이 줄이든 그에게 《자네도 이젠 늙었네구려》하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곤 했지만 그때마다 원섭은 건강탓이라고 자신을 위안했었다.

때문에 외손주녀석들이 때도 시도 없이 량무릎에 털썩털썩 주저앉아 야들야들한 뺨을 할아버지의 구두술같은 턱수염에 비벼보며 깨득깨득 웃을 때에도 술하에 사내녀석들의 재롱을 모르고 이윽토록 살아온 부모의 육심박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이러한 원섭의 앞에 1년전 조카 일규가 제대배당을 메고 불쑥 나타났다.

지금의 제관직장 확장건립시 위험에 처했던 작업반원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원철이가 제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입으로 손가락만 빨고있는 아들 최일규의 장래를 원섭이 품으로 떠밀어놓을때만 해도 먼 후날의 일로만 생각했었다. 왕성한 사업욕에 치워 바빠 지내던 그 시절엔 고마운 우리 제도하에서 탈없이 자라

는 조카가 귀여워 마음이 즐거웠고 빨간 령장을 단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날 때는 대견한 생각에 큰아버지의 의무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던것이 성스러운 군사복무를 마치고 림름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동생의 부탁이 심장속에서 뒤채이면서 가슴이 묵직했었다.

원섭은 그때의 감정이 오늘 20여년세월을 거슬러온 자신의 사업까지 휩싸고있다는데 놀랐다.

(0.8급이라.)

그는 땀발이 내뿜는 얼굴을 손수건으로 문지르며 천천히 도수안경을 꺼내 귀바퀴에 걸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기능급수사정시험양성시험이 어찌보면 양성사업이라는 자신의 본신임무수행이나 가정적의무감으로 보나 하나의 분수령으로 될 것만 같은 가슴벅찬 회열과 늑음에서부터 오는 쓸쓸한 애수가 혼탁되어 의미를 분간키 어려운 한숨이 두툽한 입술사이로 빠져나왔다.

《직장부서들에서 올라오는 급수사정명단은 다 결속했소?》

원섭은 아까부터 건너편 책상에 앉아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서류를 뒤적이는 문건정리원 은실에게 던지시 물었다.

《아직 몇개 직장과 부서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직장이요?》

그는 이윽토록 침묵을 지키던 사람같지 않게 원주필을 꺼내들고 사업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은실이 불려주는 직장들과 부서들을 차례로 적어 내려가며 원인을 따졌다.

《재포치사업은 했겠지?》

《예.》

《그런데도 우물거린다?》

원섭은 전화를 끌어당겨 몇번 신호단추를 누르더니 《교환》하고 찾았다.

갑자기 수화기에서 따르득-하는 소리가 귀청따갑게 울리더니

《양성실 전화갑니다.》 하는 교환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원섭은 명칭하니 수화기를 들여다보며 골살을 찡그리더니 상대방의 목소리에 못이깃듯 다시금 귀에 가져갔다.

《양성실 최원섭이웨다.》

《마침 있었구만. 내 시험소 부소장이야.》

《그래?!》

원섭은 부소장이라는 말에 일껏 어둡게만 번져지던 얼굴이 대번에 희뵈이 밝아졌다. 이즈음 몹시 기다리던 목소리였다. 부소장네 딸 허순희와



일규와의 전망이 시원하니 내다보이지 않아 집에서는 물론 밖에 나와서도 은근히 신경을 쓰고있는중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과 제관직장 기술지도원으로 일하고있는 순희를 형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막내딸 경미가 말했고 또 어느 좋은날 술상에 마주앉은 좌석에서 조카며느리로 맞고싶다는 자기의 마음을 부소장이 선선히 받아줄 때 원섭은 너무나 기뻐 친구의 어깨우에 사둔의 정까지 아낌없이 덧쌓았었다.

사실 순희로 말하면 기술과는 물론이요 공장안에 구석구석 다너보아도 쉽게 찾아볼수 없는 한떨기 아름다운 꽃이었다. 교양있는 부모의 영향으로 행동거지가 세련된데다가 밖에 나와서는 기술지도원이라는 본신사업 역시 여물어 안팎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녀이다.

그러한 처녀를 며느리로 맞는다는것은 아들 하나만을 키우며 살아온 일규 어머니에게는 물론 원섭이자신으로써도 기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일규가 제대되어 제관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한지도 1년이 지났건만 그녀석의 입에서는 물론 당장이라도 집에 들이닥치면 일을 꾸밀것만 같던 부소장네 집에서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부소장자신이 막역한 친구인 이 원섭이를 멀리하는것 같은 생각에 속이 서물거렸다.

그래 며칠전에는 집에 들린 일규의 눈치를 이모저모로 살피던 나머지 《너 요즘 순희와는 자주 만나느냐?》 하고 직판으로 물었다.

《큰아버지두 참, 언제 그럴새가 있나요.》

원섭은 일규의 어지간히 이지러진 대답에 억이 막혀 한동안 쾅한 눈길로 쳐다보다 《못난녀석같으니라구.》 하며 돌아앉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걸어온 부소장의 전화는 반가운것이 아닐수 없었다.

《자네 혹시 전화를 잘못하는건 아닌가?》

《기능급수야 자네 손을 거쳐야 하는줄 아는네.》

《명단제출날자가 늦어져 사죄를 하자고 전화를하네.》

《물론 사죄를 해야지. 허지만 자네가 있는부서인데 좀 늦어진들 일이 비뚤어지기가 하겠나?》

원섭은 명단제출이 늦어지는것과 관련하여 이유를 따지던 은실이가 앞에 앉아있다는것도 잊은듯아량이 넓게 응대했다.

그러면서도 부소장의 입에서 순희와 일규의 혼사문제가 먼저 튕겨나오는것이 아니라 실무적인사업이야기로 번져지는데 은근히 조바심이 났다.

《이번에 우리 사업소에도 응시자가 많네.》

《그렇테지. 하지만 자네 욕심이라면 다 들어주겠네. 사실 전문가들도 내 손을 거치는 일이라면 이번에 순희의 기사급수를 뒤급 올려놓고싶지만 역시 기사들은 급이 다르거든, 허허...》

원섭은 그런 식의 전화는 그런 식의 사업이야기로 끝마칠것만 같아 슬쩍 순희를 건드렸다.

《여보게 말도 말게. 까딱하다간 자네네 일규등쌀에 우리 순희가 급수는커녕 기사자격까지 박탈당할가보네.》

《그건 무슨 소린가?》

《대형수력타빈 회리실제작에서 묶음식조립방법을 들고나오는바람에 기사의 체면이 구석으로 물리는판일세.》

부소장의 말은 탄식에 가까웠다.

《아니 그녀석이 뭘 안다고 기술자들에게 샅대질을 한다던가?》

《그야 물론...》

원섭은 두말할것도 없다는듯 의자를 뒤로 밀어책상을 향해 엇비듬히 비켜앉으며 허허— 하고 제혼자 웃었다.

《글쎄 젊은 혈기니까 저로서도 무슨 타산이 있어서 내대기는 하겠지만 이즈음 밤잠도 설치며다니는 애를 보자니 가슴이 아려근하네.》

(문제거리가 있었구나.)

원섭은 갑자기 뭐라고 할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눈앞이 어질어질해오고 온몸이 나른해져 수화기마저 들고있을 힘이 없어졌다.

그는 가가스로 명단을 빠른 시일내로 제출하라고 이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리고말았다.

(덜돼먹은녀석, 처녀에게 곱게 보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주먹을 들고나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일숨씨가 늘었다고 공장이 인정하는 기사와 맞선단말인가!

제아버지가 일하던 직장에 가겠다고 하길래 로동생활경력에는 본인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면하게는 순희와의 교제도 있어야겠기에 승낙을 했더니 도리어 불집을 일쿠며 돌아친단말이지.

원섭은 기신없이 앉아있던 사람같지 않게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당초에 혈기에 넘쳐 사회생활에서 물뎀병술뎀병 할가봐 매사에 심사숙고하라고 마주설적마다 일렸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순희를 난처하게 하다니...

그는 책상우에 있는 사업수첩과 각종 서류철들을 잡히는대로 철케안에 넣고는 제먼저 사무실문을 나섰다.

## 2

최씨가문의 유일한 자손인 일규로 말하면 술하에 두 딸자식을 둔 원섭이에게 있어서 조카이기에앞서 아들맞잡이었다.

때문에 동생이 살아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규에 대한 원섭의 사랑은 남달라 사람들은 형과 동생사이의 아들이라고 했다. 원섭인들 사랑스러운 딸이 귀엽지 않으랴.

그러나 모든 사물에 중심이 있듯이 가정에서도

기둥이 있어야 한다. 가정의 기둥을 바로세우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오만가지 일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때 원섭은 뜸튼한 어깨우에 제대배낭을 돌려 메고 나타난 일규에게 이렇게 물었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할 생각이나?》

《아버지가 일하던 직장에 갈까 합니다.》

(용타! 녀석이 군대밥을 헛먹지는 않았구나.)

물론 일규가 자기 직업문제를 큰아버지에게 말긴다고 말했어도 탓할 원섭이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기쁘지는 못할것이다.

일규아버지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제관직장에 가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왔다고 남보기에도 좋을뿐만 아니라 큰아버지가 양성지도원이니까 제대되자바람으로 좋은 직업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의 뒤소리도 없는것이였다. 몸에 익지 않는 일여서 힘에 부칠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가있는라면 노동생활경력을 가지니 좋아 또 순회와의 리해를 넓히는 측면도 좋아 이모저모로 유리하다. 아무렴 한당대 제관직장에만 박혀있을 애는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시험소 부소장의 전화를 받고 조카네 집으로 가는 원섭이의 마음은 무거웠다. 기억을 더듬어 볼수록 오빠의 직업배치를 놓고 왜 하필이면 제관직장엘 보냈는가고 발을 구르던 경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오빠의 오늘날을 그때 벌써 내짚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벌어진 일을 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같다. 불 안때 굴뚝에 연기가 날수 있는가? 이제 소문이 나면 혼사는 둘째치고서라도 오랜 세월 한공장지붕아래서 함께 살아오며 맺어진 친구의 우정에까지 금이 갈것은 명백하다. 원섭은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일규네집 문을 열었다.

《어머니, 큰아버지 오세요.》

책상에 마주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던 일규가 만년필을 손에 쥔채 벌떡 일어섰다.

《그새 편안했슈.》

원섭은 저녁동자질을 하던 제수가 행주치마에 물묻은 손을 감싸며 들어서자 건성 인사를 하고는 일규가 놓아주는 방식에 털썩하니 주저앉았다. 그는 방안의 이구석저구석에 눈을 주다 말고 엉겨주춤하니 서있는 일규를 마뜩지 않는 눈길로 바라보며 《게 좀 앉거라》 하고 말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큰아버지의 엄엄한 목소리였고 있어보지 못한 심상치 않은 몸가짐이였다.

《그래 뭘 하느냐?》

《공장대학 입학시험준비를 좀 하느라구.》

일규는 가름한 얼굴에 어설픈 웃음을 담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원섭은 담배를 붙여물고 조카를 쳐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예리한 코날과 약간 우로 들린듯한 빠른한 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그러나 제대되여왔을때의 불깃불깃한 혈색은 간데없다. 융접불빛에 끄슬려 몇차례 벗기웠는지 귀멜엔 아직도 큼직하니 부풀은 껍질이 붙어있었다. 무릎우에 가볍게 올려놓은 손은 마디마디 툭툭 불거졌는데 시뻘건 물이내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감은 봉대가 아프게 원섭이의 눈을 찔렀다.

그는 불현듯 애어린 일규의 장래를 부탁하며 숨을 거두던 동생 원철의 모습이 떠올라 눈길을 들리고말았다. 저세상에서나마 다 큰 아들의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형을 얼마나 원망하랴!

이제라도 직업을 돌려놓아야 한다. 애초에 결심을 바로했더라면 부소장내와의 혼사문제는 물론 이런 불쾌한 밤길도 걷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칭찬도 석달, 남의 흉도 석달이라 했겠다. 원섭은 올방자를 틀어올리며 거퍼 담배를 말았다.

《힘들지?》

《남들이 다하는 일인걸요!》

일규는 재털이를 원섭이 가까이에서 옮겨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헌데 요즘 너희네 직장에서 창안한다는게 대체 어떤거냐?》

《예?!》

《거 뭐 희리실말이다.》

《예, 특대형타빈희리실 제작에서의 <묶음식조립방법>말이에요?》

《그런것 같다. 헌데 승산이 있는 방법이나?》

《있구말구요. 여기 다 적혀있는걸요.》

일규는 일껏 조여댔던 탕개가 풀리워나가는것만같은 환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훌쩍하니 일어났다.

그리고는 두덩이 넓어 한쪽귀통이가 떨어져나간 수첩을 가져다 원섭이 앞에 퍼놓았다.

《큰아버지, 이 방법만 도입되면 종전에 석달씩 걸리던 조립을 대뜸 절반으로 줄일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철관과 용접봉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게 되지요.》

일규는 수십수백번을 뒤빈졌을 수첩을 한장한장 번지며 묻지도 않은 수자와 수식들을 《도면》까지 펼쳐가며 설명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귀맛이 당기는 착상이다. 아니 만약 그 방법이 도입된다면 타빈생산에서는 틀림없이 하나의 《혁명》으로 될것이다.

원섭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효과성이 큰 이런 착상을 갖 제대된 신입노동자인 조카가 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더우기 본신사업으로 놓고보나 일규와의 인간관계를 놓고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나서야 할 순회가 반대할 때에는 착상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소리다.

그래 원섭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기술과와는

충분한 토론을 했겠지?》 하고 오금을 박듯 물었다.

《예.》

《그래 뭐라고 하더냐?》

《일부 사람들은 무턱대고 도리머리질이지요.》

일규는 한껏 열에 찢던 사람같지 않게 심드렁하니 대답했다.

《기술자들이 머리를 저으면 그들의 의견도 존중할줄 알아야지.》

원섭은 대번에 언성을 높이며 술많은 눈섭을 올리치켰는데 그 서술에 놀란듯 거칠한 안면근육이 부르르 떨었다.

《강건너 불보듯하는것은 둘째치구 이견 덮어놓고 찬물을 끼얹는단말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국가가 품을 들여 키운 기술자들을 모욕하는거냐? 그들은 과학기술로써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야.》

원섭은 후들쩍대는 손으로 방바닥을 탁탁 두드렸는데 길다랗게 앉은 하얀 담배재가 무릎에 떨어져 흩어졌다.

머리를 숙인 일규의 손에서 수첩이 돌돌 말리워 비틀리우고있었는데 부엌에서 간단없이 울리던 그릇 부딪치는 소리마저 똑 끊어졌다.

원섭은 손끝까지 타버린 담배를 비벼끄며 공하고 일어섰다.

《잘 생각해봐라. 난 가겠다. 욕망이 모두 현실로 되는건 아니다. 기술자들은 누구보다도 환상이 많고 욕망과 정열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회생활을 립체적으로 들여다볼줄도 알아야 해. 무슨 일에서나 모가 난 돌이 먼저 깨지는 법이야.》

원섭은 저녁식사가 다 됐다고 막아나서는 제수의 권고를 마다하고 일규네 집을 나섰다.

### 3

기능급수시험조를 편성하기 위하여 아침 첫시간부터 과장과 마주앉아 토론하던 원섭은 직장교관들을 자기 방에 불러났다는 생각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진된 문제들이 있으면 더 이야기하시오...》

《없습니다.》

그는 과장의 호의적인 말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며 사무실문을 나왔다. 미진된 문제라야 원섭이 자기몫이다. 직장별로 올라온 응시자명단을 카드별로 대조하는 사업과 직종별 시험문제작성 및 응시자명단공시가 남았다. 이 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결속하기 위해 직장의 교관들을 인입했던 것이다.

《시험소와 업무산하 명단들은 다 작성됐소?》

원섭은 사무실에 들어서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예, 다 됐습니다.》

교관들사이에 끼여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불러주고있던 은실이가 책상서랍에서 두개의 문건철을 꺼내 원섭이앞에 가져다놓았다.

《그런데 시험소와 업무산하와 같은 현상이 제관직장에도 있습니다.》

《뭐요!》

이제 남은 일만 처리하면 당장 시험응시자들을 공시하고 일정대로 시험에 들어가야했는데 아직도 명단이 구비되지 않았다니 막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시험소에서는 전문학교를 졸업한지 1년도 못되는 사람들이 명단에 올랐는가 하면 업무산하 직장부서들에는 로동년한으로 보나 연령으로 보나 응당 응시되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있어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

《어디 보지요.》

원섭은 옷주머니에서 도수경을 꺼내 귀에 걸고 은실이가 이미 검토하여 밀줄을 그어놓은 명단을 받아 훑어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되도록 아직 한 번도 응시하지 않은 이름옆에는 삼각부호들을 쳐놓았는데 대체로 기중기운전공이나 일반기계운전공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있었다.

제관공, 용접공들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비교란에는 기술학습 출석률이 떨어진다고 밝혀져있었다.

(응? ... 이견 뭐야.)

줄곧 명단을 따라 내려가던 원섭이의 눈길이란점에 멎어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최일규라고 쓰여진 칸에는 2급으로부터 4급이라는 수자가 밝혀있었다.

또한 비교란에 누가 써넣었는지 참고부호를 하고 《담보합니다》라는 글자까지 있었다.

담보라니 무엇을 담보한단말인가?

《은실동무, 이견 도대체 뭐라고 한 소리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장동지에게 전화로 알아보니 그 동문 기능수준이 4급이상이라고만 하는데...》

치너는 울렁하니 치튼 두눈을 깜박이면서 애매하니 말꼬리를 사리였다. 《무슨 놀음판인지 모르겠소.》

원섭은 뻑하니 전화기를 끌어당겨 제관직장을 찾았다.

1년도 못된 제대군인이 시험응시자명단에 들어간다는것자체가 정상이 아닌데 그것도 한급수가 아니라 두급이나 경총 올리겠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놈의 감투끈인지 모르겠다. 기능급수가 뭐 이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이름이나 본인이 요구하면 아무때나 팔아주는 상품인가.

그는 제관직장을 찾던 교환수가 전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수화기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

다.

《하던 일들을 빨리 결속해야겠습니다. 내 현장에 나갔다 오겠소.》

그는 말은 일에 분주한 사무실안의 사람들에게 자기 행처를 알리며 제관직장으로 향했다.

구내도로에 줄지어 늘어선 수삼나무들이 8월의 무더위에 겹을 먹은듯 늘어선 아지마다에서 아침부터 툭툭 이슬방울을 떨구고있었다.

(철딱서니 없는 녀석같으니라구.)

일전에 집에 찾아가 그만큼 일렸으면 생활에서 제갈길이 어느것인지 맥을 짚으리라 생각했건만 이제보니 철관을 두드리는 제관직장에 한당대 늘어붙을 잡도리다.

글쎄 나날이 일숨씨가 여물어가는 일규를 두고 입을 모아 사람들이 칭찬하고 속보에까지 낸다고 해두자. 결과야 어떻게 되든간에 착상으로써는 귀맛이 당기는 《뭍음식》을 발기하고도 기술자들로부터 리해를 받지 못하는 일규가 이제 무슨 일을 저지룰지 누가 알랴.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짓수곳이 머리를 숙이고 내쳐 걸음을 옮기던 원섭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막내가 경미였다.

《오냐, 제관직장에 간다. 한데 어데 갔다오는 걸이냐?》

《아버지도 벌써 알고 가세요?》

《벌써 알고가다니?》

《오빠가 발기한 <뭍음식조립방법>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구?》

원섭은 갑자기 심장이 툭 멎는듯한 압박감에 앞에 선 경미의 어깨를 가가스로 붙들었다.

《우리 기술과에서 승인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제작하다가 그렇게 됐지요 뭐.》

《어디냐. 어서 가보자.》 그는 경미의 손을 잡아 끌며 앞서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 먼저 가세요. 전 우리 기술과장동지를 찾으러 갑니다.》

경미는 우악스럽게 틀어쥔 아버지의 손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원섭은 더 생각해볼새 없이 격석격석 제관직장을 향해 반달음을 놓았다.

크고작은 강철음향이 여기저기서 울려오는 직장안은 제품생산으로 들끓고있었는데 유독 일규네 회리실작업장만이 조용했다.

멀리에서 보기에다 허리에 안전바를 질끈 동인 두세사람이 집채같은 회리실꼭대기에서 왔다갔다 할뿐 작업장은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붐비었다.

웅기중기 모여서서 동굴처럼 시꺼먼 회리실동체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끄덕이는가 하면 금방 오작으로 뜯어낸듯싶은 뭍음식굴꼭철관에 줄자를

늘이고 무엇인가 수첩에 부지런히 적는 사람들도 있었다.

원섭은 슬깃슬깃 작업장으로 다가갔다.

《도대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뿐인데 어떻게 하자는지 의견을 내놓으란말이요.》

도면을 펼쳐놓고 어깨성을 쌓고있던 사람들속에 누군가 손을 내흔들며 열을 올렸다. 직장장이었다.

그속에 용접불빛에 그슬린 작업복에 모표 없는 군모를 빼꼼하하게 쓴 일규가 목자를 접어들고 앉아있었는데 가름한 얼굴은 온통 고열환자처럼 땅에 젖어있었다.

《지금 방법으로는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안한 당사자도 인정하고 직접 제작한 아바이도 알고있는 약점인데 더 말할게 없지 않소.》

겨드랑이에 두툼한 서류철을 끼고 쭈그리고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펼쳐놓은 도면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명백하니 대답했다.

직장장은 일규와 기능공인듯한 아바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꿀꺽하고 마른침을 삼키었다. 그리고는 얼굴이 빨개져 횡하니 일어섰다.

결국 책임한계는 직장장의 침묵으로 갈라진 셈이다. 원섭은 아무 말도 없이 오작난 회리실부위만 망연히 쳐다보고있는 일규를 눈앞에서 보자니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그는 《큰아버지 나오셨어요.》 하고 어쭈게 인사를 하는 일규에게 긴요하게 토론할게 있으니 래일 아침 로동과로 올라오라고 힘을 주어 이르는 제관직장을 나서고말았다.

## 4

《경미는 아직 안왔소?》

매늦게 집에 들어선 원섭이가 부엌과 방안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모르겠수다. 옷방에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 어디 소리가 나아지요.》

안주인 림씨가 부뚜막에 행주를 놓으며 입을 빼죽했다.

그는 옷장에서 실내복을 갈아입고 어힘어힘하고 뒤번 기침소리를 냈다. 허지만 《아버지, 지금 오세요.》 하며 마주나와 가방과 옷을 받아주어야 할 경미가 여적 인기척이 없다.

원섭은 조용히 옷방문을 열었다. 방바닥 한가운데 오도카니 앉아 뜨개질을 하던 경미가 그체서야 아버지를 알아보고 앉은자세 그대로 머리를 가웃해보였다.

《왜 어디 아프냐?》

《아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섭은 수심이 짙은 경미의 동그란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며 들었다.

《아버지, 오빠를 혼살내주세요.》

《그건 무슨 소리냐.》

《오늘 오빠가 우리 사무실에 뛰어들어 순희언니를 울리고 술한 기사들을 욕했어요.》

《아니 일규가 거긴 왜 갔단말이냐?》

원섭은 모를 일이라는듯 눈을 치뜨며 머리를 긁었다.

《<묶음식조립방법>에 대한 기술과의 견해에 의견이 있다는거지요.》 하고 경미는 오늘아침에 있었던 일을 격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침 사업조직이 막 끝나려는 때였다.

누군가 사무실문을 두드리는가싶더니 색이 바랜군복을 입고 모표 없는 병사모자를 쓴 사람이 벌컥하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기 책상에 앉아 기술공정표를 들여다보던 경미는 《어디서 왔소?》 하는 실장의 석심한 물음에 머리를 들었다. 뜻밖에도 오빠 일규였다.

《제관직장에서 왔습니다.》

《제관직장에서... 옳지, 회리실제작에서 <묶음식조립방법>을 착상한 동무로구만. 그런데 무슨 일로?》

실장은 책상에 쌓여진 기술공정표와 도면들을 차곡차곡 가리며 다정하니 물었다.

《묶음식은 착상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방법입니다.》

일규는 실장의 호의는 개의치 않는다는듯 두뼉 두뼉 걸어와 빈의자를 끌어당겨 순희앞에 앉았다.

《기술지도원동무, 동무는 묶음식에서 원추 비침각과 R각을 결점으로 규정했는데 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손때묻은 까만 수첩을 벌컥벌컥 뒤져 순희앞에 펴놓고는 손가락을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다.

순희는 두손으로 가볍게 턱을 받치고 가끔 순서가 왔다갔다하는 일규의 말을 마지막까지 귀담아들었다.

그리고는 펜대 뒤등으로 푹푹 가락맞게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을 골랐다.

일규의 열변으로 하여 방안가득 공명되던 소음

이 잦아들고 사무실엔 숨가쁜 정적이 찾아들었다.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린 땀방울이 일규의 턱을 거쳐 툭툭하니 책상우에 떨어졌다. 그는 누구든지 깨뜨리기 저어하는 지루한 침묵에 화가 난듯 손바닥으로 이마를 뺨 문지르며 《어쩔소?》 하고 물었다.

《좋아요. 일규동무의 이 묶음형태가 도면의 요구대로 조립된다고 봅시다.

하지만 수평상태에서 용접의 세기와 강도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일규는 좋다고 말하는 순희의 대답에 환성이라

도 지를듯 모자를 벗어쥐다가 용접세기란 말에 그만 손이 굳어지고말았다.

《무슨 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순희는 말먹은 사람처럼 입술만 우물거리는 일규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사람들의 정신육체적힘을 사정없이 잡아먹는 조립에 대해서만 머리를 썼지 용접의 화학물리적성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한 일규였다.

《그 안은 없소.》 일규는 솔직하니 대답했다. 그러자 모여섰던 사람들속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었다.

《동무, 회리실이란 수십수백의 압력에도 부식되지 말아야 할 강철조립체란 말이요.》

《이 동무가 욕망만 있고 타산이 없는 사람이구만 현장에서 그만큼 설명을 했으면 됐지. 원 고집두 . 쯤쯤...》

오작사고가 났던 날 직장장을 상대로 혀를 차던 사람이었다.

일규는 너도나도 한마디씩 해대는 사람들을 무서운 눈길로 쏘아보다 말고 와락하니 수첩을 끌어당겼다.

《용접의 세기와 강도문제라면 동무나 여기 모인 기술자들이 풀어야 할게 아니요 . 동문 직장 기술지도원인데 주인이 아니구 마치 손님같구만.》

사람들은 한동안 멍청하니 일규를 쳐다보다가 뒤늦게야 한마디씩 했다.

부지불식간에 조성된 난처한 분위기에 몸둘바를 몰라하던 순희가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일규를 달래었다.

《일규동무, 동문 뭐야요. 과학적인 론리도 없이.》

《무엇인가고. 나는 생산을 책임진 주인의 한사람이요. 그래 동무는 생산의 담당자로서 적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만들어 보자고 하는 로동자들의 열의가 동무의 눈에는 그렇게 욕망으로만 보이요.》

불을 토하는듯한 일규의 말은 사무실안을 찌렁 찌렁 울렸다. ...

경미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창문으로 다가가는 순희를 보느라니 칼로 허비여대듯 가슴이 알알했다.

...

《망할너석같으니라구. 로동파로 오라는 큰아버지의 말은 귀등으로도 안듣고 기술파에 가서 샷대질을 해...》

《오빠는 망태기야요, 망태기...》

경미는 자신으로서는 항변이나 원망 한마디 할수 없어 전전공공하던 그때 그 순간이 다시 찾아온듯 발을 동동 구르며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원섭은 딛고선 두다리가 후들쩍거려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함께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여선가, 아니면 이날이때까지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말을 내지 않으려고 큰아버지가 쏟아부은 사랑이 적어서인가.

나이찬 딸들이 있으면 집안이 복이운다는 말은 들었어도 다 큰 아들때문에 부모들이 마음을 조인다는 소린 들어본적이 없는 원섭이다.

어떻게나 일규가 잘되어야 집안일이 편하겠는데 이진 제대되어 와서부터 처처에 말썽이었다.

부모들사이에 약조가 됐던 약혼문제는 이제와서 누가 누구를 넘겨다볼수 없게 이그러진것이 분명한것이지만 보다 우려되는것은 그의 성미다.

어릴적부터 한번 마음먹으면 담벽도 문으로 알고 내미는 그 결괏가 오늘은 창외교안의 실패로 공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기술과 사무실을 들었 다났지만 래일은 만사람들앞에서 망신당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랴.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잘못된 조카탓에 지금껏 구석진데 없이 살아온 이 최원섭에게까지 그들이 던져질것이다.

《경미야, 너 이제 오빠네 집에 가서 큰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알려라.》

원섭은 아래방 어디엔가 있을 경미에게 던지시 일렀다.

이때였다.

《큰어머니 그새 편안했어요?》 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어이구, 제대군인동무가 오누만.》 하는 로친의 봉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아버지 아직 안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

어느새 제 오빠를 띄워봤는지 경미가 옷방으로 올라와 원섭이앞에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해보이며 눈을 깜빡했다. 원섭은 담배를 꺼내 방바닥에 그루를 치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일규를 마뜩지 않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큰아버지, 오늘 시간이 없어 사무실에 못갔어요.》

《됐다.》

원섭은 개의치 않게 응대하며 조카의 거동을 살폈다.

일규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무럭거리더니 《됐다, 네가 부탁한 불수강코바늘이다.》 하며 두눈이 울롱해서 엉거주춤하니 서있는 경미앞에 내밀었다.

경미는 눈이 부시게 반짝거리는 코바늘을 덮치듯 받아쥐더니 입을 뻐죽해보이며 부엌으로 나갔다

정겹게 동생을 바라보던 일규는 옷웃을 벗어 말코지에 걸며 《큰아버지, 직장기능급수 응시자 명단에 제 이름이 빠졌더군요.》 하고 말했다.

《빠진것이 아니라 내가 뺐다.》

《예? 그건...》

《기능급수시험이 아이들 작문짓기와 같은줄 아느냐?》

알고보니 사무실에 찾아오지 못한걸 속죄하려고온것이 아니라 기능급수시험응시때문에 들린것이다.

생각해보면 꽤썩한 일이지만 마주앉아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심에 원섭은 천천히 담배불을 붙여물었다.

《거기 좀 앉거라. 며칠전에 우리 과장과 토론이 있었다. 네 혼자 집안일을 돌보고 대학도 다녀야했기에 시험소로 직업을 돌려놓기로 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네 급수시험도 고려했고...》

《참 큰아버지두, 제관직장에서는 집일도 그래 대학도 못다닌다나요?》

일규는 가름한 얼굴에 우선우선한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실없는 고집은 그만 쓰고 큰아버지가 하는대로하자.》

《<묶음식조립방법>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아니 넌 아직도 묶음식이냐? 그만큼 쓴맛을 봤으면 제때에 물러설줄을 아는게 남자지. 그놈의 묶음식에 네 운명이 걸렸니, 장래가 없혀있니? 될상싶은 착상이면 공장에 한다는 기술자들이 머리를 젓겠니?》

원섭은 담배연기를 훌훌 내뿜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문턱을 사이에 두고앉은 일규는 큰아버지 무릎 어디에 눈길을 박은채 깎지 낀 두손만 어기적덜 뿐 대답이 없었다.

《글쎄 네 말을 믿어 어떤 경우에 성공한다고 하자. 그리고 설사 경제적효과성이 크고 발전설비생산에서 대단한 성과가 이룩된다고 한들 로동자인네가 순회처럼 기술자로 되는건 아니지 않니?》

《로동자건 기술자건 아무데서나 제앞에 맡겨진 일을 주인답게 착실하게 하면 되는거지 거기에 뭐...》

《어른들이 말하면 듣는 멋도 있어야지 아직도 네 주장이냐?》

그는 일규의 말머리를 몽청 잘라내며 짐짓 엄한 기상을 해보였다.

《일규야, 큰아버지는 물론이고 이젠 너희 어머니도 늙었다. 재산이나 돈이 크게 필요치 않는 우리 제도에서 물려줄게 뭐가 있느냐, 직업이나 똑똑한걸 마련해주는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원섭의 목소리는 진정에 겨웠다.

《큰아버지, 어려서부터 이날이때까지 저를 위 해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저마다 좋고 편안한 일자리만 찾아가간다면 생산은

누가하고 공장의 주인은 누가 되겠어요.》

《그건 네가 생활을 모르는 소리다. 사람이란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자기 직업만큼 사고하고 행동하기마련이다.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은 그 사람의 인격이야.》

원섭은 측은한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는 일규에게 다짐이라도 받아보려는듯 《알겠느냐?》 하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큰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존엄과 인격도 없는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것인데...》

그러면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은 누가 창조하고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영웅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뭐 뭐라구?》

갑자기 원섭의 두눈이 화등잔처럼 커지고 홀쭉한 볼편근육이 푸들거려 쌓이고 굳어진 원망과 격분이 가슴속에서 들쭉날쭉했지만 어쩐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동시에 일규에게 주려고 고이고이 간직했던 사랑의 결정체가 커다란 암벽에 부딪쳐 산산조각이나 흩어지는것만 같은 환각이 눈앞에 떠올라 온몸이 확확 달아올랐다.

《저는 배우기를 현실의 가장 어려운곳에 자신을 세울줄 알고 필요하다면 제한품 서슴없이 내뭉칠아는 사람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인간, 높은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다. 그렇게 잘 알아서 온 공장이 떠들썩하게 오작소동을 피우고 로동자인 네 인격이 그렇게도 높아 약속된 처녀에게 사랑도 못받느냐?덜돼먹은 너석, 정 루정질을 하고싶으면 후회하지말고 네 좋을대로 해라.》

네 두번다시 상관하지 않겠다.》

방안을 들었다놓는 난데없는 고향소리에 부엌에 있던 문씨가 뛰어들어오고 이윽도록 문가에서있던 경미가 오돌오돌 떨고있었으나 원섭에게는 아무것도 보아지 않았다.

그는 일규를 무섭게 노려보다 말고 열려져있던 옷방문을 쾅하니 닫아버렸다.

## 5

조속기직장 기능급수 작업시험을 성과적으로 치르고 사무실로 돌아온 원섭은 하얀 남방샤쯔 앞자락을 활활 젖히며 창문가에 다가섰다.

아침과 저녁녘엔 제법 서늘한 바람이 설렁거려 조금만 움직여도 등골과 턱밑으로 줄줄이 땀줄기를 받아내곤하는 8월의 무더위가 고개를 숙이는가부다 했건만 한낮의 폭양은 여전히 확확 했다.

그는 애어린 포도송이처럼 이마와 가슴언저리에 자자분히 맺힌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쓱쓱 문지르며 《원 날씨두》 하고 혀를 찼다.

시험날자가 다가올수록 지배인의 결심인 0.8급이 줄창 원섭이의 머리를 들쭉시켰지만 정작 딱치고보니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높은 성적을 내고있어 요즘은 아무리 걸어도 힘들줄을 몰랐다.

금방 치른 조속기직장시험도 그렇다. 알건대 기능공학교를 졸업한지 1년도 되나마나한 처녀가 5급이상의 기능공이 수행해야 할 시험문제를 받고 자신만만해 하는것도 보기 좋았지만 90분 기준시간을 20분이나 앞당겨 완성품을 떨구었다.

그래 원섭은 시뻘건 도장이 줄줄이 찍힌 합격시험지를 내주며 어떻게 되어 것처럼 빨리 가공했는가 물었다.

처녀는 기름물은 두손을 앞에 모두어잡고 한동안 갑자르더니

《올해가 대안의 사업체계가 나온지 30뉘인데 저도 무엇인가 공장을 위해 해놓는게 있어야 하지않습니까!》 하고 말했다.

일썹처럼 여물은 선반공처녀의 소박한 대답을 듣노라니 원섭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나머지 가슴이 다 흐뭇했다....

《다른 시험조들은 들어오지 않았소?》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 장아바이가 여기 쪽지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책상에 마주앉아 부지런히 글을 쓰고있던 은실이 비로소 생각이 난듯 주머니에서 네모지게 접은 종이장을 내보였다.

《뭔데?》

《급한 일이 제기되어 역전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젠장 급하면 급수시험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가? 고양이손도 빌려야 할 지금 형편에서...》

원섭은 은실의 손에서 쪽지편지를 시답지 않게 받아쥐더니 천천히 자기 책상으로 다가갔다.

《지도원동지, 오늘 아들녀석 이 기술협조단 성원으로 외국으로 떠나기때문에 배웅하러 역전에 나갔다 옵니다.》

(영?)

원섭은 어빙지게 치뜬 자기 눈도 믿어지지 않아 도수경을 꺼내 귀바퀴에 걸었다. 분명 처음에 본내용 그대로였다.

《장동무네 아들이라면 어느 직장 누구요?》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은실에게 물었다

《둘째아들인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는가?》

그는 천천히 도수경을 벗어 책상위에 놓고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몇년전에 단조직장에 배치된 아들을 두고 체통이 작은 애가 불앞에서 꽤 견디어내겠는가 걱정하던 장동무의 말이 생각났다.

그후 가열로에서의 소재유지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창의고안을 한다, 형단조의 고속도화합리안을 내놓았다 하는 그러루한 말들을 귀동냥해 들

은적은 있었다.

그런데 벌써 그애가 자라 기술협조단의 한 성원으로 외국으로 떠난다니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에 스르시 눈덕이 내리똥이였다.

하긴 원섭이가 기능양성사업을 시작할 때 작업공구의 종류와 사용방법도 모르던 책상물림의 학생들이 오늘은 공장의 믿음직한 기술진영으로 한 개 직장의 생산을 책임진 관리일군들로 자랐으니 말해 무엇하랴.

그는 20여년세월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해 지새운 밤과 견고결은 길들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만약 책상 한동통이에 고양이등을 하고 곱두룩이 앉아있는 전화기가 울지 않았으면 고즈넉한 정적속에 추억의 갈피를 벌컥벌컥 뒤집으며 언제까지나 앉아있고싶은 심정이였다.

《예, 양성실 최원섭이 전화합니다.》

《...》

《뭐 오늘이라구요?》

원섭은 급히 수화기를 바꾸어쥐며 기대고있던 상반신을 숙구웠다.

《...》

《시험관이 없어 기다린다?》

그는 사업수첩을 펴놓고 책장을 번지며 《가만, 내 좀 봅시다.》 하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했다. 《은실동무, 제관직장 시험을 누가 담당했소?》 《장아바이입니다.》

은실은 시험날자와 대상이름이 적혀있는 일정표를 원섭이앞에 옮겨놓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 현장에서 소동이 일어날수밖에...》

그는 수화기에 대고 시험관이 곧 도착한다고 이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수 없지, 동무와 내가 제관직장에 나가자구.》

그는 서둘러 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격석격석 제관직장으로 나갔다.

원섭이가 제관직장사무실에 들어섰을 때는 급수시험위원들이 모여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그는 모두걸이로 늦어 미안하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곧추 직장장이 권하는 의자에 가앉았다.

《가만, 기술지도원동무가 안보인다.》

원섭은 사무실안을 둘러보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벌써 현장에 나갔습니다.》

직장장이 보기 좋은 동실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대답했다.

《그럼 지체할것 없이 곧 시작합니다. 공시된 응시자 전원이 다 참가하겠지요.》 그는 책상우에 있던 사업수첩을 거드랑이에 끼고 일어섰다.

《한명이 더 참가합니다.》

《더 참가하다니. 누구요?》

《최일규라고 제대군인이지요.》

《직장장동무! 그 동무야 이미전에 올라온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소!》

원섭은 아직도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웃기만 하는 직장장을 민망스럽게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바이두 참, 이러나저러나간에 조카인데 너무 혹독하시군요.》

《공장일인데 조카가 문제요? 그것도 한번에 두 급씩이나 올려주겠다니 말이 되오?》

그는 더 가타부타할게 없다는듯 《자 어서 시험장으로 나갑시다.》 하고 말했다.

《<목음식조립방법>으로 석달이상 걸리던 제품을 절반으로 단축한 동무를 응시시키지 않으면 누구를 시키겠소?》

《착상으로는 하늘의 별도 내려다앉힐수 있지요.》

원섭은 제먼저 사무실문으로 다가갔다.

《일규는 자기 착상을 현실에 도입하여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뭐요? 제품을 완성하다니...》

원섭은 문고리를 쥐다 말고 직장장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직장장동무, 그랜 용접의 응력과 세기도 모르는 신입생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문제는 우리 기술지도원이 밤을 새워가며 연구완성했지요. 이를테면 일규동무는 《복》을 치고 순희동무 《팽파리》를 치면서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셈입니다.》

《뭐라구?...》

원섭은 갑자기 두귀가 웅하니 울더니 앞에 앉은 직장장의 모습도 흐리마리해져 뭐가 뭔지 분간이 가질 않았다.

일규가 기어코 목음식조립방법을 성공시켰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그렇게도 반대했다는 순희가 옆에서 도우면서 술한 밤을 지새웠다는것도 믿을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다잡은다음 현장으로 나갔다.

신통히 달팽이모양의 수백톤에 달하는 우람한 회리실이 완전한 자기 자태를 갖추고 현지출하를 기다려 묵묵히 앉아있었다.

원섭은 언젠가 술한 사람이 모여 오작으로 못쓰게 된 각을 떠내던 부위부터 찾아보았다.

앞서 개별적으로 조립한것에 비해 곡선미가 일매질뿐아니라 용접부위 역시 매끈했다.

(직장장 말이 사실은 사실이였구나.)

그는 사실을 확인해보는 순간 금시 그 누가 뒤통수라도 후려친듯 딥고선 두다리가 후들거리며 눈앞이 어질어질해왔다.

한번 먹은 결심 끝을 보고야마는 일규의 성미를 알면서도 된욕을 퍼부던 며칠전 저녁일이 삼삼히 떠올라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리고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의 어진 가슴에



탕탕 도끼입질을 해대는 일규를 원망하여 눈물흘리면서도 밤을 새우며 용접의 응력과 세기를 해결했다는 순희를 생각하니 가슴이 알알했다. 그것은 조카의 직업과 장래를 두고 그토록 애모뿐 마음을 달래우던 원섭의 가슴속에 처음으로 찾아든 싱그럽고 뿌듯한 감정이었다.

그는 자기의 존재가치를 자기 일터에서 창조를 위한 투쟁을 통해 마련해가는 그들을 보니 더욱더 양성사업이라는 조용한 일터에서 세척화된 울타리를 맴돌면서도 공장과 사회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에 대한 자각지심에 머리가 숙여졌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해 투쟁하면서도 서로 돕는것이 이시대 청년들의 사랑관, 인생관인가싶다. 그렇다면 우리 일규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는 3층살림집보다 더 크고 높은 회리실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자네도 성공의 탑을 끌어보고싶어 나왔나?》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머리를 드니 뜻밖에도 시험소 부소장이었다.

《여하튼 입자 술은 적게 마셔도 우리 사위감 하나는 잘 키웠소.》

그는 무슨 계산서 같은 용지를 원섭이앞에 내흔들며 호탕한 웃음을 더치었다.

《그건 대체 뭐가?》

《<묶음식조립방법>에 대한 시편통지서네. 백프로 합격이야. 그래 내가 직접 축하도 할 겸 해서 나왔는데 어디 사람이 보여야지.》

부소장은 누구를 찾는지 작업장 이구석저구석을 기웃거렸다.

《누구를 찾아보나?》

《누군 누구겠나. 주인들이지. 옳지 저기 애들

이있구만. 어서 가세나.》

그는 손을 들어 사람들이 모여있는곳을 가리켜 보이고는 제먼저 앞서갔다.

거기에는 일규와 순희가 무슨 도면을 펴놓고 머리를 마주하고있었다.

열성스레 손을 내흔들던 일규가 어떤 우스운 말을 했는지 파란 나일론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순희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웃는다.

창조를 위한 또하나의 새롭고 엉뚱한 착상을 놓고 서로의 몫을 나누는것 같다. 아니 현실의 가장 어려운곳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며 한생을 빛나게 살자고 이야기하는것 같았다.

그것은 생산자이건 기술자이건 다같이 공장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참된 주인들의 모습이었다.

주인!

부모의 사랑과 동정보다 사회와 집단의 믿음을 더 귀중히 여기고 아무런 가식과 꾸밈도 없이 자기 존재가치를 서로 돕고 이끄는 창조적로력의 대가로만 치를줄 아는 사람들!

돈이나 재산으로 살수 없고 명예나 직위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인간의 존엄인 탓에 제품의 주인, 생산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살고있는 저들이야말로 진정 높은 인격의 소유자이다.

원섭은 믿어의심치 않았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 주권의 주인으로 살고있기에 우리 생활은 이리도 아름답고 우리 사회의 인간들의 인격은 그렇게도 높은것이 아니겠는가.

원섭은 가슴가득 차오르는 벅찬 감정으로 하여 달려가 일규와 순희를 한품에 덥석 안아주고싶었고 자랑하고싶었다.

그는 정겨운 눈길로 오래동안 그들을 바라보다 급수시험장을 향해 힘있게 걸음을 옮겼다.

## 눈 내리는 대안의 구내길에서

리수덕

무릇 사람들을 격동시킨 위대한 력사와 련관된 것은 그 무엇이나 아름다우며 그것은 때없이 깊은 상념을 자아내기가 일쑤다.

비록 그것이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한줄기의 구내길이나 공장건물, 지어는 철따라 내리는 눈비라 해도 거기에 비범한 자연과 못잇을 추억이 비껴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느 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나는 영광의 땅 대안을 찾을적마다 나지막한 언덕우에 자리잡은 단층집 당위원회청사며 양지바른 등성이에 돋보이게 솟은 로동자합숙 그리고 대동강기슭을 따라 우람히 일떠선 공장건물 등을 다감한 생각속에 눈여겨 살피군한다.

지금도 나는 바로 얼마전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 갔다가 이 공장의 《산 력사》라고 할수 있는 전기분공장의 (그전엔 대안전기공장이었다.) 나이지숙한 한 로동자와 함께 구내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느낀 감회를 생생히 간직하고있다.

…그날따라 눈이 내렸다.

엷디엷은 은종이쫄각같은 함박눈송이들이 금시 사르락소리라도 낼듯 소복이 내려 쌓이고있었다.

해마다 오는 겨울이요, 겨울이면 의례껏 보게 되는 눈이언만 12월의 눈내리는 공장구내길을 걷는 나의 가슴은 류다른 정서로 후더워왔다.

한것은 잊지 못할 1961년 12월, 그 력사의 나날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함박눈을 맞으시며 이곳 대안땅에 몸소 오시여 로동자합숙이며 사력마을, 직장과 직장들을 일일이 보살피시고 10여일간이나 공장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과정에 공산주의적기업관리방법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마련해주셨기때문이었다.

바로 그 한해전인 1960년 2월에는 솟눈길을 밟으시며 력사의 땅 청산리를 찾으시여 소박한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는 나날에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였고 그 이듬해엔 대안의 눈내리는 구내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천리해안의 예지로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를 명철하게 밝히신 아버지수령님!

그리고보면 하염없이 내리는 천만송이의 눈송

이들에조차 그 어떤 의미가 깃들어있는듯싶었다.

혁명의 먼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언제나 인민의 힘과 지혜를 굳게 믿으시고 늘 인민들속에 계시며 승리의 지름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장장수만리 걷고 걸으시는 성스러운 그 자욱이 바로 이곳 대안의 구내길에도 불멸의 뜻으로 아로새겨져있음을 생각하니 내짚는 나의 발걸음도 삼가해지는데것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아주셨을 그때만 해도 이 구내길은 소달구지 두대가 어기기도 배좁을 지경이었다우. 그런데 지금은 보슈. 노상 비행기활주로 같다니까요…》

나와 같이 걸던 머리희스한 로동자아바이가 하는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오늘 전기분공장이 자리잡고있는 그곳에 《전기제철주식회사》의 조잡한 건물이 틀고앉아있던 일제때부터 소년로동자로 고역을 치러온 경력을 가진 그였다. 그는 해방후 전기공장으로 발족한 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5마력전동기와 10크바짜리 변압기를 생산한것을 큰 경사로 여겼던 일을 허거운 웃음속에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대안땅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있소?

대형수력발전기와 특대형변압기를 뿡뿡 생산해 내구, 어떤 대상설비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내고있으니 이게 대안체계의 위력이 아니고서야 상상인들 하겠소.》

아바이의 어조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꽃피난 대안땅에서 살며 일하는 로동계급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이 가르치심을 되새겨보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격동적인 생활단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이곳에 나와 현실체험을 하는 나날에 내가 직접 체험했거나 목격한 인상적인 화폭들이였다.

언제였던가.

태천발전소에 설치할 대형수력발전기를 최단기간안에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야 할 어려운 임무가 제기되었을 때, 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직장과 작업반에 나가

용선로와 기대앞에서 노동자들과 흥금을 터놓고 전투임무의 수행방도를 의논하던 생동한 모습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에 중량상으로 수천톤이나 되고 그 종류가 무려 수백종에 달하는 대상설비를 긴급히 생산보장해야 할 벽찬 과제가 떨어졌을 때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로 온 기업소가 하나의 구렁에 따라 설계원도, 기대공도, 자재운반공도, 후방일군도 치차처럼 맞물려 일감을 축내던 그 미더운 얼굴들. 그뿐이라. 그 어느날, 노동자세대들에 공급할 간장, 된장의 질문제를 놓고 후방경리부문 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열린 기업소당위원회확대회의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던가.

공산주의적기업관리체계를 꽃피워가는 이 보람찬 나날속에 대안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당과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이라면 그 어떤 대상설비들과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도 만들어내어 나라의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에서 서해갑문의 방대한 대상설비를 생산보장하라면 그것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기어이 해냈고 대화학공업기지건설에 필요한 엄청난 대상설비도 제때에 만들어보냈으며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에서 요구하는 설비들도 어김없이 생산보장해주고있다. 이것은 곧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그 생활력을 그대로 립증해주는것이다.

끝없는 상념속에 눈내리는 대안의 구내길을 걷는 내걸으로 육중한 대상설비들을 추레라에 실은 대형자동차들이 지축을 울리며 설새없이 어느 건설장으로가 떠나갔다.

그런가 하면 저쪽 공장정문쪽에선 먼길을 달려오느라 눈이 수북이 쌓인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연줄연줄 마주왔다.

《난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이 구내길을 걷지만 어쩐지 나한테는 이 길이 그저 우리 공장구내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우. 이 길로는 조국땅 각곳에서, 그리고 또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별의별 자동차들이 다 찾아오니 말이우다.》

눈발속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니 하는 자동차행렬을 점도록 바라보던 아바이가 하는 말이였다.

레사롭게 하는 말이였으나 그속엔 그저 스쳐들을수 없는 깊은 뜻이 어려있었다.

진정 빛나는 예지로 다져지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넓어진 대안의 구내길!

이 길이 조국땅우에 수천만줄기로 잇닿아있기에 우리 나라는 그 어디 가나 대안의 사업체계가 꽃피나 일터마다 초소마다 혁신의 불길이 일고 도처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나 주체조국의 위용을 자랑하는것이 아닌가!

한때 작은 손수레에 실어도 오히려 자리가 남을 5마력전동기와 10크바변압기를 제손으로 만들어낸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던 이 대안땅에 지금은 대형발전기와 우람찬 대상설비들을 실은 대형자동차들이 드넓은 공장구내길이 좁다하게 달리고 또 달리고있는것이다.

이 성과, 이런 비약을 어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당이 빛내여가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참시도 떼어놓고 생각할수 있으랴.

함박눈은 계속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상에 선포하신 력사의 집인 소박한 문화회관지붕우에도, 사랑의 손길 뜨겁게 어려있는 직장과 직장들, 녀성합숙의 창가에도 흰눈은 조용히 내렸다.

일터에서, 사택마을과 합숙창가에서 류다른 의미를 띠고 내리는 12월의 함박눈송이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가슴속에도 못잊을 추억을 부르며 마음의 눈송이들이 씩없이 내리고있으리라.

활주로처럼 시원히 뻗은 공장구내길 한끝에 서서 공장전경을 이윽히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다감한 생각에 젖어들었다.

나에겐 이고장에 내리는 소담한 눈송이들이 마치 대안체계가 꽃피난 이 력사의 땅을 수놓는 축복의 꽃보라인듯싶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위대한 수령님 안겨주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비약의 나래로 활짝 펼치고 대안이여 길이 번영하라!

# 사랑의 기계소리 외 1편

장현수

낮이나 밤이나  
쉽없이 울리는 기계소리건만  
내 언제나  
무심히 들을수 없어라

이 아침도 새겨들으니  
오매에도 그리던 지도자동지  
문득 기대앞에 찾아오셨던  
그날 그 아침이  
마음에 밝아오네

그러면  
어디 한번 돌려보라고 정겹게 이르시며  
내 일숨씨 보아주신 그날  
그이께서 뜻밖에 발판에 오르시여  
몸소 기대를 잡으시던  
그 영상 뜨겁게 안겨오네

기름이 묻는다고  
그리도 안타까이 말씀 올렸건만  
소탈하게 웃으시며 기대를 돌리시던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날에 올려주신 기계소리여  
찾아주신것만도 더없는 영광인데  
어찌하여 손에 기름까지 묻히시며  
선반을 돌리고 돌리셨던가

로동을 즐기시는 천품이어서  
즐거운 그 한때를 보내셨던가  
쇠밥을 날리시며  
평범한 선반공이 오르는 발판의 한뼘높이를  
영광의 절정으로 빛내여주신  
그날의 그 영상이여!

은혜로워라  
로동의 신성함과 그 영예로움  
로동하는 사람의 귀중함과  
그 보배로움을  
믿음과 사랑의 전설로 전해주는  
아, 그날의 기계소리여!

## 문학소조의 밤

취미 있어서만 모인것이 아니라오  
주형공청년들 선반공처녀들  
하루일 마치고 돌아가는 퇴근길에  
문학소조모임에 참가한것은  
소질 있어서만 모인것은 더욱 아니라오  
공훈많은 설계원도 머리 흰 아바이도  
창조의 하루해 저무는 저녁에  
한편씩 작품을 써들고 온것은

아니 쓸래야 안쓸수 없는  
절절한 사연들이 가슴마다 서려있어  
가슴이 후련토록 터치여놓으려고  
마음 담아 한편씩 품고 왔거니

그것은 그대로 뜨거운 마음이라오  
한결음을 옮겨도 그 사랑 뜨겁고  
한순간을 더듬어도 그 은정 목메여  
그대로 터쳐놓은 주형공의 서정시는  
구절구절 이글대는 용선로의 불이라오

그것은 그대로 꽃이라오

친애하는 그이 다시 오실것만 같아  
기대앞을 잠시도 못뜨는 처녀  
그런 처녀 내세운 선반공의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이 아름다운 꽃이라오

향기에 취해서 가기를 잊고  
열정에 불타며 시간을 잊고  
참신한 정서의 한밤  
문학소조의 밤은 깊어가는데

오, 그것만이 아니라오  
백지우에 흰머리 숙이고 앉아  
한줄도 쓰지 못한채  
격정으로 붉어진 용해공아바이를 보오

경사로운 2월의 그날 아침에  
사랑의 선물 받아안던 그때이런듯  
눈가에 맺히는 더운 눈물  
아, 저런 진정 누구나 터치지 않고는 못견더  
날마다 모여있는 밤이라오

## 그날에 서보라 외1편

박 철

하늘가엔 《범민련》의 기발  
춤추며 날리고  
땅우엔 분단의 장벽  
봄맞은 얼음장처럼 녹아내릴 그날  
그날에 사람들아 서보라

너와 나 하나 되어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이 땅에 우적 안아온 통일  
아아- 그날에  
사람들아 서보라

그러면... 그대는 볼게다  
하늘이 웃는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온 저 하늘이  
찢기였던 아픔을 가시고  
그대 머리우에서 기쁨에 웃는것을

분명 그대는 들을게다  
땅이 속삭이는 소리  
그리도 오래 끊어졌던 허리를 잇고  
한가슴 들먹이며  
그대 품에 안겨 흐느끼는 그 소리를

할머니께로! 할아버지께로!  
들뛰며 웨쳐대는 아이들의 목소리

가슴을 울려 가슴을 흔들어  
눈물이 불쑥 솟을게다

웃는 하늘이 비낀 술도 부리라  
이날을 못보고간  
늙은이들의 경혼을 찾아  
죄없는 마음으로 불려도 보리라  
이날을 못보고간 젊은 열사들의 그 이름

아, 그 언제 어디서 안아보랴  
그런 땅  
그런 하늘  
아이들의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통일된 날 통일된 이 땅 아니고선

《범민련》의 기치아래  
힘있어 힘을 낸것이  
돈있어 돈을 낸것이  
지식있어 지식을 낸것이  
그대에겐 통일된 조국이 표창으로 안겨지려니

아아- 그날에 서보라!  
통일된 그날에 사람들아 서보라!  
그러면 《범민련》의 기발아래 뭉쳐서는 길  
험한 가시길도 주저없으리  
침침준령도 두렵없으리

## 심장이 설레이는 강이어

날마다 걸어도  
날마다 아름다움에 취하누나  
날마다 걸으며 속삭여도  
날마다 뜨거운 이야기는  
가슴에 남는구나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조화로운가  
푸른 물과 화려한 기슭  
평범한 시민인 내가 향유한다기엔  
너무나도 값높이 가꾸어진 대동강의 풍치여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춘다  
푸르른 버들아래  
함함이 피어웃는 꽃송이  
이 저녁 나를 위해  
그 뉘의 다심한 손길이 철을 당겼느냐

저것 봐라  
강건너에 새롭게 일떠선 대학교사  
만장을 올린 웅장한 자태가  
또하나 새로운 행복으로

강물우에 비졌구나

온 하루 나를 불러 문을 열었던  
극장이여 학습당이여  
너의 모습 어린 강물을 바라보니  
강물도 나처럼 사색을 안은듯싶구나  
강물도 나처럼 노래를 안은듯싶구나

때마침 지나가는 하얀 유람선  
그 서슬에 발밑에 부서지는 맑은 물결  
너는 내 가는 길에 깔아주는 보석이다  
하늘가에 끝없이 솟구치는 분수  
너는 내 머리우에 뿌려주는 구슬이다

아 근로하는 평범한 인간들을 위해  
혁명에 천만날을 바쳐

우리 당이 대동강반에 펼친  
꽃의 향기로움 불빛의 화려함  
억만 물보라의 신비경이여

날마다 걸어도 아름다움은 새로와  
날마다 이야기해도 이야기는 뜨거워  
가슴엔 가슴엔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  
강이 되어 굽이치는 대동강이여

이 기슭 이 평양  
내 한생토록 걸어도  
한생토록 심장은 끝없이 설레이리  
새롭게 안겨지는 아름다움을 안고  
새롭게 실리는 고마움을 안고

## 구호판이 달린다

한용길

총포성이 없는 격전장을 보려거든  
여기로 오라  
시대의 벽찬 숨결소리를 들으려거든  
여기로 오라

걸음새도 하나같고  
거센 호흡도 하나같이 들리는  
통일거리  
중심도로 건설장

자리가 비좁아서 아니라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네  
온몸이 그대로 구호가 되고싶어  
온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싶어

땀에 젖은 앞가슴에 구호를 붙이고  
등에 진 질통에 구호를 붙이고  
달리는 차들보다 앞서 뛰며  
구호판이 달린다  
구호판이 웨친다  
조국!  
통일!

## 두 녀인

남상혁(총련)

그림 김원래

### (전호에서 계속)

특별실 앞에는 소독약을 얹어놓았던 삼발이가 없어지었다.

거의 습관처럼 문앞에 다가오면서 량손을 내밀던 정순은 그걸 확인하고 이름할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방금 두 남정을 보고 언짢던 기분도 일시에 가뭇없이 사라졌다.

정순은 기뻐하고있을 민옥을 빨리 보고싶어서 손기척을 하려고 손을 들었다.

그러는데 안에서 느닷없이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끊어졌다가는 다시 쥐여짜는듯이 새어나왔다.

정순은 들었던 손을 움츠리었다. 문을 열고 들어갈수도, 그렇다고 돌아갈수도 없어 그자리에 우뚝 서있기만 하였다. 들어가자니 하도 서럽게우는 민옥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몰랐고 떠나자니 걱정이 되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정순은 민옥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였다.

한참뒤에야 울음소리가 멎었다.

정순은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다시 두드려서야 들어오라는 말이 들려왔다.

정순은 손잡이를 들어 문을 조용히 밀었다.

방안은 어슬렁하였다. 창밖은 벌써 어둑어둑한데 민옥은 불도 켜지 않고 침대우에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아이고, 불도 켜지 않고 뭘하고있어요.》

정순은 우정 밝게 소리를 지르며 전기불을 켜다.

민옥은 고개를 돌려 몰래 수건으로 눈언저리를 닦았다. 그리고는 환하게 밝아진 형광등이 눈부신듯 두어번 깜빡이더니 《언니》 하고 정찬소리로 불렀다.

《문앞에 있었던 소독약이 없어졌더구만. 퇴원할날도 멀지 않겠구나.》

《예...》

민옥은 시답잖게 대답하였다.

《아니, 병을 고치고 나가는데 기쁘지 않아?》

《...마음이 편해야 기쁘지예...》

민옥은 눈가물을 내리깔고 가라앉은 소리를 했다. 그리고는 땅이 끼지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순의 머리에 아까 복도에서 본 외삼촌과 남편이 피똥 지났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민옥이가 이렇

게도 슬퍼할가.)

정순은 그 사연을 물어보려고 목구멍까지 말이 나왔으나 가까스로 그걸 삼켰다. 복도에서 그들을 던지시 옛본게 들키는것 같아 멧적었고 민옥이 흐느끼는사이 밖에서 기다렸다는게 알려지는것도 무언지 열적었다.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순이 번민에 모대기는 민옥을 지켜보고있는데 민옥이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물기를 머금은 눈에 간절한 빛을 담아 정순이를 지켜보았다.

《언니, 나 우짤꼬?》

정순은 긴장하였다. 이 한달사이 거의 매일처럼 방을 드나들었으나 민옥은 자신의 일신상 문제를 놓고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퇴원을 며칠 앞두고 곤경에 빠진 민옥이 자기에게 무엇을 고백하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정순은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범하게 말을 받았다.

《새삼스레 어찌기는 어째요.》

민옥은 말을 꺼내놓으려다가도 한참을 갑자르다가 입을 열었다.

《실은요. 아까 외삼촌하고 즈까모도가 왔다갔어.》

《...》

정순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있었으나 온 정신을 모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언니, 이 말은 누구한테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는 또 미칠것 같아서...》

또 침묵이 흘렀다.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정순이 깨뜨렸다.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 놀래우지 말고 그냥 보통으로 이야기해요.》

정순이 부러 익살스레 후 하고 한숨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고 민옥이도 좀 긴장이 풀렸는지 입가에 엷은 미소까지 지었다.

《일본에 올 때 당국에서 하는 말이 일본서 조선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하라캐요.

외삼촌집에서도 말각 일본말 안습니끼.

처음 언니가 나가시마선생하고 같이 여기 왔을 때는 참말로 깜짝 놀랐어요.》

《호호호 놀라긴, 내가 민옥이 잡아먹으라 왔나?》

정순의 익살에 민옥의 눈에 더욱 생기가 돌았다. 눈꼬리가 길게 찌여진 그의 눈은 내리팔 때

는 가늘어지는데 남을 치어다볼 때는 한결 커진다. 호수와 같이 맑고 큰 그눈에 잔잔한 웃음을 담은채 민옥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아니, 당국에서 그 말을 했다고만 놀란게 아니지요. 일본 와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갑갑하고 적적하게 지내다가 언니를 만났으니 반갑고 고마워서 ...

그 일(자살미수) 까지 저질러놓은 뒤라서 더 충격이 컸었지예.》

《하, 이번엔 추어올리나.》

《아니라카는데. 처음엔 그렇더라도 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잠옷보내주고 미역국이랑 우리반찬이랑 갖다주고 할 때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정말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정순을 보던 그의 두눈에 금시 가랑가랑 이슬이 고이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었다. 그리고는 급히 외면하며 수건으로 눈언저리를 닦았다.

정순이도 코마루가 쫓해졌다. 병원에 실려와서도 계속 죽으려고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그것도 안되자 음식을 거절하여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던 민옥은 얼마나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고있었던가. 자신이 한 자그마한 소행이 이 불우한 녀인에게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었다면 그이상 기쁜 일은 없는것이였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며칠이면 퇴원하게 된다는 이 시각 방금전에 문밖에서 들은 민옥의 오열은 웬일인가?

《언니, 아까 외삼촌하고 즈까모도가 왔다갔어요.》

《!...》

《언니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전 외삼촌의 중매로.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 그제 저를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려놓았지요.》

《...》

《그런데 그 죽도록 싫은 즈까모도가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또 같이 살자가능게 아녜요. 외삼촌까지 그럴수밖에 더 있니 하면서 말을 보태고. ...

전 다신 거긴 돌아가기 싫어요.》

민옥은 마지막말을 웨치다싶이 하고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두눈에서는 결연한 빛이 번뜩이였다.

민옥의 단호한 태도앞에 정순은 아무 말을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지금 자살해서까지 도망치려던 즈까모도한테 뭇하러 왔나 하는 의문과 함께 조선의 한 녀인이 일본남성한테 짓밟혔다는 사실에 대한 의분이 착잡하게 얹혀있었다.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싫은 사람한테 뭇하러 왔나!》

정순이 격해하며 말을 했다. 그것은 민옥을 질

책하는듯도 하였고 가슴에 찬 울분을 토해내는듯도 하였다 .

민옥의 얼굴에서 금시 결연한 태도가 사라지고 점차 자조적인 빛이 어렸다.

《제가 멍텅구리였네. 서울에 있는게 고통스러워서 일본으로 도망쳐오다싶이 했는데...》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아픈 추억에 민옥은 몸을 비틀며 자신을 모질게 채찍질하였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다감한 정순은 그의 결으로 다가가서는 손을 꼭 모아잡았다.

자신이 한 말을 듣고 마음의 진통을 잡느라고 모대기는 그를 보기가 딱했던것이다.

정순이 잡아준 손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의 온기는 회오리치던 민옥의 가슴을 점차 진정시켜주었다.

이 순간 민옥에게 있어서 정순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였다. 모든것을 믿지 못하게 되어 죽음의 심연을 헤매던 자기에게 진정 혈육의 정으로 대해준 정순은 둘도 없는 《언니》였다.

퇴원후의 자신의 처신을 놓고도 이제 정순밖에 의논할데가 없는 민옥이였다.

《언니, 제 말 좀 들어주이소예.》

민옥은 가슴속에 서리서리 맺힌 추억들을 더듬으며 죄다 더놓고 이야기하고싶었다. 그리고 무슨말이든 정순의 충고를 듣고싶었다.

민옥은 일본에 오기전에 서울에 살았었다.

본시 고향은 경상남도 창녕인데 다섯형제의 만이였던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직업을 알선해주는 거간군을 따라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구로공단의 녀공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결이 고왔다. 아무리 거친 일을 하더라도 백자와 같이 매끈한 살결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충분하였다. 그러다가 공장감독의 알선으로 서울 무교동의 대중식당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었던것이다.

민옥은 대번에 손님들의 인기를 끌었다. 날씬한 몸매에 백옥같이 하얀 얼굴, 긴 눈썹아래 호수와 같이 맑은 눈동자는 그가 중학교 졸업이고 녀공을 했었다는걸 믿기 어려운 정도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였다.

민옥은 많은 청혼자들가운데서 남대문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한다는 집의 셋째아들을 평생의 동반자로 골랐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는 민옥에게 많은것을 배워주었고 둘이서 생선가게도 힘껏 도왔다.

첫딸을 본것은 이태후였다. 이름을 선아라고 지었다. 그 시절은 참으로 행복하였다.

그런데 한창 번창하던 생선가게가 청천벽력같이 도산하고말았던것이다. 막대한 빚을 졌던 그의 시가집사람들은 서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옥신각신하다가 끝내는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였



다.

그때부터 민옥은 남대문시장의 대포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작은 가게라도 내려고 대학동창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금을 모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민옥의 어린 어깨에 세식구의 호구지책이 걸려왔다. 그러나 민옥은 그것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초조해하는 남편을 위로하며 꾹꾹이 이겨내었다.

그런데 함정은 거기에 있었다. 급료를 내줄 때마다 고생이 많겠다고 얼마씩 더 내주던 대포집 주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민옥을 겁탈하려고 덮쳐들었다. 근근히 빠져나오긴 했으나 소문은 남대문시장에 파다하게 퍼졌다.

가뜩이나 초조해하던 남편은 안혜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오해하여 민옥을 엄하게 문초하더니 마지막에는 미친것처럼 때리고 차고 하였다.

민옥은 변명도 않고 꾹 참았다. 날이 지나면 제가 입은 루명도 벗겨지겠지 하고.

그러나 사태는 더욱 험악하게 변해갔다.

그날부터 몇달이 지난 어느날 시가집의 가족회의에서 민옥은 끝내 알몸으로 쫓겨나고말았다. 유부녀가 화냥질을 했다는 오명을 쓰고.

알몸으로 서울바닥에 쫓겨난것도, 화냥년이라는 사람들의 눈총도 참을수 있었다. 민옥에게 있어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것은 자신의 분신인 딸 선아까지 빼앗긴것이였다.

민옥은 그후에도 여러번 남편을 찾아가서 딸만은 자기가 기를터이니 맡겨달라고 했으나 그때마다 문전퇴박을 당했으며 그 집마저도 얼마후에는 행적을 감추고말았다. 민옥은 환장이 되다싶이 그럴만한 사람들을 찾아가 수소문하였으나 행처를 대주기는커녕 쌀쌀한 눈총만을 맞고 되돌아와야 했다. 거의나 미친 상태로 몇달을 지냈다. 인생에 절망하여 한강물에 빠져죽을 생각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를 부르는 선아의 목소리가 제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살아야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이리하여 이를 악물고 살아가고있을 때 고향에서 딸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찾아왔다.

수척해진 딸을 보고 아버지는 고향에 가서 같이 살자는것이였다.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얹혀사는 신세에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딸의 정상을 그냥 볼수 없어 창녕의 고향집에서 같이 살자는것이였다.

그러나 고향집도 민옥에게 마음의 안락을 주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소문은 고향에도 알려져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살림에 자기가 무거운 짐이되는것 같아 동생부부와 조카들에게 미안해서 안되였다.

결국 1년도 채 못되어 다시 서울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온것은 이태후였다. 그때 아버지는 일본에서 토목회사를 경영하는 외

삼촌하고 같이 왔다.

외삼촌은 남조선에 올 때마다 민옥의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조카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었다. 그 외삼촌이 민옥의 사연을 듣고 자기 회사에 좋은 총각이 있으니 재혼하라고 부추겼다. 일본사람이기는 하나 자기 회사에 15년이나 있었으니 남조선사람하고 생판 다름이 없다는것, 키가 작은게 난점이기는 하나 온순하고 부지런한 좋은 총각이라는것을 이야기하며 민옥에게 재혼을 권유하였다.

보아하니 아버지도 반대는 아닌것 같았다. 망설이기는 했으나 민옥은 결국 일본에 오게 되었다.

왼쪽 눈이 없기는 하나 외삼촌집에서 15년동안 있었고 풍습과 말이 다르나 외삼촌이 곁에 있어 준다니 저으기 안심이 되었다. 공부깨나 한 녀자들이 일본에 가서 돈 벌어보겠다 하는 말을 자주 들었고 민옥이자신도 한때 일본어강습소를 다녀봤으니 간단한 말은 할수 있다는 안심도 있었다.

아니 그보다도 찾지 못하는 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미칠것 같아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 한번 글러진 인생인데 어떻게든지 돼라지 하는 자포자기의 생각도 합쳐져서 어디 먼데가면 그 울가미에서 빠져나갈수 있겠지 하는 기대도 있어 왔다는게 진심이였었다.

그러나 이것이 헤여날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첫걸음이었다는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살림집은 회사에서 자동차로 30분이나 떨어진 등시에 잡았다. 일본에 와서 한 열흘쯤은 외삼촌 내외가 자주 왔었는데 그뒤는 일이 바쁘다면서 거의 오지 않았다.

즈까모도는 일은 부지런히 다녔다. 처음 두어달은 장보러도 같이 가주고 외식에도 데려다주었다. 밤에는 일본어책을 가져와서는 말도 가르쳐주고 일상회화에서 틀린 말도 고쳐도 주었다.

그러던 즈까무도가 표면한것은 저녁밥상에 시래기국을 차렸을 때였다. 그날 장보러 갔을 때 우연히 발견한 배추잎을 얻어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래기국을 만들어 내였던것이다.

목간에서 나와 밥상에 앉은 즈까모도는 그걸 보더니 수저를 펴개치며 《이 잔빵을 먹이려는가 이놈의 쵸센징가》하며 내뱉었다. 영문을 모르고 오돌오돌 떠는 민옥을 보고 《어서 치우지 못해》하고 불같은 호령을 내렸다. 민옥이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차리지못해 머뭇거리자 급기야 밥상을 뒤집어엎고말았다.

사기그릇이 깨지고 밥이며 반찬이며가 사방에 흩어졌다. 즈까모도는 그것을 발길로 차고 짓밟개더니 문을 광하고 열어제끼며 나가버렸다.

민옥은 냇나간 사람처럼 그자리에 서있었다.

그 일이 있는 뒤로부터 즈까모도는 찍하면 마

늘내가 난다느니 맵다느니 트집을 잡았다. 지어 움직이지 않는 왼쪽눈을 흘기면서 민옥의 몸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상을 찡그려붙였다.

그 자는 늘 자기는 반병어리를 데리고 산다면서 민옥의 야릇한 일본말 탁음발음을 흉내를 내면서 놀리기도 하였다. 그래도 성차지 않을때는 폭력을 썼고 그때문에 밤중에 내의바람으로 쫓겨난 일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잠자리에 들면 민옥의 몸을 요구하였다. 온몸을 주물러대는 즈까모도가 민옥은 징그러워 못견디었다. 그래서 전신을 뻗뻗이 하고있으면 이번에는 인형을 사다놓고 있는게 아니라고 웨치며 민옥을 구박하였다.

그래놓고 뿔아떨어진 즈까모도를 민옥은 몇번이고 찢러죽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는지 모른다.

이 외딴곳에서 의지할곳은 외삼촌밖에 없었다. 그러나 외삼촌은 부부생활은 의례히 그런게라고 상대도 안해주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즈까모도의 왼쪽눈은 외삼촌의 큰아들과 짝을 지어 토목일을 갔다가 아들이 강패하고 싸움을 하는 바람에 말리려다 얻어맞아 그리되었다는것이였다.

원래 땅딸보인 그인데다 눈까지 몽개여졌으니 혼치가 있을덕이 없었다. 그러나 일은 억척스레 잘하는 그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그래 일년에 한두번을 필리핀, 타이 등의 사창굴을 다니며 성욕을 달래고있는줄 알면서도 그때문에 성병을 앓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민옥을 붙였던것이다.

민옥은 모든걸 믿지 못하게 되었다. 같이 살게 되어 반년도 안가서 즈까모도는 종종 집을 비우게 되었고 민옥은 억울한 자기 운명을 한탄하면서 발작적으로 손목을 끊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런 즈까모도하고 어째 또 같이 살겠능교. 아까 외삼촌하고 같이 왔을 때 다시는 안그려겠다고 했지만 혹시 그렇다 해도 전 죽어도 거긴 가기 싫어요.》

민옥은 단숨에 내리엎었다. 마치 물목이 터진 것처럼 정순이앞에 털어놓았다. 설음이 북받쳐 울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몸부림치기도 하며 정순에게 하소연하였다.

정순이도 몇번 울었는지 모른다. 처음엔 다소곳이 앉아 듣고있던 그도 자꾸만 울먹이는 민옥의 무릎을 흔들며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다가 끝내는 평평 눈물까지 쏟았다. 순애의 말을 듣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더랬는데 진작 민옥의 입을 통하여 딸 선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는 참지 못하고 민옥이를 부둥켜안고 소리내어 울고말았다.

기구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처참한 민옥의 인

생행로앞에서 정순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가슴속에 맴돌이치던 위로의 말이 이 순간에는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았을 때 정순은 그저 민옥이와 함께 울수밖에는 방도가 없었던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고향 갈수도 없고.

언니, 나 우짤꼬?》

이윽하여 좀 마음이 진정된 민옥이가 다시 간절한 눈빛으로 정순이를 보았다. 하도 울어서 별정계 충혈된 눈이 애원하는듯이 정순이를 지켜보고있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정순은 《음》 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었다.

당장 무슨 좋은 궁리가 있을덕이 없었고 서둘러 대답하기에는 너무도 엄혹한 문제였던것이다.

그러는 정순이를 보고 민옥은 저으기 심중해진 어조로 말을 꺼냈다.

《언니, 전 퇴원하면 혼자 살겠어요.》

《?!...》

《즈까모도가 오늘 왔다고 이 생각을 한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하던 생각인데 퇴원을 계기로 혼자 살아갈 작정을 했어요.》

《아는 사람도 별 없는 일본땅에서 어떻게 혼자서 살아가요?》

민옥의 결심을 듣고있으니 정순의 가슴은 영문도 없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지자 않겠는지 하는 걱정에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언니한테 상의드리는데 아닝교. 지금까지도 신세만 져왔는데 어떻게 좋은 궁리가 없을가요?》

민옥은 특징있는 맑은 눈으로 정순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듯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어려운 문제구만요...》

당장에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정순은 애매하게 말끝을 얼버무려놓았다. 그러는데 민옥은 정순의 자그마한 표정의 변화도 살살이 살펴보고 있는게 아닌가.

그의 시선을 느낀 정순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래도 《언니》라고 의지하는 이 불우한 녀인에게 크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무정하게 팽개칠수는 없었던것이다.

《어쨌든 오늘밤에라도 애아버지하고 의논해보지요.》

정순은 우정 밝게 대답하였다. 무슨 확신이 있어서 한 말이라기보다 우선 이자리를 이렇게라도 넘겨놓아야 했던것이다.

아니다를가 민옥의 얼굴도 밝아졌다. 지푸래기라도 붙잡고싶은 그에게 있어서 정순의 이 말은 큰 힘을 주었다.

병원을 필하고 급히 집에 돌아와보니 순애가

밥상머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있었다. 밥상에는 정순이가 나갈 때 차려놓은 반찬이 그냥 없혀있었다.

《순애야, 아직 밥 안먹었나?》

《엄마, 어디 갔다오셨나?》

순애가 뽀로통하더니 배가 고프다고 수저부터 먼저 들어 밥을 달라고 하였다.

시계를 보니 8시를 넘고있었다. 정순은 앞치마를 두르며 남조선아지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늦었다고 변명하고 서둘러 저녁차비를 하였다.

순애는 밥을 먹고는 숙제를 하겠다고 안방에 들어갔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병원에서 들은 민옥의 이야기가 생생히 떠올랐다.

(의논해보겠다고는 했지만, 참 난처한데...)

그것도 그럴것이 요즘 정순내외가 하는 다방도 별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 남편하고도 상의하여 작년부터 밤에는 술을 내게 했는데 그것도 일장 일단이였다. 요즘은 지금 하는 다방을 치우고 《이차까야》를 새로 시작해볼가. 그보다 다른곳에 자리를 옮겨 새 장사를 일으켜볼가 하고 모색하는중이였다.

(어차피 애아버지하고 의논할수밖에 없겠지.)

그날밤 그의 남편 준호는 10시가 넘어서야 올라왔다. 점방문을 닫고 뒤처리를 하고나면 매양 이 시간이 되였다.

준호는 습관처럼 《아, 피곤해.》하면서 먼저 목욕하러 들어갔다. 이윽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준호는 땀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고는 마개를 따고 밥상머리에 앉았다. 병을 기울이며 유유히 고뿌에 따른 준호는 거품이 이는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카— 시원해.》

준호는 또 고뿌에 맥주를 채우고는 넓은 이마며 목덜미에 돌은 땀방울을 천천히 닦았다.

언제나 듣는 남편의 말과 행동거지였으나 정순에게 있어서 오늘따라 그것이 굼뜨게만 여겨졌다.

정순은 남편이 한숨 돌리는 틈을 타서 넋지시 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남편은 대답도 않고 신문을 보고있었다. 정순이 다시 《여보》 하고 소리를 높이자 《응.》 하고 실없는 응대를 하였다.

《오늘 민옥씨한테서 어려운 부탁을 받았어요. 며칠후이면 퇴원하게 되었는데 집에는 돌아갈수 없으니 혼자 살아나갈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그래...》

남편은 그래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거동만 보면 관심이 없는듯도 하고 성가신듯도 하였다.

《어디 좋은 방도는 없을까요?》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정순이를 힐끔하더니

계속 신문에 눈을 주면서 《남편도 있고 친척들도 있을건데...우리가 거기까지 봐줄 형편이 되오.》하고 편잔을 주는투로 내뱉었다. 그 말에는 암초에 올라앉은 다방경영도 타개하지 못하는판에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가 하는 정순에 대한 질책비슷한 기미까지도 느껴졌다.

뜻밖의 말에 정순이는 일순 주춤하였다. 집안의 대들보로서 기울어진 장사를 추켜세우려고 초조해하는 마음은 알지만 불우한 녀인의 간청을 아예 귀박으로 흘리려는 남편의 태도가 아니꼬웠다.

《내가 무엇을 봐주겠다고 했어요. 그저 의논을 하는건데...》

그리고 외삼촌하고 남편한테는 죽어도 가기 싫다하는데 어찌겠어요.》

정순의 어성이 좀 꾀꾀해졌다.

준호는 더 말을 하면 또 성가시게 옥신각신이 있을거고 그럴바에야 잠시동안은 참아서 정순의 말을 들어주려고 좀 누그러진 소리로 전후사연을 물었다.

금시 정순의 목소리도 다정스러워졌다. 그때부터 정순은 오늘 저녁에 들은 민옥의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엮어대었다. 저절로 격해올라 간간히 울음을 섞어가면서.

처음 흥심도 없이 듣고있던 준호도 안해의 말에 점점 끌려들어갔다. 아직 본바도 없는 녀인에 대한 동정심이 가슴속에 일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일본에서 혼자 살아가기는 어려울것 같았다.

《참 난처한 문제구만. 어쨌든 우리보다는 외삼촌한테 의논을 가는데 좋을것 같은데...》

《본인이 절대 싫다는데 어떡해요.》

《응 무슨곡절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좀 알아보는게 좋겠소. 짧은 생각으로 덤비다가 일을 그르친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건데...》

제법 신중한 어조로 혼자소리처럼 뇌이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순의 가슴에 느닷없이 불안이 덮쳤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아요.》

정순은 남편을 뵈히 보며 간청하듯이 물었다.

대답에 궁한 준호는 작은 눈을 두어번 습벅거리고 습관처럼 벗어진 이마를 문대었다. 무슨 말을 머리속에서 찾는듯하던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정순이더러 《내친결음이니 잘 도와주오.》 하더니 혼자 안방으로 가버렸다.

《여보, 같이 좀 생각해주어요.》

불시에 아니꼬운 생각이 또 일었다. 어려운 일이면 무엇이랴도 자기에게 밀어붙이려는 남편의 태도에 슬며시 부아가 났던것이다.

정순의 소리를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남편은 《음》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이불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정순은 그런 심정이 될수 없었다. 그때부터 한참을 민옥의 장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우선 혼자살수 있는 세방을 찾아야 했다. 그다음은 일인데 말도 습관도 다른 일본땅에서 회사일, 직공일은 안될거고 그러면 장사를 할수밖에, 장사는 가게방을 차리기보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그런게 좋겠지. 음식은 조선음식이 좋겠지... 그런점포와 세방이 붙은게 있으면 더욱 좋고.

정순은 머리속에 참한 조선음식점을 그려 거기에 민옥을 세워봤다. 날씬한 몸매, 하얀 얼굴과 긴 눈썹밑에 호수같이 잔잔한 맑은 눈동자... 그 용모에 본국에서 배운 요리솜씨가 있으면...

뭔지 될듯하였다. 정순에게는 오래 장사를 해오면서 키운 안목이 있었다. 거기에 비쳐봐도 민옥의 용모와 분위기는 충분히 손님을 끌수 있을 것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문제다. 듣건대 민옥은 입원비를 갚는것조차 곤란한 형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어쩐다?

그의 사색은 남편의 코고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몸은 훌쩍한데 코고는 소리만은 요란했다.

(천하태평이구만.)

정순은 정찬 눈길로 소리나는 쪽을 흘겨보며 이부자리에 들었다.

(래일 아침이라도 또 의논해봐야지.)

정순은 그날 민옥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때부터 사흘이 지났다. 아침을 먹기가 바쁘게 부동산업자들을 찾아다니던 남편으로부터 한창 봄비는통에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그럴만한 자리가 났는데 와보겠소?》

《당신, 정신있어요. 돌아와서 듣자요.》

전화를 끊고 바쁘게 돌아치면서도 정순의 입가에는 빙긋이 미소가 그려져있었다. 남편이 찾아낸 점포는 홍시역에서 한정거장 더 들어간 ㄷ역에 있었다. 역청사앞을 시내물이 흐르고 가까이에 음악대학이 있어 거리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점잖게 느껴졌다. 그가 사는 홍시보다 활기는 덜했으나 우선 둘레에 조선음식을 다루는 점방이 하나도 없는게 어쩐지 상서로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고료리》점 너주인이 급한 사정으로 혹가이도 친정집에 가야 하는데 꼭 1년기한으로 그것도 점내시설을 그냥 쓴다는 조건으로 권리금과 보조금도 없이 얼마간의 사례만으로 빌려주어도 좋다는것이였다. 게다가 1층은 알맞춤하게 5평정도이고 2층에는 쓰지 않고있는 아담한 방까지 한 칸 있었다.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준호가 ㄷ역전 부동산집에 들렀을 때 마침 와있었던 그 집방 너주인이 부동산업자와 만나 하던 이야기를 들은것이다.

《리무진》 정휴일에 갓 퇴원한 민옥이와 남편

셋으로 그 점포를 본 정순도 썩 마음에 들었다. 민옥이도 불안을 감추지 못해하면서도 해보겠다고 했다.

정순이내외와 헤어진 민옥은 혼자 아파트에 돌아왔다. 여기서 보낸 악몽같은 생활을 생각하니 새삼스레 소름이 끼쳤다. 그럴수록 방금 보고온 ㄷ역 점포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였다.

(아무리 권리금, 보증금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자금이 있어야지. 그리고 한달남짓한 입원비청구가 100만원 가까운데 그건 어쩐다?)

신세질대로 진 정순내외에게 더는 폐를 끼칠수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즈까모도를 만나자. 그리고 외삼촌도.)

즈까모도의 구박을 당하며 지낸 1년을 생각하니 치가 떨려 견딜수가 없었다. 찢어죽여도 시원치않는놈이었으나 그럴수도 없었다. 그러나 민옥은 그자에게 무슨 보복을 하지 않고서는 새생활을 시작할수 없을것 같았다.

다음날 민옥은 즈까모도와 외삼촌을 만나 병원의 청구서를 즈까모도에게 떠맡기고 그우에다 위자료 200만원을 요구했다. 수천만을 받아내어도 그의 분은 풀리지 않을것 같았으나 즈까모도의 배상능력으로는 그 정도가 한계라고 민옥은 보았던것이다. 그리고 새 점포를 내는데는 당장 이 정도는 필요할것 같았다.

그렇게 횡포하던 즈까모도는 서슬푸른 민옥의 기상에 놀려 발발 떨었다. 외삼촌은 저의 흠도 있어서 그런지 즈까모도에게 민옥의 말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였다.

민옥은 즈까모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결산하였다.

정순은 그 이야기를 계약을 맺으러 같이 따라가는 길에서 들었다.

정순은 새삼스레 민옥을 보았다. 점포계약을 맺으러가는 길에서도 불안은 정순의 가슴을 지긋게따랐다. 하지만 온순해보이던 민옥의 체내에 이렇게 든든한 담력과 대바른 주대가 있으면야 아무리 거친 이역땅이라도 충분히 헤쳐갈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럴수록 우연히 만난 민옥이었으나 한혈육으로서 힘껏 도울 결심을 새로이 하는것이였다.

민옥이 퇴원하여 두달이 지난 초가을의 어느날 ㄷ역 서쪽편의 골목에 《창녕》이라는 남조선음식점이 생겼다. 민옥이 하는 점방이였다. 개점을 축하하여 조화가 두개, 하나는 다방 《리무진》이고 다른 하나는 《나가지마》라고 써여 있었다.

점방이름도 민옥이 지었다. 《리무진》이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흘러내리는 《림진강》에서 판이름이라는걸 정순한테서 듣고 자기는 고향이름을 그냥 쓰겠다면서 그렇게 지었던것이다. 간판에는 한자를 썼고 거기에 일본말발음으로 《찬용》이라고 적어주었다.

남조선음식점이라야 정주까지 넣어 불과 5평방 밖에 안되는곳이어서 음식가치수는 적었다. 그래 일본 《고료리》점 비슷하게 작은 그릇에 몇점씩 없어서 술안주삼아 먹게 하였다.

처음 개점하였을 때는 호기심으로 빠끔히 들여다보고 들어오던 손님들이 먼저 민옥의 용모에 매혹되고 다음에는 음식맛에 녹아났다. 어느새 단골로 다니게 되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손님들을 데리고왔다. 손님중에는 동포들도 많았다. 정순내외의 소개로 왔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민옥은 수다스럽게 떠들지 않았다. 그리 말을 않는 그는 어찌보면 손님들에게 애수까지 느끼게 하였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말을 걸어오면 썩웃으며 서투른 일본말로 대답해주고 동포들에게는 감칠맛이 나는 경상도사투리로 응해주었다. 그게 또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는 사이에 《창녕》은 민옥이도 놀랄만큼 번창하였다.

정순은 그것을 자기일처럼 기뻐하였다.

퇴원하여 얼마 안있어 아파트를 나온 민옥이 《창녕》의 2층방에 들게 되면서부터 개점을 서둘렀을 때 정순은 얼마나 가슴을 조이었던가. 남정들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이 일을 지력도 채 회복되기전에 가냘픈 녀인이, 그것도 혼자서 어떻게 해가나 하고 생각하니 정순은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그래 모자란 부엌세간도 같이 사러가기도 하고 간판을 그려주는 사람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틈을 내어 낮에 가서는 김장을 같이 담그어주기도 하였고 《리무진》이 문을 닫은후에 남편하고 같이 가서는 격려해주기도 하였다.

정말 정순은 자기 장사이상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었다. 그러니 《창녕》이 날이 갈수록 번창해가는게 자기 일처럼 기뻐던것이다.

그날도 정순은 다방을 남편에게 맡겨놓고 《창녕》으로 자동차를 몰았다. 구석진 길가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정순은 골목길을 따라 잔걸음을 쳤다.

낮익은 《창녕》간판이 보였다. 문도 활짝 열려있는게 보였다.

(김장을 하는 모양이구나.)

민옥은 김장할 때 의례히 문을 열어놓고 일을 벌린다. 그래 정순은 돌돌 말아서 가지고 온 앞치마를 탁 펴서 허리에 둘러치며 들어섰다.

그런데 주인이 없었다. 늦가을의 청명한 해빛이 카운타에 얹혀있는 통배추며 무우, 바닥에 놓여있는 그리 크지 않은 두개의 독을 비치고있을 뿐이었다.

(아니, 일을 벌려놓고 어데로 갔담.)

정순이 의아해하며 뒤통 돌러보는데 카운타 안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옥이 보였다.

《아니, 거기서 뭘하나?》

정순이 한걸음 다가가며 소리를 질러서야 민옥은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마엔 진땀이

배였고 얼굴은 창백하였다.

《민옥이, 어데 몸이 아픈게 아니야?》

놀라며 급히 다가간 정순은 수건으로 땀을 문질러주고는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별 없었으나 좀 벌린 입에서는 연방 더운 입김이 새어나왔다.

《괜찮아요. 어지럼증이 나서 이러는데...》

이래 있으면 곧 나을지요.》

《낮기는 무엇이 나아, 얼른 우에 가서 누워요.》

《괜찮다카는데... 좀 있으면 점방문도 열어야 하고...》

(허참, 몸이 건강해야 장사도 하지. 이 몸으로 어떻게...)

《언니, 고마와요. 지 몸은 지가 제일 잘압니다.》

그리고는 카운타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또 아래도리가 휘청거리는 모양이었다.

《내 말 좀 들어요. 올라가서 좀 누워있으라는 데.》

급기야 정순은 어성을 높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말을 들을것 같지 않았기때문이다.

정순은 민옥을 부축하여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민옥이도 어쩔수 없이 그의 어깨에 몸을 맡기고는 2층방으로 올라갔다.

정순은 좁은 방 한구석에 보를 썩워 포개여놓은 이불을 폈다. 그리고는 아직도 망설이는 민옥의 옷옷을 벗기고 앞치마끈까지 끄르고나서 그를 눕혔다.

《언니, 미안합니다.》

민옥은 더운 입김을 몰아쉬며 겨우 한마디 하고는 스프르 눈을 감았다.

측은하게 눈여겨보면 정순은 이불깃을 여미여 주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몸살일까?... 기력이 돌기전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

정순은 점방안에 널려있는 통배추며 무우, 고추며 사과, 생강이며 굴 같은걸 무심히 보며 혼자 되였다. 하긴 퇴원하여 두달뒤에는 이 일을 시작하였고 그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점방을 보고있으니 온전한게 이상스러웠다.

(그렇지, 이제 단골손님들도 붙었으니 주에 한번은 정휴일을 두게 해야지...)

정순은 민옥이 일어나면 억지로라도 다짐을 받을 작정을 하고 널려있는것들을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하였다.

우에서 누워있는 민옥에게 안들리도록 조심조심하려니 꽤 시간이 걸렸다. 카운타와 부엌자리까지를 말끔히 닦아놓고보니 창밖은 어슬어슬하였다.

방안에도 한기가 들었다. 정순은 얼른 문을 닫고 불을 켰다. 그러자 환해진 점방내의 한쪽구석

에 쌓여있는 의자들이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힐끔 2층으로 눈길을 돌린 정순은 의자를 그냥 두기로 하였다. 오늘은 《림시휴업》이란 글썽지를 밖에 써붙여놓고 민옥이를 꼭 쉬게 할 심산이었다.

피득 집생각이 났다. 순애가 돌아올 무렵이었던 것이다. 그래 정순은 《리무진》에 좀더 있다가 가겠다고 연락을 하려 전화수화기를 들었다. 잠이 깬 민옥에게 더운 국이라도 끓여주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것 같았기때문이다.

정순이 다이얼 돌리려는데 우에서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났다.

들릴락말락 사뿐사뿐 내려오는 소리였는데 정순은 귀가 번쩍 뜨이면서 수화기를 놓고 고개를 돌렸다.

힘겹게 내려온 민옥은 정순을 알아보고는 마루에 선채 《아니》하고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민옥은 창백했던 얼굴에 분을 발라 연지까지 찍고 내려왔다. 점방을 할 작정으로 내려온것 같았다.

《오늘은 좀 쉬지. 무리해서 참말로 몸살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려고.》

《괜찮아요.

아이고, 다 치워주었구만요. 정말 고마와요.》

민옥은 김장을 하려고 널어놓은것들을 자기가 누워있는 사이 깨끗이 치워준 정순에게 송구스러워하면서도 재빨리 카운터안으로 들어가서는 가스에 불을 달았다. 그리고는 그우에 큰 냄비를 얹었다.

《민옥이, 정말 괜찮아?》

《괜찮다는데유요.》

민옥은 걱정어린 눈매로 자기를 유심히 살펴보는 정순에게 부드럽게 곡선을 그어 흘리내리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빙긋 웃어보이었다.

얼마전에 창백한 얼굴로 진땀을 흘리던 모습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린듯하였다.

정순은 그후에도 좀 앉아있다가 나왔다. 나올때 점방일도 궤도에 오른것 같으니 앞으로는 주에 한번 휴일을 정해놓고 쉬어야 한다는걸 간곡히 타일렸다. 진정어린 정순의 말을 듣고 민옥은 하긴 일본 와서 구경 한번 해본 일이 없는데 《리무진》의 정휴일에 맞추면 어디 데려가주겠냐고 어리광을 부리듯이 말하고는 호호호 웃기까지 하였다.

다음주부터 민옥은 정말 《리무진》과 같은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

정순은 그게 기뻐다. 퇴원후 오늘까지 그에게 덮씌워진 모든 피곤이 그것으로 하여 조금이라도 가시여진다면 그이상 반가운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렇수록 그날 민옥이 통비슷하게 한 말이 그의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정말이지 민옥은 즈까모도에게로 시집와서도 밖에는 나다니지 못했을거고 퇴원하여 혼자서 장사를 시작한 다음에

는 더 그러하였을것이였다.

어느날 정순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비쳐보았다. 그랬더니 남편은 어렵게 생각할것 없이 이번엔 버섯따러갈 때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 하였다.

정순네 집에서는 장사를 하는 관계로 온 식구가 같이 밥상을 마주하는 일이 적었다. 그래 남편의 주장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온 식구가 경치좋은데 가서 놀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가풍》을 세워왔던 것이다. 올가을은 시가미꼬호반에 있는 참나무버섯밭에 이미 가기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실은 정순이도 은근히 그 생각을 하고있었다. 일부러 그때문에 탄대를 가기도 난처했고 지내면대는 다음날에 피로가 남을수 있으니 시가미꼬정도가 알맞춤하다고 생각하였던터였다.

시가미꼬의 버섯집은 구니다찌인터에서 주오고속도로를 잡아타고 약 한시간을 달리면 하다노인터에 이르는데 거기를 내려 다시 한 20분 달리면 가닿는다.

그날 정순네 부부와 민옥은 10시를 넘어서 8시를 출발하였다. 아들은 일요일에도 축구소조련습이 있다면서 아침일찍 학교를 가버리고 순애만 같이 따라왔다. 눈치를 보니 요즘 아버지보다 몸집이 커진 아들은 부모들하고 함께 어디 가는데 쑥스러운 모양같다.

운전은 준호가 하고 조수석에는 순애, 뒤좌석에는 정순이와 민옥이 앉았다.

처음 순애는 낮이 선 아지미가 같이 간다고 좀 수줍어하는듯하였으나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부터 자동차가 속도를 놓고 쉿쉿 달리자 록음기에서 울리는 우리 나라 관현악에 맞추어 노래를 흥얼대기까지 하였다. 민옥이도 차안에 넘치는 훈훈한 정취에 휩싸여 모든 시름을 놓는듯하였고 밖에 전개되는 이국의 풍치를 보며 못내 흥겨워하는듯하였다.

이윽고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농촌풍경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고을을 누비며 달렸다. 벼단가리를 쌓아놓은 밭머리를 돌고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있는 감나무옆을 스치며 달리노라면 단풍이 한창 물든 산세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속을 이리구불 저리구불 누비가면 산곡간을 채운 인공호수가 울긋불긋 단풍진 산허리를 비치며 누워있다. 그 수면을 쌍무지개형으로 된 철근다리를 건너며 부감하고 다시 한굽이 돌면 목적지에 가닿는다.

버섯집은 산중턱의 아늑한곳에 자리잡았다.

준호는 이미 여러번 온적있어 좁은 길도 운전대를 재치있게 다루며 오다가 마지막 급경사가 진길을 한달음으로 치달아오르고는 제동기를 밟았다.

(다음호에 계속)

## 한생 조국의 품을 우러러

리호인

허남기선생은 조국멀리 이역땅에서 살면서도 한낱 조국과 같이 숨쉬었으며 자신의 넋을 다 바쳐 정력적으로 조국을 노래하였다.

허남기선생은 미술, 음악, 영화에 조예가 깊었고 그에 대한 작품도 적지 않다. 뿐만아니라 법률에도 밝고 훌륭한 교육자였으며 번역작가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능다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보다 빛을 낸것은 시인으로서의 재능이었다.

지난 추석날 나는 시인 박산운선생과 같이 평양교외 신미리에 있는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어있는 허남기선생의 묘를 찾았다. 그는 허남기선생의 송아지적동무였다. 부산 제2상업학교를 같이 다녔으며 일본에서 고학을 같이한 사이였다.

박산운선생은 애국렬사릉을 향해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허남기선생이 어릴적 락동강변의 모래불에 드러누워서 즉흥시를 읊던 일이며 일본에서 우유배달과 신문배달을 하면서 고학을 하던 때 짬짬이 시를 읊던 일을 들려주었다. 가마구라라는곳에 작가 김사량선생이 살고있다는 소식을 듣자 허남기선생은 자기가 쓴 작품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군했다고 했다.

승용차는 가을해가 중천에 높이 떠서 따스한 햇빛을 지상에 내리붓고있을 때 애국렬사릉앞에서 멎었다.

나는 박산운선생과 같이 허남기선생의 묘에 꽃다발을 드리고 선생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노라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에 밟혀왔다.

내가 허남기선생을 처음 만난것은 1956년 봄, 조선대학교에 다닐 때였다. 그 당시 선생은 조선대학교 강사로 있었다. 나는 조대시절 선생의 정열적인 강의를 들었고 다방이며 택에 가서 밤이 숙도록 문학담을 듣곤하였다.

그러나 선생을 알게 된것은 조대에서 공부하기 몇해전, 함박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날 시집 《조선의 겨울이야기》를 샅보르고서점에서 얻었을 때 부터였다. 그 시집에 실린 근 70편의 시들은 짙은 조선의 향기로 하여 나의 마음을 틀어잡고 놓지않았다.

또한 나로 하여금 현해탄너머 멀리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녘의 경주며 서울, 대구며 부산. 목포며 광주 그리고 삼천궁녀가 비단치마자락을 휘날리며 떨어졌다는 락회암, 봉화가 타오르는 격노한 태백산맥으로... 온 남녘땅으로 이끌고갔다. 그 시편들의 갈피갈피에는 미제의 식민지하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분노와 항거의 남녘인민들의 참모습이 담겨져있었다.

그중에서도 시 《선술집》과 《영산강》은 남다른 감명을 받았다. 어언 수십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시편들을 마음속으로 외우곤한다.

어쩌면 그렇게도 소란한가  
한잔의 탁주에  
한토막의 명태와  
김치 한접시를 놓고

사람들은 제나름으로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사람들은 제나름으로 자신의 역사를 노래하고있다

여기는 전라도 려수땅 잔교열 선술집  
술파는 너인의 불에도 구슬같은 눈물이 흘러  
박가분이 얼룩이 저  
신상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아리랑이 들려온다  
(《선술집》)

...  
그러나 영산강아,  
내 눈앞을 흐르는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해속하고  
유유히 흐르는 강인가,

네 흐르는 한줄기한줄기는  
갈가마귀의 울음소리를 닮아  
날카롭고 가늘고,  
그래서 그 물결의 이랑이랑은  
모두 저만큼  
뭔가 새된 소리를 지르고,  
칼날같이 엄엄한 빛을 뿌리고  
언제나 번들번들  
적의에 찬 눈길을 보내고  
아아  
때로는그 물굽이들이 돌에 막힐적이면  
번개인양 거세게 그것을 때려부시고  
그리고는 망연히 둥근달 바로 밑을 흘러가누나

너  
불행한 땅의 강영산강아,  
지금은  
거세차게 노호할 때로다.

(《영산강》)

《선술집》은 1련밖에 안되는 극히 짧은 서정시이다. 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외우면 외울수록 눈앞에 생동한 화쪽으로 선술집이 떠오르고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한다.

고기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선창가에 자리잡은, 세찬 바람이 불면 금시 날아날듯한 적포만 한 선술집, 탁주를 마시며 눈에 눈물을 담고 살길이 막막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어부들의 가련한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술과는 중년녀인의 구슬픈 노래가락이 귀전에 쟁쟁 들려온다.

그 모습, 그 노래는 비단 어부들의 모습, 선술집 녀인의 노래가 아니라 남녘인민들의 모습이며 노래인것이다. 더는 이대로 살수 없다는듯이.

시 《영산강》은 순수 자연을 노래한것이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하에서 신음하는 남녘의 인민들의 모습을 담고있다. 영산강의 강물소리는 남녘인민들의 목소리로, 그 번들거리는 물결은 압제자 미제에 대한 적의찬 눈길로 묘사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시인은 결국에 가서 격조높이 투쟁에 일떠서라고 웨치고있는것이다.

허남기선생은 《조선의 겨울이야기》에 이어 《일본지사시집》, 장편서사시 《화승총의 노래》, 서사시 《거제도》, 시집 《조선해협》, 《허남기시집》 등 수많은 시편들을 창작발표하였다. 그 시편들의 근저에는 애수와 절망이 아니라 투쟁과 락천, 광명과 희망으로 일관되고있는것이다.

그것을 값높이 평가하여 조국에서는 선생의 시집 《조국에 드리는 송가》,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를 출판하였다.

허남기선생은 총련부의장, 재일문학예술가동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지니면서도 재일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얼을 심어주는 시창작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일본인민들에게 오늘의 조선의 진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번역사업도 정력적으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손색없이 훌륭하게 일본어로 번역출판하였다. 이어 《조선시선》, 《현대조선시선》, 《춘향전》 등 수많은 조선의 작품들을 일본어로 번역출판하였다. 그 책들은 재관을 거듭하면서 일본인민들에게 널리 애독되고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동해의 사도》- 귀국선을 타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20년이 지난 어느날 조국을 방문한 허남기선생을 만났다. 조국에서 첫 상봉이었다. 이날 허남기선생은 나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머금고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선생이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운것은 수령님의 탄생 63돐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1975년 5월 5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중히 올리는 선생의 인사를 받으시며 아, 동무였구만. 나는 동무를 잘 아오라고 하시며 못내 반가와하시였다.

순간 선생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꿈인가 생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너무나도 과분한 치하를 해주시기때문이었다. 수령님께서 아신다는것은 곧 조국이 알고있다는것이다. 과연 내가 그

런 제목이 된단말인가. 그런 시인이란 말인가.

흥분과 감격, 기쁨의 파도가 마구 가슴을 때렸다. 그 걱정을 누르지 못해 선생은 그만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시며 그만 진정하라고 자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축하단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선생을 자신의 몸가까이에 불러주시였다. 축하단성원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해주실때는 선생을 자신의 바로 곁에 앉히시여 축하잔까지 찹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허남기선생이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선생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선생이 쓴 작품들을 친히 봐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선생이 앓는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는 그를 조국에 불러주시여 치료를 받게 해주시는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으로 조국에 왔을 때 그를 성대히 진행된 중앙경축보고대회와 경축연회, 경축시위 등 다채로운 국경절행사에 참가하게 하는 크나큰 영예를 지니게 해주셨다. 국경절행사에 참가한 선생은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온 누리에 빛을 찬란히 뿌리고있는 그것이였다. 세계5대륙에서 온 100여개 나라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공화국 국경절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언제 한번 이런 때가 있었던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우리 조국이 온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시인 허남기선생의 심장은 높뛰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하리라. 위대한 당을 노래하리라. 위대한 조국을 노래하리라... 선생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굳게 다잡했다. 흥분된 시인의 붓이 나래를 쳤다.

예로부터 시란 시인의 흥분의 산물이라고 한다.

허남기선생은 그 흥분된 심정을 수십편의 조국방문시초에 담았다. 그 시편들의 갈피갈피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행복, 민족적자부심이 짙게 깔려있는것이다.

흠이란 좋구나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흠이란  
조국의 흠이란  
한없이 좋구나

이렇게 시작된 서정시 《조국의 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특별비행기를 타고



조국땅을 처음 밟아보는 서정적주인공이 나라없는 망국노의 설움받던 이국살이를 돌이켜보며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신 수령님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고있는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은 다름아닌 허남기선생자신인것이다. 선생자신이 몸으로 느낀 생활감정을 그대로 시에 담았던것이다. 때문에 시가 진실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이다.

...

가을해가 제법 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허남기 선생의 묘앞에서 박산운선생과 같이 사진을 찍고 애국렬사릉을 내려왔다.

무거운 걸음을 내짚으며 애국렬사릉을 내려가던 박산운선생이 나를 돌아보며 《호인동무, 남기형은 숨지는 순간까지 붓을 손에서 놓지 않았소...》라고 의미심장하게 조용히 뇌였다.

순간 나의 뇌리에 풍치아름답고 공기맑은 룡양소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허남기선생과 만났던 일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선생은 룡양치료를 받으면서도 밤을 패가며 남조선의 시편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있었다. 그 시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지하출판물들에서 하나하나 모으고 추린것들이었다. 또한 그 시편들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흠모하여 따르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져있었다.

지금도 그때의 허남기선생의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환자복을 입고 책상에 마주앉아 남조선의 시편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던 모습이. 손은 흥분으로 하여 세차게 떨고 얼굴은 병색이 짙고 피기가 없었다. 그러나 안경알속의 눈만은 유난히도 빛나고있었다.

내가 허남기선생이 들은 호실에 들어서자 선생은 《호인이, 마침 잘 왔소. 제대로 일본어로 옮겨짓는지 봐주게...》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떠는 손으로 쓴 원고를 나에게 보였다. 시 《별보러 가세》였다.

별보러 가세 별보러 가세  
우리네 하늘에 새별이 떴네  
그 별님 따라서 세상이 돌고  
그 별님 따라서 새날이 밝네

저 별님 우러러 큰절을 하면  
백발의 로인도 되젊어지고  
그 별님 우러러 큰복을 치면  
쓰러진 용사도 되살아나네

보면볼수록 다정한 별빛  
눈을 감아도 보이는 별빛  
벗들이 보며는 새힘이 솟고  
적들이 보며는 두눈이 머네

죽쇄수갑에 엮매인 몸도  
저 별님 바라보며 자랑을 안고

부모를 잃고 울던 아이도  
저 별님아래서 단잠이 드네

세상도 세상도 악착한 세상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세상  
백가지 설움이 물밀릴듯해도  
별님을 보고서 새힘을 얻네

가세 가세나 어서들 가세  
다정한 저별님 따라만 가면  
만첩청산도 키낮춤하여  
통일독립의 큰길이 되네

어찌나 시의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이 절절하였던지 나는 단숨에 읽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받들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심정이 절절하고 진실하게 반영되어있었다. 그리고 투쟁하는 남녘의 겨레들의 마음 깊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신다는것이 잘 형상되어있었다. 내용에 맞게 시운률 또한 민족적이었다. 번역 역시 나무랄데 없었다.

《정말 좋은 시입니다. ... 번역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의 이름이 없습니까?》

《호인이, <아리랑>의 작시자가 누군지 아오?... 현재 남조선에서는 <별보러 가세>가 <아리랑>처럼 널리 류포되고있소...》

허남기선생은 손으로 책상우에 널려져있는 남조선의 출판물들에서 오래된 시편들을 가리켰다.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흠모하여 쓴 남조선인민들의 시작품들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남녘의 송가>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하자는거요. 세계정치,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시인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흠모하여 지은 시편들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누리의 송가>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하자는 결심인데 건강이 허락하겠는지...》

허남기선생의 결심은 대단히 훌륭한 결심이었다.

그 결심이 열매를 맺자면 술한 공수가 든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에서 수백편의 시작품들을 모으고 추려내야 하며 세계 정치,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쓴 시편들 역시 수백편 모으고 추려내야 한다.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추려낸 원고를 주체별로 골라서 번역을 해야 한다. 그것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다음 출판사들과의 사업을 해야 한다. 과연 앓는 허남기선생이 해내겠는가 걱정이 되었다. 선생이 말한것처럼 건강이 허락하겠는지?

허남기선생은 룡양소에서 1년동안 치료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룡양소에서의 상봉은 두번째 상봉이였고 마지막 상봉이었다.

일본에 돌아간후 이내 병이 재발되어 몇해 앓다가 1988년 11월 17일 70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다

허남기선생은 그 몇해사이에 병과 싸우면서 끝내 료양소에서 다졌던 결심을 수행했던것이다. 일본 《미라이》사에서 시집 《남녘의 송가》와 《누리의 송가》를 출판하였다. 그 시집들은 허남기선생의 마지막 책자들이다.

시집 《남녘의 송가》와 《누리의 송가》는 오늘 일본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으며 여러

나라들에 번역출판되어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 사랑을 받고있다.

나는 승용차안에서 멀어져가는 허남기선생의 묘를 바라보며 속으로 뇌었다.

허남기선생은 한생을 이역땅에서 조국의 품을 그리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심장으로 노래한 애국의 시인, 민족의 시인, 혁명적인 시인이었다고...

## 안고오는 기발

장병철

떠나갈 땐 동전 몇잎 쥐었던 손에  
돌아올 땐 공화국기를 들었어라  
인생의 곡절많은 언덕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기는 이 아침

살길찾아 현해탄의 쪽배에 올랐던탓에  
수난의 주름살만 깊어진 인생아  
떠난 자식 못잊어 불러주던  
내 고향 조국의 항구도시에  
이제야 시름없이 안겼구나

허나 어찌 절로야 안겼으랴  
거치른 이역의 하늘아래  
고역에 허기진 배 움켜잡고  
운명의 강통소리 울려갈 때면  
어디선가 분명 들려오던 소리  
그것은 이 기발의 펄럭임소리였다

충높은 새 거리가 일떠서는 소식  
조국의 신문속에 새겨볼 때면  
그속엔 나를 불러주고 품안아주는 모습이 있었  
다  
건설장 기중기우에 나뭇기던 그 기발이

그래서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총련본부에 나뭇기는 이 기발 향해  
한걸음 두걸음 저도 몰래 다가설때  
그것은 조국을 향하여 줄달음치던  
진정한 내 삶의 발자욱이었다

아 송구한 이 마음  
이 기발 위해 피를 바친 그분들처럼  
이 기발 지켜 청춘을 바친 그네들처럼  
애국의 선혈 못바쳤음이  
부끄럽구나 죄스럽구나

어머니의 품을 뛰쳐나갔던 자식  
두고두고 탓하며 나무람할대신  
어서 돌아오라 두팔벌려 반겨주는  
그것이 내 운명의 품  
떨어져 못사는 내 조국

그렇구나  
창공높이 나뭇기는 이 기발 있어  
수난의 주름살은 깨끗이 펴이거늘  
이 기발의 역센 펄럭임소리  
나를 불러주던 조국의 목소리였구나

내 며칠간의 나들이로 오지 않았어라  
온갖 설움 온갖 시름 다 가셔주는  
민족의 생명체인 해와 별 우러러  
성스런 땀으로 조국을 받들러 왔거니

떠날 때는 동전 몇잎 쥐었던 손에  
돌아올 땐 공화국기를 들었어라  
누려갈 행복도 바쳐갈 삶도  
기발속에 모두 안고 내 안겼구나

## 내삶의 궤도

서진명

### 이 바통으로

언제 받아도  
언제나 처음인듯  
천만근의 무게가 느껴지더라  
한줌손안에 드는 이 바통이

눈에 익은 승무구간마저  
처음 가는 길인듯  
이 바통만 쥐면  
이 가슴의 피가 뛰더라

전교대 승무조가,  
조국이 나를 지켜보는듯  
절로 빛나오르는 눈빛  
절로 무거워지는 어깨

이어달리기붕과도 같은  
크지 않은 이 바통이  
나를 자각하게 하더라  
깨닫게 하더라

내 만약 마음의 신들메를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낮익은 길도 생소한 길이 되고  
가볍게 싣고가던 짐도  
무거운 짐이 되리라는것을!

아 쉽없이 전진하는  
조국의 앞길이 닿아있고  
이 땅에 솟아나는  
행복의 재부가 실려있어  
언제나 무거운 바통!

이 바통으로  
순간이라도 드릴세라  
마음의 신들메를 조이며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교대와 교대를 이어 달려온  
수십만리 무사고주행길  
그 길을 오늘의 승무길로  
하나같이 빛나오르게 하며

### 어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이 새벽도 나오셨는가  
푸름푸름 밝아오는  
철길가 언덕에 서시어  
승무길에 오른 나를 바래주시는  
아, 어머니!

문득,  
눈에 어리는것은  
어머니 부축을 받으며  
한걸음 또 한걸음  
내 첫걸음마 떼던  
고향집 그 뜨락

몽클,  
이 가슴 후덥게 하는것은  
렬차 몰아 달려갈 앞길을  
그날의 그 마음으로 다 밝아보신듯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날마다 달라지는 천리길의 날씨

날마다 새롭게 알고가라고  
일기예보를 알려주던 그 음성은  
어린 시절 내 걷는 길 보살펴주던  
어머니의 다심한 그 목소리

밤처럼 한낮에도 단잠 자라고  
한가닥 햇빛이 습새여들세라  
창문귀를 꼭꼭 여며주시던 손길은  
내 요람 흔들어주시던  
어머니의 자애로운 그 손길

아 어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이  
나먼저 달려간 그 령길에  
그 천리궤도에  
비가 온다고 비를 알고  
밤이 온다고 어둠을 알것인가  
미처 돌아볼새도 없이  
인사말 한마디 할새도 없이  
어머니시여 당신을 뒤에 남기고  
렬차는 멀어져가도

지나고 마주오는 신호기처럼  
언제나 어머니 그 모습을  
앞길에서 보며  
한자육도 헛디딤 없이  
이 아들은 가리라

어머니의 그 바람  
어머니의 그 당부를  
끝없이 트이는 두줄기 궤도우에  
조국의 기쁨  
인민의 행복으로 꽃피우며...

## 고맙다 정임이

너 지금 어디에 있고  
내 지금 어디로 달리고있는가  
《무사고 정시로!》  
달리는 기관차운전실에 언제나  
함께 있는 글발을 보며  
정임이, 나는 너를 생각한다

달밝은 창가에서 한자 또 한자  
빨간 수실로 뜨거운 마음을 새기던  
네 심중의 말을 글발에서 듣고  
들쭉 핀 고향의 시내가  
내게 꽃을 안겨주며 환히 웃던  
네 미쁜 얼굴을 글발에서 본다

—무사고 정시로!  
황금빛 해살로 수놓은듯  
빛나는 글발과도 같이  
빛나는 두줄기 궤도  
무사고로 이어가는 길이 천리라면

그 길에 피어나는 기쁨도 천리!  
그럴제면 너의 목소리만이 아닌  
온 나라 사람들의 기쁜 목소리가  
운전실 가득 울리고  
너 하나의 모습만이 아닌  
만사람의 웃는 얼굴이 운전실에 어리는듯

글발을 보며 너를 보고  
글발을 보며 네 마음 안고가기에  
들어서고 떠나는 역은 역마다  
기다린듯 나를 반겨 맞아주고  
사람은 사람마다 뜨겁게 배웅해주거니

고맙다 정임이!  
너는 몇자 안되는 글로  
달리는 기관차운전실에,  
설레는 이 가슴에  
온 나라의 당부를 새겨주고  
만사람의 기쁨을 떠실어주었구나!

##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는 별로 없다  
철없던 그 시절  
나를 애무해주고 보살펴주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다만 있다면  
아버지의 전우들이 들려주던  
피가 튀게 하는 그 이야기  
내가 기관사가 된 날  
어머니가 나의 팔에 끼워준  
아버지의 그 색깔은 기관사완장이었다

하지만 기관사로 이 길을 달리며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너무도 어린 시절에 잃었기에  
기억에조차 희미하던  
나의 아버지에 대해...

준엄했던 그 시절  
피를 바쳐, 생명을 바쳐  
이 궤도우에 한생을 이어놓은 아버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아들에게서 바란것은  
무엇이였는지  
비가 와도 가는 길,  
눈이 와도 가는 길  
이 길로 렬차 몰아 달릴 때면

때없이 이 마음 승엄해진다  
언제나 내 팔에 끼워져있는  
아버지의 그 기관사완장이  
행복속에 자라난 나를 안아  
불타던 전화의 그날로  
그날의 아버지결으로  
나를 이끌어주는듯

때아닌 폭우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면  
 나는 본다  
 불비속을 헤치며  
 나보다 앞서 이 길을 달리는  
 아버지의 불굴의 그 모습  
 가파로운 령길을  
 힘겹게 치달아오를 때면  
 나는 듣는다  
 힘을 내라고  
 이 가슴에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는  
 아버지의 엄한 그 목소리

그렇다  
 나는 이 궤도를 달리며

어린 시절 이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아버지의 그 하많은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넘겨받는다

아버지는 너무도 때이르게  
 나의 결을 떠나갔다  
 하지만 언제나 이 마음속에 있어  
 운전대를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달린다

나는 믿는다  
 아버지와 이 아들의 삶이  
 땅을 따르는 그 한길우에  
 이 궤도처럼 굳건히 이어지고있다는것을!

## 새아침을 맞으며!

아침이다  
 저 멀리 솟아오르는  
 해를 마중해  
 열차 몰아가는  
 환희 넘치는 새 아침이다!

눈부신 해빛은  
 밤새 열차 몰아 달려온 피곤을  
 순간에 가셔주려는듯  
 달리는 차창으로 비쳐들고,

기쁨에 젖은 내 눈길은  
 해빛에 번쩍이는  
 두줄기 철길너머  
 마을과 거리,  
 들과 공장으로 달린다

내 눈길 끄는구나  
 지평선 한끝까지  
 새날의 기쁨 싣고 가려는듯  
 내 금방 부리운 물동을 싣고  
 꼬리를 물고 달리는 트랙토프 행렬

내 가슴 울려주는구나  
 새날의 해살 비낀 공장지구  
 흰구름 피어나는 하늘아래  
 울려 끝없는 창조의 음향이...

일터에, 사람들 가슴에 넘치는  
 새날의 벅찬 희열을  
 내가 다 안은듯  
 이 가슴 마냥 끓어오른다

달리는 차창이여  
 정녕 이런 땀  
 텔레비존화면처럼 보여줄수 없느냐  
 기다리는 물동을 부리워주며  
 내 밤도와 달려온 천리길

눈에 띄게 키쫄구는 건설장과  
 석탄산 솟아나는 탄전  
 시운전의 동음 울리는 대형기계들과  
 철의 도시에 타오르는 쇠물빛 화광을

둘러보는 모든것이  
 내 기쁨으로 안겨오는 이런 때면  
 벌이면 벌에 솟고  
 공장이면 공장에 솟는  
 저 둥근해도 내가  
 차판에 떠실고 온것인듯

진정 이런 때면  
 하늘땅에 가득차 흐르는  
 눈부신 해빛처럼  
 이 가슴에 넘치는 크나큰 긍지

이 벅찬 환희를 터쳐  
나는 웨치고싶구나!  
창조와 혁신으로  
일터는 일터마다 들끓고

사람은 사람마다 설레는  
행복의 새 아침  
희망의 새 아침은  
기관사, 내가 이끌어왔다고...

## 아, 고향아!

가슴은 왜 이리도 설레고  
심장은 왜 이리도 뛴뛰는가  
달리는 차창너머  
기다린듯 다가서는 고향땅

정든 하늘 정든 땅을  
들썹하게 흔드는 차바퀴소리는  
조국이 정해준 시간에  
고향에 들어서서는 나의 발걸음 !

험한 고개를 넘어  
비바람속을 헤쳐  
꼬리 긴 렬차에 떠신고온 물동은  
고향사람들과 함께 나눌 나의 기쁨 !

잘 있었느냐  
기적을 올리면

나를 반기는 어머니 눈빛 .  
고향사람들의 눈빛인듯  
해빛에 번쩍이며  
온 거리의 창문들이 다투어 열리는가

달려온 천리케도 그 어느 구간이라도  
나를 위해 짙은 첫 자욱이 있다면,  
높은 렬길이 비에 젖어 미끄럽다고  
조금이라도 짐을 덜고 왔다면  
내 이렇듯 궁지높이 들어설수 있으랴

땀도 났도 증송의 렬차에 바쳐  
조국땅에 커가는 행복의 무게를  
철길이 휘도록 떠신고왔기에  
내 이렇듯 떼뻗이 안길수 있는것이구나  
아 고향아!  
어머니 품아!

## 내 삶의 궤도

두줄기 은빛 철길이어  
한해도 아닌 10년세월을  
네우로 렬차몰아 달리면서도  
내 언제 한번 말을 한적이 없다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내 언제 한번  
너를 떠나 산적이 없고  
너를 떠나 생각한적이 없다  
그 어떤 다른 삶,  
그 어떤 다른 기쁨을

내 심장이 뚫어오른 때도  
네우를 달리던 때였고  
내 눈빛이 빛나오른 때도  
네우를 달리던 때였다

폭우 쏟아지는 깊은 밤에는  
나보다 앞서 순회길을 걷는  
순회원의 그 불타는 마음이  
신호등 불빛이 되어 흐르고

해빛밝은 한낮엔

한가정으로 무어진 철길소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드린  
철길원들의 그 아름다운 삶이  
철뚝에 꽃으로 피어나는 길

고향도 너로 하여 더 꽃피고  
정깊은 사람들과의 사랑도  
너로 하여 더 깊어지고  
너의 길을 앞서 달린 아버지 세대앞에  
나의 삶도 부끄럼없이 이어지거니,

말로는 다할수 없는  
너무도 크고 신성한것이  
네 길에 이어져있어  
내 이렇듯 피와 숨결을  
언제나 이어놓고 사는것 아니더냐 !

순간도 떨어져서는 못살  
내 삶의 궤도  
사회주의조국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이 비낀  
아, 나의 두줄기 은빛 철길이어!







## 통일거리

최승철

### 로인의 초상

먼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팔손로인 찾아왔네  
지팡이 짚고  
  
옛말의 길손 한생을 걸어서  
보물나라 성문에 다달았는가  
하늘의 창문들에 취한 저 모습  
  
진정 신성한 위업을 펼치려  
땅은 이리도 넓게 되어있는걸

돌비알같은 땀 푸들거리네  
  
비나니 오랑캐들 다시 넘보지 못하도록  
왕성히 번창하여 으뜸이거라  
쫓프린 실눈에 불꽃이 이네  
  
우는가 웃는가 백발의 로인  
수염끝에 영그네  
비싼 눈물 두어방울

### 미장공처녀

능금불 땀에 젖은 미장공처녀  
깐깐하고 번개같은 저 일숨씨  
춤이런가 가락맞춰 날리는 몸짓  
그대로 예술이구나  
  
저기 버들숲에 대동강에 시간은 흘러가도  
처녀야 너는 일본일조를  
다기차게 거머잡아 미장하누나.  
아수히 잃을번한 하루 또 하루  
벽에 말리워 꽃이 피누나  
  
처녀야  
너도 나이차면 남편을 맞고

언젠가는 다 자란 아들딸 거느리고  
강변을 거닐며 추억을 즐기리라  
  
그러나 너의 머리 희어진 그날에도  
청춘시절은 너의 땀 깃든 이 거리에  
늘 푸른 나무처럼 무성해있으리  
충충이 떨지은 저 창문들에  
청초한 너의 모습 웃어반기리  
  
아무렴, 세월이 이기겠니 사람이 이기지!  
로동은 시간을 붙잡는 성새  
일본일조 거머잡아 미장하는 처녀야  
너는 새기누나 영원할 청춘을

### 통일거리

거리여 통쾌한 너의 이름처럼  
땅을 차고 아슬히 솟아올랐구나  
눈물로 웃을 통일의 그 꿈처럼  
하늘 가득 별천지를 펼치었구나  
  
더듬어 찾아 피타게 불려도  
메아리만 돌려주던 야속한 통일이여  
너 혹시 앞못보는 소경이래도  
이 거리에 와보라 와보라  
한발만 디밀어도 눈이 번쩍 열려 춤조차 추리  
  
내 무릎이 시도록 이 거리 걷노라니  
사방에서 뚜렷이 들려오는 소리

—아들아, 너 황토밭에도  
기적의 거리를 세워냈으니  
이제는 통일, 통일로 가자  
  
끓어 소품치는 열정, 열정이여  
진정 세상에 못할 일 무엇인가  
갈망의 통일이여 너도 이 거리처럼  
래일엔 우뚝 현실로 솟아나리  
  
아, 그것이구나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이 거리를 통일이라 불려주신 그 뜻  
날이 갈수록 사무쳐오누나!

## 진달래의 마음 외1편

전 인민군 종군기자였던 《비전향장기수》 리인모

가시돋친 교활과 피빛같은 요염의  
장미의 붉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붉게 핀 정열의 진달래는  
분렬된 조국이 쉼고쉼어 울고올다  
지쳐서 목이 터진 두견이의 쏜은 피로  
꽃잎을 물들였기 그렇게도 순결한  
활짝 피어 웃는 진달래의 소박함은  
잊지 못할 님을 위한 변함없는 나의 사랑  
그대 아시는가 내 마음의 진달래를

세상천하 꽃들중에 먼저 피어 뿔내려고  
눈도 미처 녹기전에 성급하게 피어나는  
리기적인 매화처럼 첫번째론 안피지만  
훈훈한 봄바람에 때를 옳게 맞춰가며  
붉게붉게 활짝 피어 산에 들에 물들이니  
생기있는 새 조국의 새 앞날을 말하는듯  
순박하게 피어나는 진달래의 소박함은  
잊지 못할 님을 위한 변함없는 나의 사랑  
그대 아시는가 내 마음의 진달래를

살을 에는 엄동설한 이역만리 눈보라속  
비발치는 탄환들도 승리로써 넘어선 뒤  
따사로운 봄이 되어 산에 들에 움텄을 때  
천지연을 넘쳐흐른 압록강을 타고넘어  
조국흙을 밟고서서 조국흙에 입맞추며  
향수감에 잠겨보는 항일무장전사들을  
붉게붉게 활짝 피어 반겨맞는 진달래는  
잊지 못할 님을 위한 변함없는 나의 사랑  
그대 아시는가 내 마음의 진달래를

저기 북쪽 우뚝 솟은 백두산 기슭에도  
태백산맥줄기에도 지리산 기슭에도  
바다를 뛰어넘어 저기 남쪽 제주도  
한나산 기슭에도 빠짐없이 피어나니  
쭙고더움 가림 없이 남북산야 방방곡곡  
조국의 흙에다 깊이깊이 뿌리박고  
바라는건 오직 통일 붉게 피는 진달래는  
잊지 못할 님을 위한 변함없는 나의 사랑  
그대 아시는가 내 마음의 진달래를

## 개나리의 노래

날새조차 얼씬 않는 철벽같은 담밑에는  
누굴 보라 피였는가 앙상하게 늘어서서  
엄동설한 추운 겨울 찬바람이 까칠한데  
껍질속에 간직한 꽃 열가열가 저어하며  
노란 봄꿈 꾸노라니 잔등만등 겨울잠을  
따사로운 봄해별이 살짝 깨워 일으키니  
선잠 미쳐 깨기전에 봄물 빨아올리며  
뽀족뽀족 솟아올라 봉오리진 꽃봉오리  
활짝 피어 노란빛을 곱게 뿜는 개나리여

고운 얼굴 새색시들 새노란 저고리의  
노란색에 반하여 노랗게 피였는가  
분렬된 조국에서 갈라진 형제들이 보고싶어  
눈물짓는 서러운 조국에서

통일 위한 불길속에 타올랐던 우리들  
해빛 한점 볼수 없는 캄캄한 좁은 독방  
습기와 어두움에 피기말라 하얀데  
희다희다 못하여 노랗게 떠버린  
노란 얼굴 투지앓아 노랗게 피였는가

녹솔은 철조망이 늘어선 밑에도  
노랗게 활짝 피어 개나리는 부른다  
나비야 노랑나비 나를 닮은 나비야  
총칼이 번뜩이는 장벽을 헤치고서  
저기 북쪽 날아가 우리 형제 입맞추고  
입술문은 그 꿀물 마르기전 날아와  
저기 잠든 우리 형제 뒤통수에 입맞추라

## 작가와 창작에 대한 몇가지 생각

장수근

### 작가라는 의미

우리 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철학적인 속담이 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와야 사람이지.》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에 대해 시사해주는 교훈적인 속담은 보편적인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철학적이다. 속담의 주어를 바꾸어 다르게 변형시켜도 아무데나 그대로 들어맞는것이다.

이를테면 《선생이면 선생인가. 선생다와야 선생이지.》 하는 식으로 이제 그것을 문학에 적용하면 《작가면 작가인가. 작가다와야 작가이지.》 하는 말로 된다.

하다면 작가답다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나는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제나름의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있다.

즉 작가란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 말하고싶은것이 가슴에 차있는 사람이라고.

무릇 발표욕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있는 속성의 하나다. 남이 모르는 저만이 알고있는것을 말해주고싶은것이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 하다못해 어디서 얻어들은 소문이라도 말하고 알려주고싶다.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싶은것이란 그런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가 높은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있는 자연은 끝없는 비밀을 숨기고있어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주탐험의 길을 개척케 하고 미지세계의 극한을 추구하여 소립자를 규명하러들며 중앙의 근원을 파헤치는데로 접근케 하고있다.

그런데 자연에 못지 않게 인간과 그의 생활 역시 그속에는 복잡하고 깊이 숨은 의미가 깃들여 있다.

사람의 두뇌를 《소우주》라고 하는것처럼 사유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란 무한하다고 하리만치 복잡하고 심원하다. 하물며 그 《소우주》의 수백수천만의 복합체인 인간사회란 또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것인가.

바로 작가는 이처럼 복잡한 사회와 인간생활에 내재하는, 여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숨은 의미를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귀뜸해주는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속에 살면서도 미처 모르고 지냈던것을 깨닫고 교양받게 된다.그리하면 여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것을 보게 만드는 작가의 《눈》은 어디서 생겨나는것인가.

그것은 새롭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고 낡고 부패한것을 혐오하는 작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은 생활현상에 대하여 무심하지 않으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언제 어디 가서나 아름다운

을 레찬하고 부정을 단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바로 이런, 뜨겁게 높뛰는 심장이 작가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 웨치고싶게 하고 그것을 글로 쓰게 만드는것이다.

심장속에서 달구어지고 버려진 그러한 글은 세상에 태어나 고고성을 지르는 신생아의 《생의 선언》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고야만다.

요컨대 작가란 쓰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심장의 이야기를 쓸 때만이 작가로 되는것이다.

이따금 작품을 읽고나서 《그런데는 어쨌단 말인가?》 하고 맹랑해서 반문하게 되는 때가 있다. 이야기는 있으나 작가가 말하자는 주장과 종자 즉 입김이 없기때문이다. 비록 그런 작품들속에 작가의 지문이나 등장인물의 입을 통하여 종자가 《천명》 되어있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작품들은 레외없이 심장의 열도, 열정의 도가니를 거침이 없이 그저 쓰기 위해서 실무적 의무감에서 《억지로》 씌여졌다고 할수 있다. 강하게 감동된 심장이 다른 심장을 감동시키는 예술일진대 어찌 실무적인 창작이 예술과 랑립될수 있겠는가

작가의 글이란 심장에서 스스로 흘러나와야만 하는것이다.

### 작가로 산다는것의 의미

생활의 의미를 깨우쳐준다는 점에서 작가는 선생중의 선생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교원》이라고 불리우는 선생들이 이미 씌여진 책이나 기성지식을 가르친다면 작가는 자기만이 찾아낸 생활속의 하고싶은 이야기를 쓴 책을 만들어 세상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글, 그러한 책을 쓴다는것은 험치 않으며 아무나가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작가는 우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작가의 《눈》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심장을 지녀야 한다.

불타는 심장과 열정의 소유자인 작가는 높은 미학적리상으로 하여 늘 현재에 만족할줄 모르며 사람들을 향해 더 아름다와지라고, 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라고 호소하며 스스로 심장을 불태우며 원심을 쓰고 모대긴다.

심장의 고통이란 누가 시켜서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할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치는 심장과 이어진 문학창작 역시 누가 시켜서 하거나 못하게 막을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창작이란 스스로의 사명감으로부터 스스로 말아안는 사회적분공이며 직업아닌 심장의 사업인것

이다.

다음으로 작가가 되려면 그러한 심장의 호소를 글로 표현할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생활속에서 찾아낸 철학을 생활의 화폭속에 담아 써내는데 작가의 남다른 재능, 《기술》이 있는 것이다.

흔히 문학리론이나 평론에서 《내용》에 종속되고 뒤따르는 《형식》이라는 개념으로 취급되는 그 《기술》은 고도의 창조력을 요구하는 세련되고 정교한 《독특한 기술》로서 그것을 터득하는것은 생활속의 철학을 찾아내는데 못지 않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시작했다가 그길에서 물러서는것도 그 《기술》을 배워내지 못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된다.

이처럼 작가로 된다는것은 높은 자질이 요구되며 그만큼 그것은 고상하고 영예로운 일이기도 하다.

작가에게는 노동시간이 따로 없다. 책상에 마주 앉아 쓸 때만이 아닌, 깨어나 생활하고 활동하는 전기간 보이지 않는 숨은 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겸손한 그 로동은 붓을 들고 쓸 때 원고지우에 실현된다. 하다면 그렇게 실현된 원고자 그대로 로동의 열매로 되는가. 아니다.

호랑이를 그리노라고 한것이 교양이를 그려 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이다.

침식을 잃게 하는 절망과 허무감, 문학이라는 까다롭고 어려운 일에서 영영 손을 떼고싶다. 그러다가 채더미처럼 싸늘한 회의의 심연속에서 헤어나 돌격전에서 부상당한 전사처럼 결연히 일떠서 펜대를 비껴들고 달려나간다.

뜯어고치고 추고에 추고를 거듭하는것이다. 열번이고 백번이고 완성될 때까지 성공의 신심으로 자신을 고무하면서...

세상에 글이 나가 독자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을 때 비로소 작가의 로동은 사회에 이바지한것으로, 아울러 작가 역시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인정되는것이다.

만일 그러한 글이 오늘날이 아니라 먼 후날까지도 《수명》이 다함이 없이 두고두고 읽히운다면 그 작가는 사람들속에 살아남아있는 길동무로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것으로 될것이다.

그것들 위해서라면 한오리한오리 백발과 바꾸어 가는 휴식없는 작가의 로동을 어찌 고뇌다 하며 사랑으로 여기지 않을것인가.

## 독자와의 료리

작가가 글을 쓰는것은 오로지 독자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독자를 떠난 창작이나 작품에 대해 한시도 생각할수 없다.

그러면 독자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선 독자라는 그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작가로 되도록 키워주었고 지금도 글을 쓸수 있게 온갖 조건과 편의를 베풀어주고있는 고마운 우리 제도

의 사회성원모두가 포함된다. 그들에 의하여 우리는 먹고 입고 쓰고사는 걱정을 모르고 통시관을 내어 글을 쓸수가 있는것이다.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써야 하며 쓰되 그 글은 마땅히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것으로 되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신세값을 톡톡히 해야 하는것이다.

또한 우리가 독자라고 할 때 그속에는 오늘날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는 없는 미래의 독자까지도 포함된다.

왜냐면 활자로 찍힌 우리의 글들이 생의 흔적으로 세상에 남아 어차피 그들의 총명한 눈을 피할수 없을것이기때문이다. 하기에 나는 그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은 꼬물만치도 남기고싶지 않다. 좋다는 소리는 못들어도 시답지 않게 썼다는 나무람만은 결코 듣고싶지 않은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에 어지러운 흔적을 남기고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가지만은 명백한바 오늘의 독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글은 미래의 독자에게서도 만족을 기대할수 없으리라는것이다.

그밖에 나는 독자를 두가지로 갈라본다. 하나는 말그대로의 광범한 독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나와 같이 글을 쓰는 《동업자》이며 《경쟁자》이기도 한 작가들이다. 나는 눈이 높은 독자인 후자에 대하여 중시하며 몹시 신경을 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남의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썼는가 보자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게 되기때문이다.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다 어느덧 자기를 잃고 마지막까지 단숨에 읽어치운다. 나 자신이 완전히 작품에 포로되어 한사람의 독자로 되어버리기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작가에게는 좋은 일로 작품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작품세계에 끌려들지 못한채 《왜 이렇게 썼을가.》 《이렇게 쓰면 되는가?》하고 불만을 가지고 읽다가 책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둘이 섞인 밤을 그냥 먹을수 없는 것이나 같다.

그것은 영화를 볼 때 역인물이 아니라 배우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경우와 비슷한것으로, 그럴 때 관중은 영화를 볼대신 배우의 서툰 연기에서 흠을 잡으며 탄 시비를 캐게 되는것이다.

이로써 보면 어찌 독자앞에 작품을 쓴다고 함부로 붓을 들수가 있으며 허투로 쓴 글을 세상에 내놓을수 있겠는가.

독자앞에서의 작가의 높은 요구성이란 자기 존엄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미덕이기에 앞서 그들앞에서 지켜야 할 초보적인 도덕이며 의무로 된다.

하기에 나역시 글을 쓸 때나 아니쓸 때나 머릿속에 독자가 떠나본적이 없다.

변변치 못한 글이나마 세상에 나가 나에게도 얼마간의 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는 면목도 모르는 그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뉴대를 향시 느끼고있으며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그 뉴대속에서 나는 나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감지하며 그에 어긋남이 없이 더 좋은 작품으로써 그들에게 보답하리라 자신을 혹사하며 힘겹게 쓰지 않을수 없다.

구상을 무르익히는동안 옴니암니 따지고 새김질하면서 오랜기간 공공 《읽는다》. 붓을 들고 쓸 때에는 옥을 다듬듯이 조아박느라 쓰고 깎고 지우면서 술한 원고버럭으로 휴지장을 만든다.

밥에 씹히는 모래알 같은 거슬리는말 한마디 섞여들어서는 안되는것이다.

어쨌든 굵프고 더디여도 웅골찬것을 만들어내리라는 욕심으로 뼈와 살을 깎는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왜냐면 참으로 독자를 얻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음을 깊이 확신하고있기때문이다.

설쳐서 쓴 설익은 글이 한번 읽히고 독자를 잃고만다면 착실한 작품은 거듭하여 읽히면서 날과 더불어 새 독자를 모으며 그들속에 《장수자》로서 오랜 생명을 누려나가게 되는것이다.

바뀌 말하여 독자란 독자와의 룬리를 옹게 지키는 작가에게 차려지는 《례물》이며 《보답》이기도 하다.

## 독창성에 대한 생각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나는 세상에 아무나 할수 없는것, 오직 나만이 할수 있는것을 해내고싶은 뿌리깊은 욕망을 품고 살아온다.

어찌보면 그 욕망이 희랍고 허망한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에 있어서 지극히 생활적인 소박한 욕망이며 목표이기도 하다.

왜냐면 나는 그것을 내가 쓰는 글에서 실현하고자 하기때문이다.

문학은 나의 그 욕망, 그 포부를 실현시켜줄 돌도 없는 무대이다.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문단이라는 이 무대에서는 등장하는 매사람이 자기의 장끼,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나설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하여 남에게 없는, 남이 흉내내지 못할, 자기에 고유한 새것을 들고나와 그것을 발휘하고 자랑할것을 장려하며 내세워주는것이다. 수백만 독자대중이 지켜보는 이 무대에서는 사회적직위나 관록, 연령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출연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바 그들모두에게 공정하고도 똑같은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그 기준가운데서도 가장 중요시되는것이 제목소리를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즉 독창성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은 언제나 독창적으로 해야 한다.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예술작품마다 특색이 있어야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예술

만이 가질수 있는 정서적감화력을 더욱 높일수 있다.》

창작이란 말그대로 없던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것을 말한다. 그러자면 독창성을 떠나서는 달리 그것을 실현할길이 없다. 말하자면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따라서 독창성을 떠난 창작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 흔히 쓰고 반복하는 독창성이란 말을 나는 내나름으로 《다른 누가 아닌 오직 나만이 할수 있는것》이라는 뜻으로 리해하며 받아들인다. 그래서인지 독창성이란 말은 언제나 나에게 매력있게 울리며 야심만만한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나로써 세상앞에 나타나 뽐낼수 있는 넓은 마당이 거기에 펼쳐져있기때문이다.

문단이라는 울긋불긋한 화원속에서 다리아나 함박꽃과 같이 요란한 꽃은 못되여도 제비꽃이나 채송화처럼 제멋대로 가지고 자기 자리를 독차지할수 있는것이다. 다리아꽃이 물론 크고 화려하다. 하지만 결코 채송화의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대신할수 없으며 가리울수도 없다.

작가는 성악에서 독창가수나 같다.

독창가수라면 목소리만 듣고도 누구라는것을 알아맞힐수 있는 그런 가수를 두고 말한다. 것처럼 작가 역시 글을 보고도 누구의 글이라는것이 알리도록 그렇게 써야 하는것이다.

작가는 결코 합창단에 섞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문학에는 《합창》이란 있을수 없으며 오로지 《독창》만이 요구된다.

만일 《합창》이란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식과 류사성이라고 하는 오명으로 락인되어 배척과 규탄을 받아야 할것이다.

류사성이란 말을 나는 모방이라는 말과 똑같이 생각한다. 제것을 가진 작가에게는 모방이란 치욕으로 된다.

그러면 작가로 하여금 제 얼굴, 제 목소리를 가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겠는가.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조건짓는 기본요인인 세계관은 물론 그밖에 작가에게 고유한 강한 인간적개성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그 개성은 그저 남과 구별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가 다름아닌 바로 자기로 되기 위해 자기를 지키려는 《고집》과 굳은 의지, 그로부터 머리를 쳐드는 존엄이다.

작가의 독창성이란 결국 자기글에서 그 존엄을 지키려는 결패이며 배심이라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 문학적재능의 첫째 조건

창작이란 재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지식과 노력, 수양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것이 창작이다.

문학인 경우 창작적재능은 무엇보다먼저 생활과 사물현상 가운데서 무엇이 창작의 대상 즉 글을 쓸 감이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가려보고 골라

잡는 눈을 가지는데서 나타난다고 본다.

닭알에서 금방 까나온 병아리는 신통히도 낱알이나 풀씨 같은 제입에 맞는것은 찍어먹지만 그 밖의것은 입에 대지도 않는다.

설사 금강석이 있다쳐도 거들떠보지 않을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개성을 가진 재능은 생활하는 과정에 눈에 비쳐들어오는 자기의 《먹이》, 자기의 글감을 절로 끌라서 모으며 그것을 빚어내어 자기의 글을 만든다. 그는 남이 글감을 가로챌까 봐 조바심을 가지지 않으며 《먹음직스러운》 요란한 글감이 나타났다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에도 결눈을 팔지 않고 다소곳이 제 《먹이》로 속심을 차려나간다. 그것만이 제것으로 제 얼굴을 가지게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작품을 읽을 때 벌써 끌라잡은 이야기거리나 세부가 신통치 못한 경우를 일부 찾아보게 된다.

문학의 《감새》가 아닌것을 가지고 아무리 주물려야 신통한 작품이 될리가 없는것이다.

그것은 작가가 문학적재능의 첫째 조건, 제것을 끌라잡는 자기 눈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것을 말해준다.

물론 끌라잡은 이야기거리가 그대로 작품이 되는것은 아니다.

꽃꿀은 그것자체로는 아직 꿀이 아니다. 그것을 빨아들인 벌의 분비물에 의해 《가공》되어 비로소 꿀로 되는것이다.

작품도 것처럼 작가의 허구에 의해 소재가 가공재생되는것만은 사실이다.

여하튼 명백한것은 재능을 가진 작가에게는 문학이 될수 있는감을 끌라내는 자기 눈이 있다는것이다. 그 눈은 언제나 신통한것을 끌라가지고 신통한것을 써내게 한다.

신통하다고 하여 오묘하고 기발한것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평범한 생활속의 작은 세부나 미묘한 감정의 움직임 등 흔히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고 스쳐지나는데서 구슬같은것을 주어내어 닭아가지고 빛이 나게 하며 그것이 다 신통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여도 피나는 노력으로 닦달하지 않으면 결국 쓸모없는것으로 되기 십상이다. 일껏 손끝재간으로 떨어져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손끝재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보다 사진이 잘됐다는 말을 듣는것처럼 작가에게는 모욕으로 된다.

그것은 참된 재능을 모독한데 대한 응당한 징계로 되는것이다.

## 화약을 안은 심장

말하지 않고 견딜수 없는 글은 심장에서 스스로 썩여진다는것은 앞에서 이미 말해두었다.

그것은 생리적욕구와도 같이 억제할수 없는것이다. 가슴에 엉키고 서린, 말하고싶은것이란 가슴에 진 어혈과 같아서 써내야만 그 어혈이 풀린다.

세상을 향해 웨치고싶은 그 《어혈》을 나는 화약에 비기고싶다. 언젠가는 터지고야말 《화약》으로 장진된 작가의 가슴은 작품을 다 써내기까지 내내 뜨겁고 시름겹다.

그렇수밖에 없는것이 조만간에 세상에 요란한 폭음으로 울릴 화약을 한가슴에 불안고있거늘 어찌 범연할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글이 나가서 세상이 《폭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장쾌한 시각을 눈앞에 그리며 강도를 굴진하는 광부의 근기로 집필을 계속해나간다.

원고가 완성되어 인쇄에 회부되면 폭약심지에 불을 달고 대피소에서 깊숙이 담배를 빠는 광부처럼 순간의 안도감과 기대에 차서 《폭발》을 기다린다. 드디어 책이 나가고 돌을 던진 호수의 파문과도 같이 독자계의 반향이 울려와 긴장된 작가의 가슴을 후련하게 가져준다. 거기서 새힘을 얻은 작가는 또다시 가슴속에 《화약》을 쟁이는 시름겨운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창작의 《막장》과 맞선다.

실로 창작이란 막장을 밀고 나가는 광부의 로동과 같다. 에돌아갈 쉬은 길이란 없으며 오직 근기있는 로동으로 암벽을 뚫으며 땀과 쇠돌을 바꾸듯이 한줄한줄 뚫어나가야만 하는것이다.

물론 여기에 난관과 어려움만이 있는것이 아니다. 쓴다는것은 생리적욕구의 충족과도 같아서 쾌감과 희열이 동반되는것이다. 바로 그 쾌감, 그 충족감과 바꾸기에 열밤을 패도 피곤을 모르는 왕성한 창작의욕과 희열에 넘쳐 고된 로동을 극복해나가는것이다.

창작이라는 비상히 어렵고 매력있는 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하지만 창작에 대한 몇백마디의 논의보다 작가에게는 똑똑한 한편의 작품이 훨씬 우월하며 값이 있다.

말하자면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자》는 시비보다는 실지 독창성있는 창작으로 《평잡는 매》임을 보여주는것이 더 중요한것이다.

## 첫 청년절날에

신영숙

첫 인상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법이다. 하여 사람들은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들 말하는것이다.

얼마전 나는 첫 청년절을 뜻깊게 기념했다.

아니 나는 이날을 영원히 잊을것 같지 않다.

천진하게도 나는 이 명절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럴만도 했다. 공원과 유원지, 거리와 마을은 청년절을 축하하는 선전화들로 들어 찼다. 집으로 오가는 길은 두말할것도 없고 청년들이 있는 그 어디나 청년절이라는 희한한 명절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화제거리로 흥성이었던것이다. 거리의 곳곳에서는 기발들이 나뭇기고 청년들의 일터에선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으며 노래와 춤으로 들썩이였다.

명절은 지났으나 아직도 나의 눈앞에는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던 명절날의 광경이 사라질줄 모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입니다.》**

청년절날이였다. 저마끔 명절준비로 들썩이며 붐비던 아침은 언제 있었더나싶다. 즐겁게 보낸 명절의 하루 이야기로 오가는 저녁은 또 그대로 흥그려왔다. 그 저녁은 오빠의 이야기가 온 식구의 주의를 끌었다.

너부족한 이마밑에서 은근하게 빛을 뿜던 두눈이 열정적으로 빛나고 과묵한 표현인듯 두툼한 입가에서는 이야기가 청산류수처럼 흘러나왔다. 명절의 기쁨이 오빠의 기분을 뜨게 만든상싶었다.

나도 즐거웠던 하루의 소감을 터놓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 《쿵 쿵》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날렵한 막내동생이 베란대로 달려나가더니 걱정을 리치였다.

《야 축포! 누나, 축포예요. 축포!...》

《할아버지, 축포 빨리 나오세요.》

나이에 비해 키가 큰 남동생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온 집안식구들을 재촉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베란다에 나섰

다. 정말 광장쪽 하늘이 축포로 덮이였다. 화경이 비치는속에 터져오른 축포에서 쏟아져내리는 울긋불긋한 작은 축포알들, 물론 처음보는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 시각엔 그 축포가 바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뿌려진다고 생각하니 이상스럽게 마음이 설레였다.

국가적인 큰 명절때마다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군하던 저 축포가 오늘 우리 청년들의 머리위에 쏟아져내리는것을 보니 조선의 청년된 궁지와 자부심이 가슴뿌듯이 안겨왔다.

세계를 둘러볼 때 우리 조선청년들처럼 환희와 신심에 넘쳐 자기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 혁명의 계승자로 곳곳이 나아가는 청년들이 그 어데 또 있던가.

《작은 누나가 저기서 춤을 추고있어. 누나 그렇지!》

막내동생은 흥분하여 진짜 누나가 보이는듯이 손짓을 하며 가리켰다. 나의 눈엔 진정 보이는듯했다.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피어나는 귀염성스런 얼굴에 함박꽃같은 웃음을 띠운채 살짝살짝 어깨를 들썩이며 춤추며 돌아가는 내 동생의 모습이... 어찌 내 동생뿐이라. 드넓은 광장에서 행복의 원무를 그리는속에는 청산리의 청년분조장이며 《청년절기념》호 전기기관차를 만드는데 있는힘껏 자신의 모든것을 바쳤다는 아련하게 생긴 소박한 처녀도 그리고 검덕의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달려온 검붉은 얼굴의 제대군인 청년도 경축의 무도장엔 꼭 있으리라...

력사에 류례없는 조선의 첫 청년절의 밤이어서 너도나도 흥에 겨워 새날이 밝도록 즐겁게 펼치는 청년들의 저 룬무!

과거가 떼떽하고 미래가 끝없이 양양한 조선청년들의 씩씩하고 행복넘친 모습!

젊음이 되찾아온듯 환히 웃는 할아버지의 정겨운 시선이 나의 얼굴에 닿았다.

사랑과 선의로 가득차있는 할아버지의 얼굴빛에서 순간 나는 많은것을 읽을수가 있었다.

《너희들은 참 행복한 세대들이다. 국가가 생겨 명절은 마련되지만 청년들의 명절까지 마련해주고 이렇게 ping장하게 되도록 해주는분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니. 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서한까지 보내주시더구나. 누구에게나 다 차례지는 영광이 아니지...》

할아버지의 눈길은 서한을 들고있는 나의 손으로 쏠렸다.

깊은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의 모습을 대하자 나라없던 지난날 고통과 모멸속에 흘러보낸 로세대들의 청춘시절이 돌이켜지는것과 함께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서한의 구절구절이 다시금 안겨왔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을 따라 시작되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에 이르는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캄캄한 암운이 드리웠던 1920년대!

자기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무어 주시고 청년운동의 첫 시원을 열어놓으시여 우리 청년들은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지 않았 던가.

김혁, 차광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청년운동의 첫 기슭을 떠난 그때로부터 60여년!

반세기가 넘는 나날에 력사의 영웅으로 영생하고 삶을 누리는 청춘들은 그 얼마였던가. 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꽃나이 리수복영웅, 90년대 첫 김광철영웅...

세월의 년륜속에서 빛나는 영웅들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우리의 가슴을 후덥게 하는것인가. 광복거리, 통일거리, 서해갑문, 600여리 북부철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청년절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은 우리 혁명의 길위에 수놓아진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든것을 청춘들의 위훈으로 청년들을 영웅적인 세대로 불러주시는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였다.

나의 머리에는 불우한 운명을 고한 청년과학자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우주는 무한대하며 지구는 끝없이 공전한다.》

오늘날 이것은 그 누구나 쉽게 인정하는 공인된 사실로 되었으나 청년과학자는 이 과학적인 설을 발견한것으로 하여 부당하게도 체포되었다. 통치자들은 신이 앓을 자리를 놓고 감히 우롱하였다는 죄아닌 죄를 들썩운것이다. 놈들은 수년간의 감옥생활중에도 과학자의 신념과 지조를 버리지 않는다하여 그를 끝내 화형하고야말았다.

한송이 꽃으로 피기도전에 무참히 스러진 청년과학자의 운명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참답게 꽃피워주는 품이 없는 불우한 처지...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계승자로 믿어주고 내세워주며 청년들을 위해 정력적인 지도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여 행복우에 더 큰 행복을 날마다 시간마다 차곡차곡 덧없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품

에 안겨 자기의 희망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청년들이 골치거리로 우환거리로 된다는 세계의 아우성이 전파를 타고 쉬임없이 우주공간을 종횡무진하는 이때 명절중의 큰 명절로 청년절을 성대히 기념하며 력사적인 서한까지 받아안은 조선청년들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의 청춘들처럼 믿음속에서 청춘을 빛내이며 사랑속에서 위훈을 수놓아가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더는 없다.

첫 청년절을 맞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서한을 받아안은것은 우리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영광중의 영광이고 행복중의 행복이며 자랑중의 자랑인것이다.

언젠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로투사의 이야기가 가슴을 치며 생각키웠다.

《...동무들은 참 행복한 세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영광을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우리도 다시 청춘으로 되돌아갈수만 있다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잘 받들어 혁명의 천만리길을 가고픈 생각뿐입니다. 부탁건대 동무들은 로세대들의 이 숙원을 안고 혁명의 3세, 4세로서의 자기사명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세대의 이 진정속에는 사랑으로 맺어지고 의리로 엮여져온 수령과 전사간의 혈연적련계의 전통이 력력히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밤은 깊이가도 청년들의 환희의 춤바다는 더더욱 절정에 오르는듯싶었다. 청춘의 랑만을 말해주듯 축포는 야광주인양 밤하늘에서 빛을 뿌리고 그 아래에 황홀하게 펼쳐진 홀륭한 료무는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충만된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말하는듯싶었다.

나는 세상에 소리치며 말하고싶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은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는것을!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우리의 심장은 남풍이 불건 서풍이 불건 파동을 모르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간다는것을...